

# 峴山文化

제20호



襄陽文化院



서 광 농 협 조 합 장  
박 철 수

저희 서광농협은 강원도의 영동 북쪽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과 바다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산줄고 물맑은 무공해 청정지역입니다.

주요특산물로는 청정지역에서 채취한 인진쑥을 가공하여 만든 인진쑥 환제품과 산채, 표고버섯 제품으로 농업인의 농업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실익사업으로는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지역 인재양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셔틀버스운행 주민의료비 지원등 복지농협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광농협의 가공제품인 인진쑥 제품과 산채, 표고버섯 제품을 많이 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 양양군 서면 상평리 35-7

· 사무실:(033)672-2954 · 팩스:(033)671-8229 · 공장:(033)672-2952

· 주유소:(033)672-2943 · 서울사무소(031)791-9812

# 峴山文化

제20호



襄陽文化院



# 양양8경



## 1경 연어들의 고향, 남대천



남대천은 총 길이가 54km되는 하천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오염되지 않은 청정수역이다. 봄에는 황어, 7~8월에는 은어, 10~11월엔 북대평양에서 3~5년 동안 자란 연어떼가 돌아오는 곳이다. 또한 이곳은 타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두꺼리, 민물참게 등 희귀 민물 고기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 오대산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물과 구룡령에서 발원한 물이 만나 큰 하천을 이루어 동해로 흘러가는 양양 남대천은 연어들의 모친인 '어머니의 강'으로 불리며, 매년 연어축제가 열리고 있어 연어들의 힘찬 몸부림을 직접 만나 볼 수 있다.



## 5경 하류과 조준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하조대



백사장 규모가 크고, 모래가 부드러우며, 경사가 완만하여 가족단위의 피서지로 적합하다. 1976년 처음 개장한 이래 매년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2,722㎡의 야영장과 더불어 해수욕장으로 운영되며, 위락시설이 많지 않아 주변의 다른 해수욕장에 비해 조용하다. 담수가 흐르며 남쪽에 기암괴석과 바위섬이 있어 낚시하기에 좋은 곳이다.



## 2경 태고의 웅비를 간직한, 대청봉



일출과 낙조를 유명하며, 기상변화가 심하고 강한 바람과 낮은 온도 때문에 눈장나무 군락이 웅단처럼 낮게 자라 국립공원 전체와 동해를 한눈으로 볼 수 있다. 늦가을부터 늦봄까지 눈으로 덮여 있고, 6월~7월이면 진달래, 철쭉, 벚꽃으로 뒤덮이며, '오산요수'라는 글씨가 새겨진 바위와 대청봉 표지석이 있다. 정상까지 오색방면 백담사방면 설악동 방면 한계령 방면의 코스가 있는데, 오색에서 설악 쪽표를 거쳐 정상에 오르는 6km(약 4시간 소요)가 최단거리 코스이다.



## 6경 파도소리와 죽향이 가득한, 죽도정



죽도정은 죽도 정상에 있는 정자로 1965년 5월에 세워졌다. 죽도는 인구리 해변에 있는 둘레 1km, 높이 53m의 석으로 송죽이 사철 울창하다. 죽도정에 오르면 파도가 깎아 만든 여러 모양의 바위와 해안풍경을 한 눈에 바라 볼 수 있으며, 죽도 북쪽 기슭에는 죽도암이란 작은 암자가 소박하게 자리잡고 있어 신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 3경 자연도 함께 쉬아가는 신비로운, 오색령(한계령)



해발고도 1,004m인 오색령(한계령)은 내설악과 남설악을 잇는 44번 국도이며 여행을 동고동락한 고개이다. 인생을 닮은 듯 굽이굽이 이어진 길을 따라 달리면 남설악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특히 설악의 운무가 펼쳐는 장관은 한계령에서만 볼 수 있다. 이중환의 택리지에 보자보면 강원도 지역에서 여섯개의 령을 손꼽았는데 그 중에서도 으뜸이 오색령(한계령)이라 했다.



## 7경 강원도의 베네치아, 남해항



아름다운 미항 남해항은 386세대에게는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고래사냥의 활영지이다. 그시절 그들이 정말 원했던 삶은 무엇이었는지...고래사냥 노래의 '술마시고 노래하며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라는 가사가 기억에 남는다. 남해항 양쪽에는 서로 마주보는 있는 빨간색과 하얀색의 등대는 남해항의 운치를 더해주며 낚시배를 예약하면 바다에 나가서 직접 고기를 잡을 수 있다.



## 4경 시원한 폭포와 가을단풍이 아름다운, 오색주전골



설악산국립공원 남쪽에 있는 오색약수터에서 선녀탕을 거쳐 점봉산(1,424m) 동북쪽비탈에 이르는 계곡이다. 남설악의 큰 골 가운데 가장 수려한 계곡으로 계곡미와 가을단풍으로 유명하다. 골이 깊어 한여름에도 한기를 느끼며 고래바위·상투바위·새눈바위·여심바위·부부바위·오색석사·선녀탕·심이폭포·용소폭포 등 곳곳에 기암괴석과 폭포가 이어져 풍광이 빼어나다.



## 8경 일출이 아름다운, 낙산사의상대



낙산사의상대는 낙산사 창건자인 의상대사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한 정자로, 낙산사의 동쪽 100m 거리의 바닷가 절벽 위에 세워져 있다. 앞으로는 끝없이 맑고 푸른 동해바다를 마주하고, 오른쪽 절벽 아래로는 낙산해수욕장과 인접하여 있으며, 뒤로는 유서 깊은 낙산사와 울창한 소나무숲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주위 경관이 빼어나다.

# 농협은 항상 농업인 곁에 있습니다.

농협은 농업인에게는 든든한 후원자로  
소비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유통으로  
우리 고장 농업의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양양농업협동조합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208번지

- 조합장실 : 671-0078
- 전무·총무 : 671-0077
- 신용계 : 671-0071
- 대출·공제 : 671-0072
- 양양농협주유소 : 671-1747
- 지도·판매·경제계 : 671-0073
- 하나로마트 : 671-0074
- 농기계수리센터 : 671-0076
- 팩스 : 672-0076



2009년 신년 인사회



2008년도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및 제8회 동구리 경향대회



2008년도 청소년과 함께하는 도자기 체험



경로효친 문예작품 입상자 시상식



양양지역 숲속의 국악캠프

# 목차



## 〈표지사진〉

80년대 흑백에서 칼라로 전환된 초기 사진으로 낙산비치 호텔과 의상대 사이 바다에서 낙산사를 향해 촬영한 세장의 사진을 합친 것으로 사진좌측이 낙산비치호텔 건축전 모습. 우측의 바닷가 슬레이트 지붕모습은 70년대 횃집 모습이며 횃집 오른쪽에 아련히 보이는 것이 의상대이며 7-80년대 낙산사 부근의 전경임.

발간사   양양문화원장 양동창	9
신년사   양양군수 이진호	12
신년사   양양군의회의장 김준식	14
신년사   국회의원 송훈석	16

## 특별기고

- 우리나라의 연어 치어 방류사업의 현황과 연어의 생물학적 특징  
영동내수면연구소 | 성 기 백 18

## 향토사료

- 襄陽 海村의 生活과 文化 | 향토사학자 이재풍 26

## 양양의 문화재

- 도유형문화재 제33호 낙산사 흥예문 65

## 전설

- 竹島의 절구바위 | 편집실 66

## 기행문

- 중국양양구를 방문하고 | 양양문화원장 양동창 68

## 설화

- 古月山 | 편집실 80

## 향토단상

- 한시 | 편집실 81



## CONTENTS

### 건강정보

- 알아두면 건강을 찾아주는 자연식품 및 효능 | 약사 김관호 --- 90

### 경로효친문예작품(최우수상)

- 우리할머니 | 손양초등학교 (6학년 권종오) ----- 100
- 할머니 | 조산초등학교 (6학년 박상은) ----- 101
- 할머니 | 현남중학교 (3학년 김대균) ----- 102

### 2008 양양의 축제

- 양양송이축제 2008 ----- 104
- 양양연어축제 2008 ----- 106
- 양양현산문화제 2008 ----- 107
- 양양해맞이축제 2009 ----- 108
- 마을단위축제 2008 ----- 109

### 양양의 관광지

- 남애항 ----- 112
- 낙산사 의상대 ----- 113
- 오색주전골 ----- 114
- 하조대 ----- 115
- 죽도정 ----- 116
- 오색령 ----- 117
- 대청봉 ----- 118

양양의 체험여행 ----- 119

양양의 먹거리 ----- 147

양양의 이모저모 -----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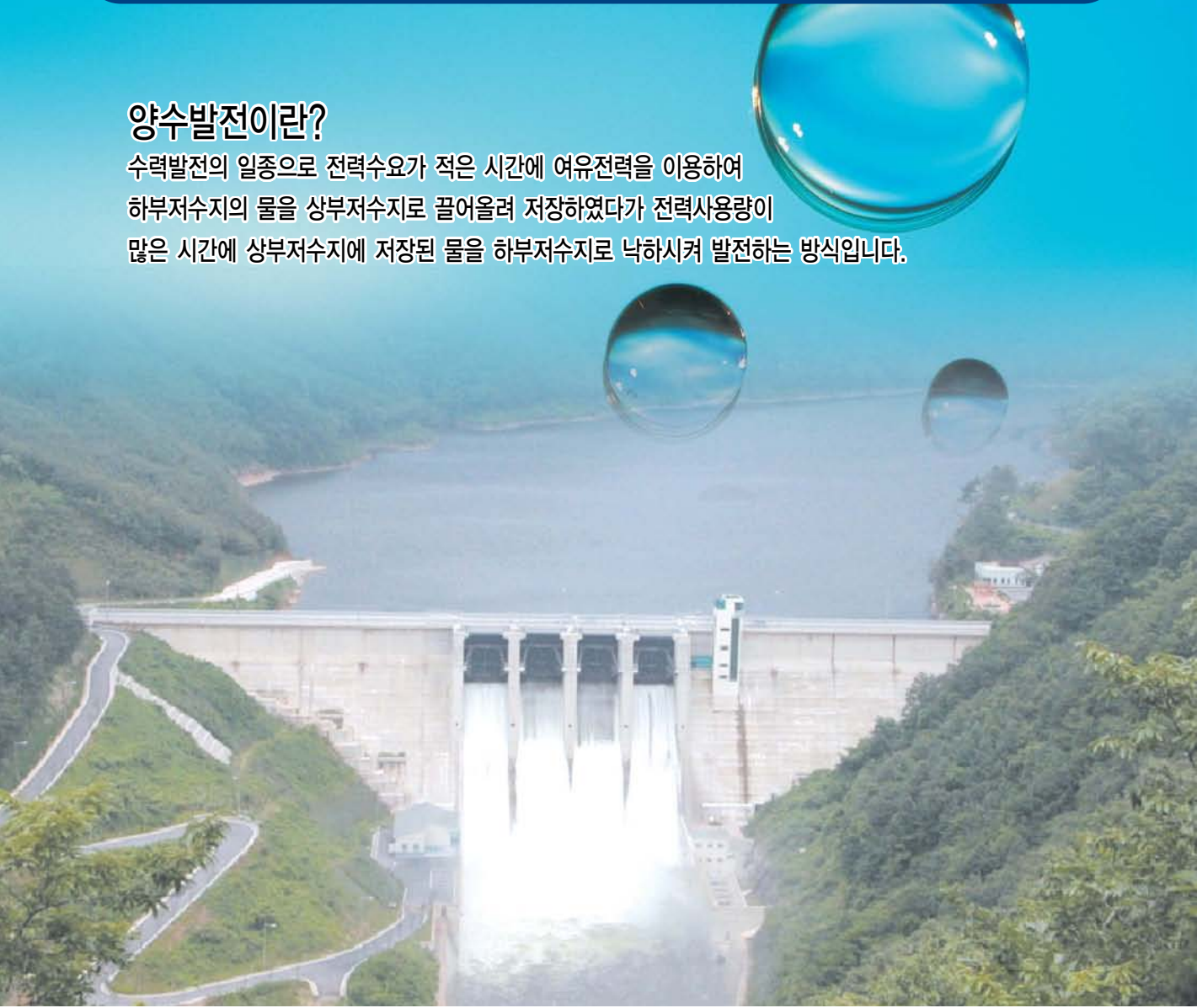
편집후기 ----- 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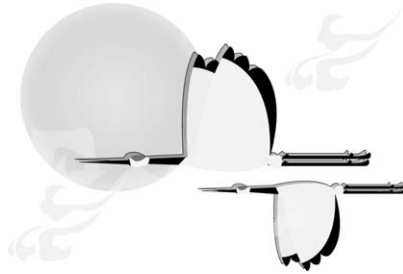
# 한국중부발전(주)

양양 양수발전소는 국가경제 발전과 지역사회 공헌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033)670-1415, 1417

## 양수발전이란?

수력발전의 일종으로 전력수요가 적은 시간에 여유전력을 이용하여 하부저수지의 물을 상부저수지로 끌어올려 저장하였다가 전력사용량이 많은 시간에 상부저수지에 저장된 물을 하부저수지로 낙하시켜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 친애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문화가족 여러분!

이제 무자 년을 맞아 쥐의 근면성과 예지(豫知)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짐했던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희망찬 기축 년 새해를 맞아 지난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축 년은 소의 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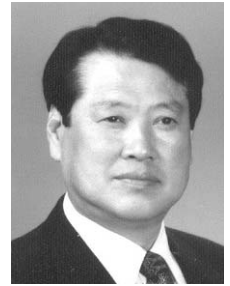
우리의 조상들은 소는 큰 재산으로서 부와 풍요의 근본으로 여겼으며 소를 숭상하고 위해야 집안이 번창하고 마을의 안녕을 얻을 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민족은 소를 동물이나 가축으로 보기보다는 가족처럼 생각해 왔고 소의 순박한 심성은 우리와 매우 친숙한 동반자로 여겨왔습니다.

우리는 소의 근면성과 인내심을 본받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이겨내고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으로서 소임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지방문화원의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지방문화원이 발족한지 50여년 만에 지방문화원의 도약을 다짐하는 “문화의 날”을 2007년 10월 10일 선포하고 “문화의 날” 선포 1 주년을 맞아 전주에서 기념행사와 함께 “땡땡땡 실버문화 축제” 행사를 가졌으며 우리 문화원에서는 연어요리와 연어가죽제품의 관광 상품을 소재로 한 “고향의



양양문화원장  
양동창



은빛 연어”로 참가하여 장려상을 받았으며, 문화원 부설 양양문화원향토사 연구소를 발족하였고, 현산 문화제 30 주년을 맞이하여 알차고 대대적인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대 군민화합을 가져 왔으며, 강원도가 주최한 향토사연구 발표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에서는 지도 선생님과 수강생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가르치고 배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시어 각종 대회에서 많은 분이 입상하셨습니다.

서예 반에서는 다섯 분이 작가로 인정을 받음으로서 괄목할 만 한 성과를 거두셨으며, 한국화반에서는 대한민국회화대전에서 대상을 받는 등 다수의 입상자를 배출하였고, 한시 반에서는 제 16 회 전국한시백일장에서 다섯 분이 입상하시는 등 각종 한시 백일장에서 수상하시는 영예를 안았으며, 민요반과 사물놀이 반에서는 제 7 회 전국 국악경연대회에서 금상과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고장의 명예를 빛냈습니다.

문화가족의 국내 문화탐방에 있어서는 부석사, 소수서원, 독립기념관을 관람하는 등 민족정기를 불어넣고 견문을 넓힘으로서 보람 있는 한해를 보





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6.25 전쟁 비사를 조사 수집하고 주민의 증언을 통하여 그때의 실상을 파악하여 현대사를 바로잡기 위하여 향토사 자료를 발굴하고 2009 년도에 “6.25 비사”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2009 년은 3.1 만세운동 90 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순국선열들의 얼을 선양하는 사업을 보람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묻히어 가고 잊히어 가는 전통문화를 재조명하고 꾸준히 발굴하여 우리고장의 정통성을 정립해 나가고자합니다.

아무쪼록 기축 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신년사



양 양 군 수  
이 진 호

### 존경하는 내·외군민 여러분!

기축년(己丑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먼저, 여러분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또 진심으로 큰 복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구년과 신년을 가르는 큰 경계가 되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도 큰 변화와 다짐이 생겨남을 느끼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마음가짐을 살핌에 있어 예년과는 꼭 다른 각오와 다짐이 보이는 것은 운명적으로 올 한해가 우리의 국가와 역사, 그리고 미래에 큰 도전과 난관이 있을 것을 모두가 직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새해 아침, 저는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와 과제를 앞두고, 다음의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민여러분!

군정은 500여 공직자와 함께 우리 군민 모두가 오랜 시간을 함께 쌓아올린 성실함의 산물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결과물을 스스로 의심하고, 상대적으로 평가절하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떨리하고, 또 경계하여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큰 걸음 하나를 더 내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감과 용기가 필요하며, 그 자신감과 용기의 발로가 바로 지금까지의 군정 성과물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우리는 모두 마음착한 사람들이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마음이 착하기만 하여서는 안될 사정에 있습니다.

민첩하고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대외적으로 목표를 명확히 하고, 과정을 선점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이익을 취하여야 합니다.

대외적으로 오색로프웨이나 싸이클 경기장 건립, 연어생태관, 해양워터파크 등의 사업은 향후 우리의 지역소득을 높임은 물론, 우리군을 특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들입니다.

여러분께서 밀어주셔야 합니다.

대내적으론 올 한해 우리의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없이 가급적 우리 시장안에서 돌도록 하는데 모든 선택과 역량이 집중될 것입니다.

저는 군수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삶이 곧 제 삶과 직결됩니다.

만약 우리 군민의 삶이 위기에 처하고, 난관에 봉착한다면 마땅히 제가 먼저 그 삶을 구제하고,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년을 맞아 저부터 변화하겠습니다.

이전과는 달라진 새로운 의지와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새해 아침의 이러한 각오와 신념에 군민 여러분께서 함께 공감하여주시고, 또 응답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군민여러분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9년 기축년 새해아침에



## 신년사



양양군 의회의장  
김준식

###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양동창 양양문화원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올해로 제20호를 기록하는 『현산문화』지가 군민 모두의 기대와 설렘 속에 발간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역사적 숨결과 천혜의 자연적 아름다움을 간직한 우리 양양의 전통문화를 계승시키고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자 애써주시는 양동창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며, 지난 한해동안 지역과 의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돌아켜보면 2008년은 군민들의 정주여건과 지역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욱 공



고히 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한 가장 원초적인 시설인 양양군환경자원센터와 남대천 이남의 지역발전을 촉진시켜줄 양양교의 준공은 이를 대변해 준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자 애쓴 한해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 특산물인 송이가치를 극대화하여 군민들의 소득향상과 연계시키고자 노력하는 한편,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오색-설악산 로프웨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민관이 하나되어 지혜를 모은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시한번, 지난 한해동안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속에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의회상을 군민여러분께 보여드리므로써 더욱더 군민여러분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군민여러분께서도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애정어린 충고와 조언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군민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군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신년사



국 회 의 원  
송 훈 석

다사다난했던 격동의 무자년 한해를 보내고 희망찬 기축년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여유로움과 평화의 상징인 소띠해를 맞이하여 양양군민 여러분 가정마다 행운이 가득하시  
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양양군의 전통문화 계승과 군민단합에 큰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는 「현  
산문화」 제20호 발간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양양지역의 대표적인 문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현산문화’의 발전을 위해 어  
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양동창 양양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문화 발전에 대한 큰 관심과 애정으로 현산문화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양양군  
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양양군민 여러분!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식정보화 시대를 넘어 이제는 문화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문화의 시대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는 단순히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제30회에 빛나는 현산문화제는 우리 양양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큰 역할과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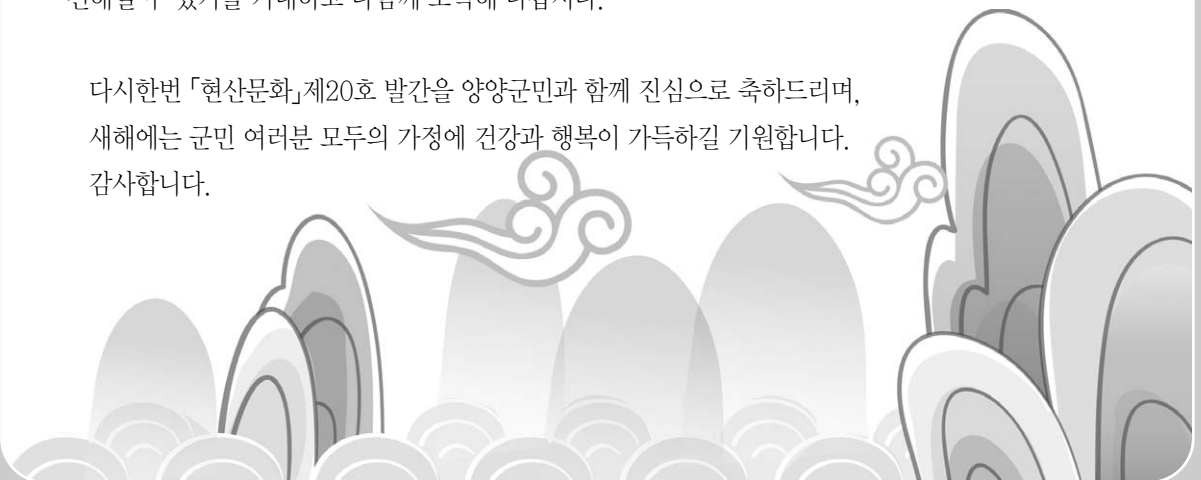
현산문화제의 기원은 예로부터 험준한 고산준령이 많은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술한 전란을 겪게 되자 서기 1007년(고려 목종 10년) 현 양양읍 성내리를 중심으로 양주성을 축성하여 외적의 침입을 수호하는 기지로 삼고 현 성황당 자리에 성황사를 짓고 호국 영령을 위로하고 국태민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성황제를 지내면서부터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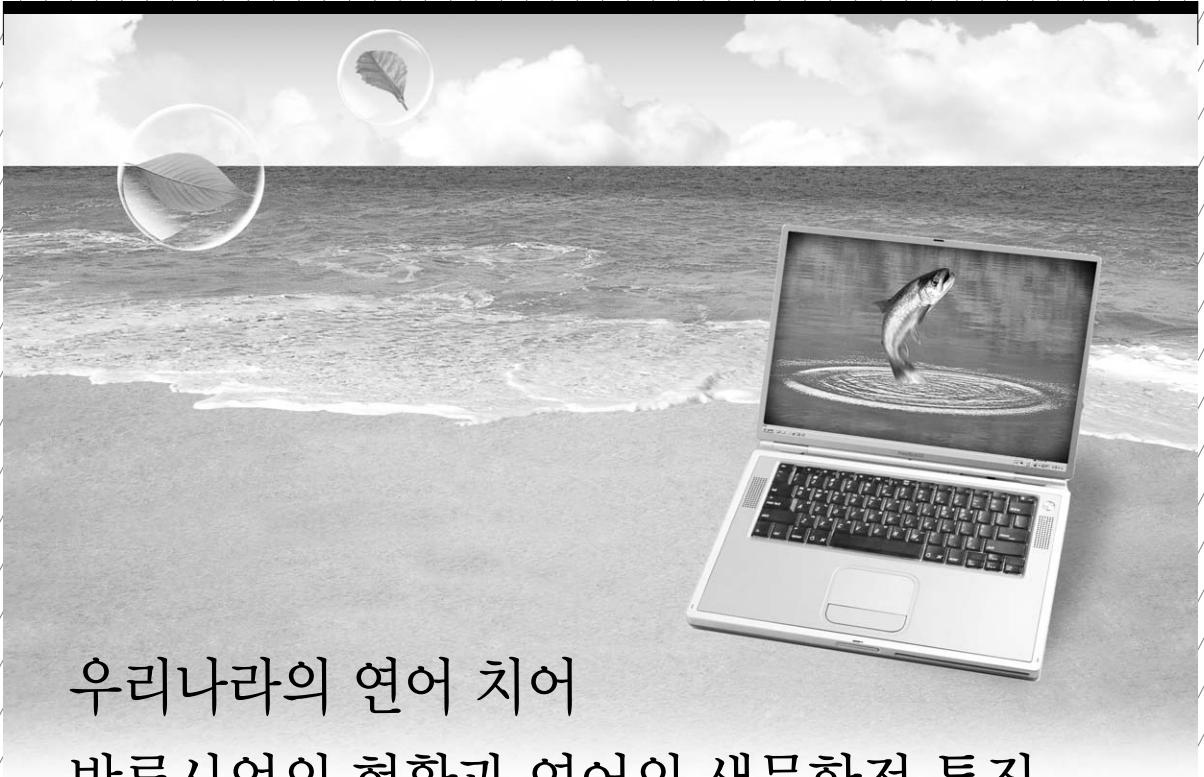
일제 식민시절 전통문화 말살정책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의 노력으로 인해 현산정신과 전통이 이어져 성황제와 각종 민속행사 등으로 확대발전되어 오늘날의 현산문화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현산문화제 정신을 고스란히 계승하듯 최근에 어려워진 경제위기와 국론분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양양군민들의 지혜와 힘을 모으고 전 군민이 동참하는 향토제를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현산정신의 위대함을 보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태민안’이라는 유구한 현산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조상들의 지혜가 후손들에게 오래도록 전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다시한번 「현산문화」제20호 발간을 양양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나라의 연어 치어 방류사업의 현황과 연어의 생물학적 특징

영동내수면연구소 성 기 백

연어(*Oncorhynchus keta*)는 연어과(*Salmonidae*) 연어속(*Oncorhynchus*)에 속하는 모천회귀성의 냉수성어류로 북태평양 및 북극해와 이 해양으로 유입되는 하천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북태평양에 서식하는 7종의 연어 중 우리 나라 동해안에는 연어와 시마연어 2종이 회귀하고 있다. 2종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연어(*O. keta*)에 대해 치어생산 방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북태평양 해역에 접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에서는 이들 연어를 중요한 수산자원으로 취급하여 오래 전부터 이 종에 대한 연구와 인공부화, 치어생산방류가 대대적으로 실시되어 오고 있다. 또 이들 4개 국가는 1993년부터 북태평양 소하성 어류위원회(North Pacific Anadromous Fish Commission)를 설립하여 북태평양에서 소하성 어류자원 보존을 위한 과학적 정보수집, 분석, 배포 및 자원증강을 위해 공동으로 연구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동해안의 연어소상량은 매년 증가되어 1999년에는 하천에서 22,245마리가 포획되었으며, 해면에서는 114,156마리가 어획되었다. 한편 방류량도 1990년 이후 1,000만마리 이상 최고 1,611만마리까지

증대시키고 있고, 방류하천도 12개에서 1997년부터 강원도 고성군 남강과 전남 섬진강으로 확대하여 18개 하천으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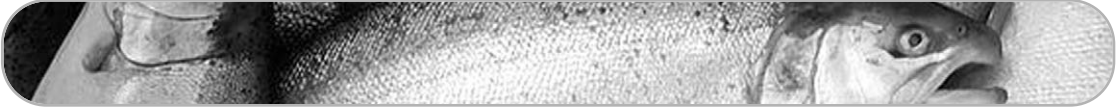
### 1. 연어의 생태

#### 가. 연어의 종류

- 연어는 청어목, 연어과, 연어속에 속하는 냉수성어류로 태평양에 7종(무지개송어 포함)이 서식하며, 대서양에는 2종이 서식.
- 우리나라 동해에는 연어와 시마연어 2종이 소상.

### ※ 태평양 연어의 종류와 주요 습성

한국명	학 명	영 명	일본명	주 요 습 성
연어	<i>Oncorhynchus keta</i>	Chum salmon	Sake (Sirosak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태평양에 분포, 아시아측에 많음</li> <li>· 체중 1.5~6.5kg(체장 40~85cm)</li> <li>· 포란량 1,500~3,500개</li> <li>· 치어기에 30~50일간 하천생활</li> <li>· 2~5년에 회귀한다</li> </ul>
시마연어	<i>Oncorhynchus masou</i>	Cherry salmon, Masu salmon	Sakura mas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에만 분포하며 캄차카에 많다.</li> <li>· 체중 1.5~3.5kg(체장 40~65cm)</li> <li>· 포란량 1,500~3,000개</li> <li>· 산란기는 9~10월</li> <li>· 치어기에 2년간 하천생활</li> <li>· 강해하지 않고 육봉생활을 하는 것은 산천어라 하며 주로 수컷이다.</li> </ul>
곱사연어	<i>Oncorhynchus gorbuscha</i>	pink salmon	Karafuto mas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태평양 전역에 분포</li> <li>· 체중 1.0~1.5kg(체장 40~50cm)</li> <li>· 포란량 1,000~1,500개</li> <li>· 치어기에 10~30일간 하천생활</li> <li>· 2년만에 회귀, 회귀율이 가장 높다</li> <li>· 산란기가 되면 수컷 등이 혹처럼 부풀어 오른다.</li> <li>· 연어과 중에서 가장 성장이 빠르다</li> </ul>



한국명	학 명	영 명	일본명	주 요 습 성
은 연 어	<i>Oncorhynchus kisutch</i>	Coho salmon	Ginsak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캄차카, 미국, 캐나다 연안에 분포</li> <li>· 체중 1.5~3kg</li> <li>· 체장 45~60cm</li> <li>· 포란량은 1,500~3,500개</li> <li>· 치어기에 1~2년간 하천생활</li> <li>· 3~4년만에 회귀</li> </ul>
왕 연 어	<i>Oncorhynchus tshawytscha</i>	King salmon, Chinook salmon	Masuno-sak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방산으로 태평양 연안, 캄차카에 분포</li> <li>· 체중 7~15kg</li> <li>· 체장 80~120cm</li> <li>· 포란량 4,000~12,000개</li> <li>· 치어기에 1년간 하천 생활</li> <li>· 5~7년만에 회귀</li> <li>· 연어속 중 가장 대형</li> </ul>
홍 연 어	<i>Oncorhynchus nerka</i>	Red salmon, Sockeye salmon	Venisak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미대륙에 분포</li> <li>· 체중 1.5~2.5kg</li> <li>· 체장 50~60cm</li> <li>· 포란량은 2,000~3,500개</li> <li>· 치어기에 1~3년간 하천생활</li> <li>· 4~6년만에 회귀</li> <li>· 육봉형도 있다</li> <li>· 연어 중 맛이 가장 좋다</li> </ul>

나. 연어의 회유

- 연어(Chum salmon) 계군의 지리적 분포
  - 아시아군 : 아시아 전역, 서부 베링해
  - 알래스카군(북미군) : 미국, 캐나다 서부연안부터 동부베링해
  - British Columbia, Washington, Oregon, 미국서부연안



● 회유로 추정

- 우리나라에 회유하는 연어는 아시아 계군으로 산란회유
- 방류된 치어는 북해도 수역을 거쳐 베링해와 북태평양에서 성장 회유, 2~5년후 동해안으로 산란회유(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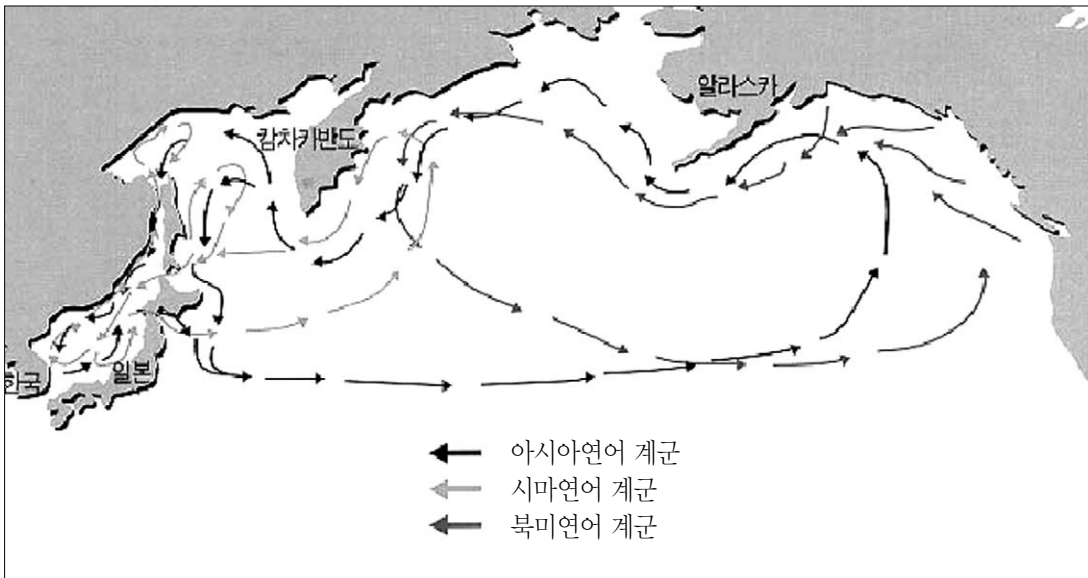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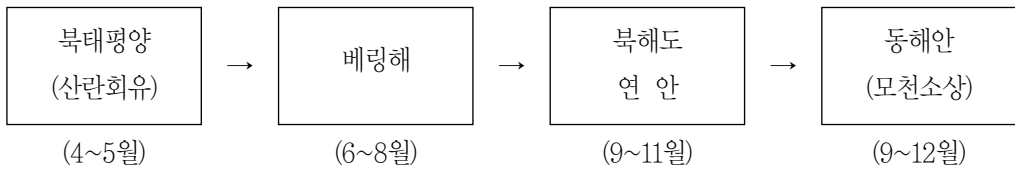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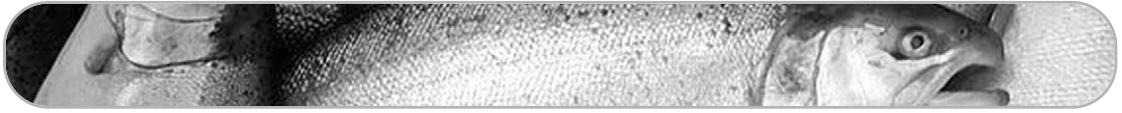


그림. 1 연어의 회유 경로

● 회유여건

- 우리나라는 연어의 주성육장(북태평양 등)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회유로에 일본열도(북해도 등)가 있어 회귀여건 불리.
- 수온분포에 따라 대부분 북위 37° 21' ~ 38° 33' 하천에 소상(소상폭 협소).
- 소상 가능 하천은 폭과 길이가 짧고 수량이 부족하며, 하구폐쇄에 의한 환경오염 등 소상여건 불리.



다. 모천회귀설

연어의 가장 큰 특성은 자신이 태어난 하천으로 산란하기 위하여 되돌아오는 것과 한번 산란 후에는 죽는다는 것이다. 길고 긴 바다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자신이 태어난 하천을 회귀하는 능력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연어의 회귀능력이 환경자극에 대한 유전적인 반응이라는 것

어떤 회로가 염색체에 내포되어 있다는 설이다. 이러한 설은 연어가 하천으로 돌아오는 날짜를 정확하게 예견할 수 있다는데 기인한다.

같은 계통의 연어는 앞 세대가 회귀하여 온 비슷한 시기에 모천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 태양의 위치나 천체의 특징을 이용한다는 설

과학적 증명은 되어 있지 않으나 아시아계나 북미계통의 연어는 북태평양의 여러 지점에 방류하여도 몇천 마일이나 떨어진 모천으로 돌아오는 탐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 후천적으로 모천을 찾아올 수 있는 후각이 발달되어 있다는 설

연어가 태어난 하천 가까이에 돌아오면 헤엄치는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후각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각 하천은 각각의 독특한 화학성분을 가지고 있어 그 냄새를 기억하고 있는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우수한 종족이 번식을 위하여 종족 특유의 조건에 알맞는 산란장소를 찾아야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2. 연어 치어 생산 방류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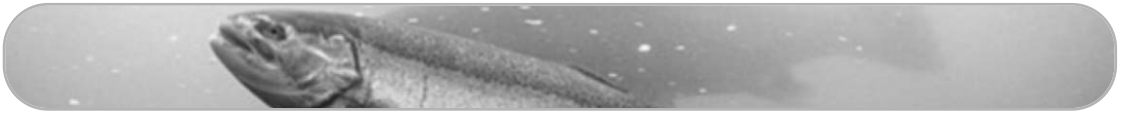
가. 어미포획

본 연구에 사용한 인공채란용 어미는 매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강원도 양양 남대천 하구로부터 1.5 km 떨어진 포획장에서 산란 차 소상하는 연어를 하천을 이증으로 차단한 망으로 포획한 것이다(그림. 2).

나. 채란 및 수정

포획된 어미는 암·수로 나누어 성숙된 어미는 채란 직전에 나무 몽둥이로 눈과 코 사이를 한번에 때려 즉사시킨 후 채란, 채정을 하였으며, 미성숙어는 축양장에서 3~5일간 축양 후 채란, 채정하였다. 채란은 북부절개법, 수정은 건도법(乾導法)에 의해 행하였는데, 채란 방법은 한사람이 머리부분을 잡고, 다른 한 사람은 꼬리자루 부분을 잡고 개복칼(채란칼)을 향문부에 얹게 넣어 난립(卵粒)이나 내장기관에 손상을 주





지 않도록 주의하여 한번에 가슴지느러미 부근까지 절개하였다.

알을 끄집어 낼 때는 오른손을 가슴지느러미 부분에서부터 복부에 집어넣어 체내 사란(死卵)의 유무를 손 촉감으로 확인한 후 난소를 가볍게 손가락으로 알을 천천히 훑어 내렸으며, 복강 내에 남아있는 알이 없도록 2~3회 반복하였다. 손 촉감에서 딱딱한 느낌이 오는 체내 사란은 제거하고 미숙란은 무리하게 훑어내지 않았다.

채란 용기로는 원형플라스틱(10L용)용기를 사용하였으며, 먼저 암컷 3~4마리로부터 알을 받은 다음 여기에 1~2마리의 수컷 정액을 짜 넣고 손으로 가볍게 저어 알과 정자가 잘 섞이게 하였다.

수정된 알은 세란조(洗卵槽)에 넣기 전에 소량의 물을 첨가하여 손으로 저어 줘 정자의 수정 기회를 한번 더 주었으며, 부화율을 높이기 위해 깨끗한 하천수로 세란하여 여분의 정액과 채란 부산물(혈액, 체액, 난막 등)을 제거하였다.

#### 다. 부화 및 부화자어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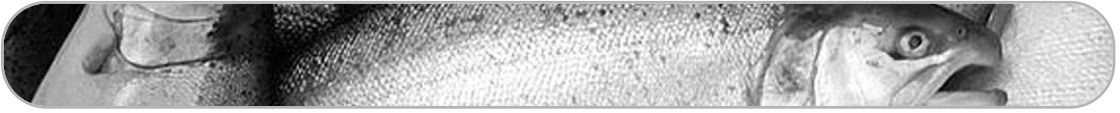
수정난을 세란조 겸 흡수조(55×80×63cm)에서 1시간정도 흐르는 물 속에 담가두면 알은 물을 흡수하여 팽창하면서 난막이 딱딱하게 되는데, 이때가 알을 수송하기에 좋은 때이다.

알은 수송하기 전에 물을 제거한 후, 나무로 만든 수송박스(80×30×20cm)에 넣고 수송으로 인한 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해 10% 정도 압력을 가한 다음 banding을 하여 연구소 실내 부화실로 수송하였다. 수송된 알은 부화기에 넣기 전에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과 소독으로 요오드(유효 요오드농도 1%일 때 25 ppm)에서 15분간 약욕한 뒤 수용하였다.

부화기는 증수형 아트킨스식 부화기(295×35×30cm)와 원통형 부화기(66×φ30cm), Box식 부화기(55×80×63cm)를 사용하였는데, 증수형 아트킨스식 부화기에는 평균 30만개의 수정란을 넣었고, 원통형 부화기에는 평균 9만개의 수정란을 넣었으며, Box식 부화기는 40~50만개의 알을 넣어 부화시켰다.

부화용수(지하수)는 고압여과기와 자외선 유수살균기를 이용하여 여과 살균했으며, 주수량은 1분에 약 20~30L가 되도록 조절하였고, 사란에 부착하는 수생균의 번식을 억제하기 위하여 3일 간격으로 malachite green 용액(3 ppm)을 사용하여 1시간 유수식으로 약욕시켰다.

연어의 수정난은 발안 전에 빛이나 충격을 가하면 죽기 때문에 적산수는 300℃에서 알을 도태한 후 420℃에서 자동검란기로 1차 검란하고, 2차로 검란 핀셋(가는 철사로 직경 3~5mm의 둥근 고리를 만들어 대나무 끝에 부착한 것)으로 사란을 제거하였으며, 발안 전에는 malachite green 약욕만으로 대처하였다. 부화기에서 실내 양어지로의 이동은 부화 3~5일전에 실시하였으며, 양어지로 이동하기 전 요오드에 15분간 약욕 후 수용하였다. 검란한 알은 양어지에 6각형의 벌집모양(honeycomb)과 브라인드를 깔고 그 위에 부화분을 놓고 발안난을 1~2겹으로 고르게 퍼서 부화된 자어가 부화분의 망 사이로 빠져나가거나



유영하여 6각형의 벌집모양 속에 잠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용밀도는  $m^2$ 당 15,000마리를 기준으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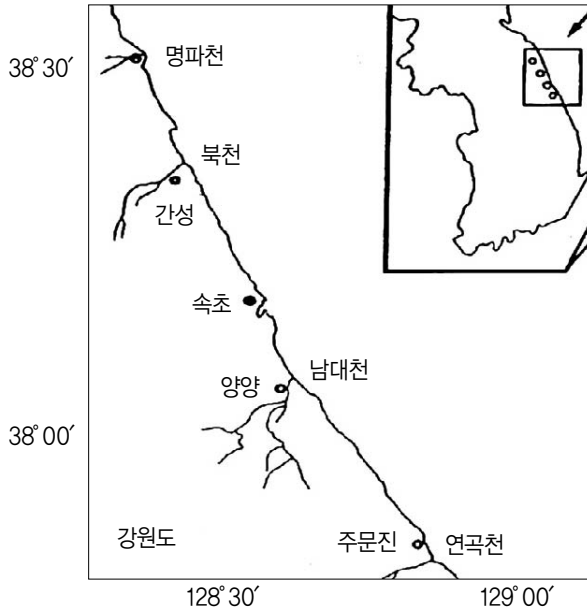


그림 2. 연어 어미 포획 및 치어 방류하천

부화가 완료되면(적산수는 480~520℃) 부화분을 제거하였으며, 주수 방법은 주수구 판자에 구멍을 뚫어 주수량을 측정하여 유량을 조절하였는데, 주수량은 1분당 50~100L, 유속을 1~2cm/sec로 조절하고 양어지 내의 물 흐름을 일정하게 하여 부화자어가 한 곳에 모여 폐사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 라. 치어 사육 및 방류

##### ● 단계별 치어사육 관리

부화된 자어는 적산수는 820~900℃에서 난황흡수가 거의 끝나 80%이상의 자어가 먹이를 찾아 유영할 때 벌집모양과 브라인드를 제거한 후 야외로 자연이동 되도록 유도하였다. 이때 부터 무지개송어용 배합 사료를 공급하여 먹이를 순차 시켰으며, 방류 시까지 사용한 사료의 크기는 분말부터 2호까지로 치어의 체중에 따라 구분하여 공급하였다. 즉, 난황 흡수 시 평균 체중 0.3g 일 때 분말(0.5mm이하)로 순차하고(순차시기 약 10일 전후), 0.5g일 때까지는 1~2호(사료 직경 1호 ; 0.5~1.0mm, 2호 ; 1.0~1.7mm), 1.0g이하의 방류 시까지는 2호(직경 1.0~1.7mm)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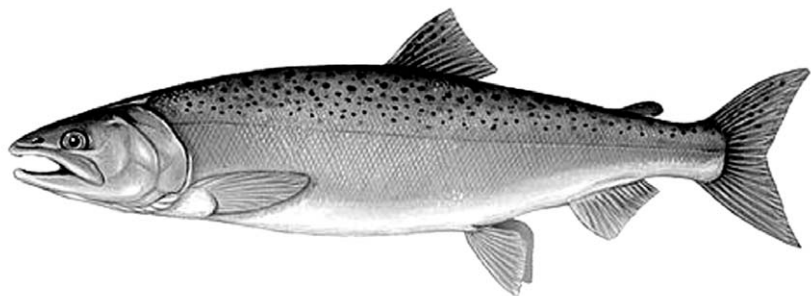


사료의 공급회수는 순치기에는 1일 7회 전후, 1월 초순부터 방류 시까지는 1일 5회로 하였다. 사료의 1일 공급량은 치어 평균체중의 3~5%를 기준으로 사료를 먹는 상태에 따라 다소 가감 하였으며, 어병예방과 성장촉진을 위해 종합 비타민제(사료량의 2~3%)와 항생제를 물에 녹여 혼합하여 공급하였으며, 주 1~2회 포르말린으로 약욕을 하였다.

한편, 치어의 성장변화 조사를 위하여 매 조사시마다 20마리를 임의 추출하여 MS 222(0.1g/물 1L)에 마취시킨 후, 전장과 가랑이 체장은 0.1cm 단위까지, 체중은 전자저울로 0.01 g 단위 까지 측정하였다.

● 치어 수송 및 방류

남대천에 방류할 치어는 우리 연구소와 하천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어도를 통하여 하천으로 자연 방류하였고, 그 외의 하천에는 활어수송차를 이용하여 방류 하천까지 치어를 수송하여 방류하였는데 수용밀도는 10~15%(물 1톤당 100~150kg)를 기준으로 했다. 치어 수송 시에 산소 부족으로 폐사한 개체는 없었으며, 치어의 활력도 좋았다. 치어의 방류는 2월에서 4월에 걸쳐 성장 단계별로 나누어 방류하였다.





## I. 導入

### A. 地理的

양양(襄陽)은 동북아 극동 한반도 동해안 중북부 태백 준령 영동의 중심부에 위치한 해안, 산간지대로 동으로는 동해에, 서로는 인제군과 홍천군, 남으로는 강릉시, 북으로는 속초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경·위도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지 명	극 점
극 동	현남면 지경리	동경 128° 55' 47"
극 서	서면 오색리	동경 128° 22' 26"
극 남	현북면 범수치리	북위 37° 51' 34"
극 북	강현면 강선리	북위 38° 10' 41"

면적은 강원도 대비 3.7%인 628.6km<sup>2</sup>이며 임야 535,20km<sup>2</sup>(85%) 농경지 58.6km<sup>2</sup>(9%) 기타 34.8km<sup>2</sup>(9%)로 경지율이 극히 낮고 취락 형성은 주로 산줄기의 공을 타고 이어지고 있으며 높고 낮은 산에 둘러싸인 천혜의 관광자원의 보고인 산, 바다, 계곡을 고루 갖추고 연간 200여만 명의 국내외 관광, 피서객의 왕래가 있으며 1읍, 5면, 124리 436반의 행정구역 편성 아래 인구 28,500여명을 포용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볼때 매우 열세한 군세라 할 수 있는 악조건의 환경이고 지형지세는 40여km의 해안선 태백준령에 솟은 대청봉(1,708m)아래 오색령, 구룡령의 관통으로 동서의 교통이 원활하며 또 양양의 젓줄이라 할 수 있는 남대천은 오대산 구룡령, 오색령 설악산에서 그 물줄기가 발원하여 동해로 유입되는 장장 60km로서 실로 영동제일의 하천이라 할 수 있겠다. 그 남대천에 연어가 희귀하며 은어 등 많은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하기도 한다. 기후는 연평균 12°C 강수량은 1,300mm이고 이곳 특유의 계절풍으로 일명 '양강지풍(襄江之風)'이란 말도 나오는 바람도 많은 고장이기도 하다. 지명의 시작은 상고시대부터 있었으나 고려 고종 8년(1212)양주로 하다가 조선조 태종 16년(1416)에 비로소 양양(襄陽)으로 되었는데 일설에 의하면 중국 호북성(中國湖北省) 한수연안(漢水沿岸)에 위치한 그곳 양양과 아름다운 자연과 지리적 환경이 흡사하다 하여 부르게 되었다는 한서지리지 완벽국사 대사전 기구회첩의 기록을 찾아 볼 수 있겠다.

이제, 서울대 박물관에 의해 1981년 손양면(巽陽面) 오산리(鰲山里) 쌍호변(雙湖邊) 선사유적의 발굴로 세계적으로 고고학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유구한 선사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주로 지명의 변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 기술하겠다.

## B. 歷史的

지명의 시작은 상고시대부터 있었으나 고려 고종 8년(1212) 양주로 하다가 조선조 태종 16년(1416)에 비로소 양양(襄陽)으로 되었는데 일설에 의하면 중국호북성(中國湖北省) 한수연안(漢水沿岸)에 위치한 그곳 양양과 아름다운 자연과 지리적 환경이 흡사하다하여 부르게 되었다는 한서지리지 완벽국사 대사전 기구회첩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겠다.

이제, 서울대 박물관 팀에 의해 1981년 손양면(巽陽面), 오산리(鰲山里), 쌍호변(雙湖邊) 선사유적의 발굴로 세계적으로 고고학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유구한 선사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주로 지명의 변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 기술하겠다.<sup>1)</sup>



1) 양양군 통계연보 양양인쇄사 2007. p37



● 선사시대

- 1) 구석기 유적(20만~50만년전), 신석기 유적(BC6000~7000), 초기 철기시대의 주거지(BC2000~2500)가 손양면 쌍호(雙湖)변을 중심으로 도화리, 오산리, 가평리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 2) 고인돌 유적지(BC500~600)가 서면 범부리에서 발굴됨으로써 실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겠고
- 3) 상고시대에는 동예, 한무리에 이르러서는 낙랑군 탄렬현(樂浪郡 呑列懸)으로 소제(昭帝)때에는 동부도위로 그리고 고구려에 이르러는 익현현(翼峴縣) 또는 이문현(伊文懸)으로 불려 왔었다.

● 신라시대

신라통일이후 문무왕 8년(668) 익령현(翼嶺懸)으로 그후 수성군영현(守城郡嶺縣)이 되었다.

● 고려시대

성종 14년(995) 10도를 정할 때 삭방도(朔方道)에 속했으며 거란병의 침공을 방어한 공으로 고종8년(1221) 양주방어사로 승격되었다가 고종 44년(1257) 몽고병에게 강참한 사건으로 덕령감무(德寧監務)로 강등되기도 했다.

● 조선시대

태조4년(1395) 강릉교주도가 강원도로 개칭되는 가운데 그 후 태종16(1416)에 이르러 비로소 양양도 호부(일명 峴山)으로 되었고, 광해군 10년(1618) 무오사화로 현(縣)으로 삭강되었다가 인조 원년(1623)에 부(府)로 회복되었으나 재차 역난으로 인조 6년(1628) 현(縣)으로 삭강되는 비운을 맞기도 했었다. 그러나 한때 원주의 한 여인의 강상죄(綱常罪)<sup>2)</sup>로 강원도의 '원(原)'을 없애고 양양(襄陽)의 첫 자를 따서 강양도(江襄道)로 부르기도 했었다.

2) 강상죄는 삼강오륜에 어긋난 행위에 대한 형벌을 말한다.

● 근·현대

고종 32년(1895) 지방제도의 개정으로 양양군(襄陽郡)이 되었고, 반면 간성군은 폐지되어 죽왕면, 토성면이 본군에 편입(1919)되었다. 8.15해방과 더불어 38선 획정으로 남북이 분단되는 시점에 현남면의 전부가 서면, 현북면의 일부가 38이남 임에 강릉 군에 속하게 되었다(1945)

그후 6.25전쟁(1950)으로 38선이 무너지고 수복이 되어 1951. 4 군자치위원회 구성으로 그해 7월 4일부터 군정(軍政)이 실시되었다가 수복지구임시조치법의 설정에 따라 1954.11.17 현남면은 명주군에 현북면 서면 일부가 환원되어 1읍 7면으로 되었다.

5.16군사혁명 이후 1961.1.1 행정구역개편으로 속초읍이 시로 승격 분리됨은 물론 죽왕면, 토성면은 고성군에 편입되는 반면 현남이 다시 환원되어 6면이 되었다. 그후에도 수차례의 법개정에 따라 지역의 일부가 타시군으로 편입되고 군내 일부지역도 조정되어 1읍 5면으로 1989.1.1자로 되었다.

C. 精神的

가. 선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고장

BC6000년전 선사문화유적지로 밝혀져 세계의 고고학계에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우리고장은 고구려의 동쪽변경에 익현현(翼峴縣) 또는 이문현(伊文懸)으로 편제되었고 5세기 중반이후 통일신라의 변방일대는 익령현(翼嶺懸)으로 동산현(洞山懸)과 함께 수성군(守城郡)의 속현(屬縣)된 때도 있었으며 고려에 들어와서는 양주(襄州)에서 덕령감무(德寧監務)에서 다시 양주(襄州)로 복호(復號)되기도하였고 조선 태종 16년(1416)에 이르러 양양(襄陽)으로 개명하였고 고종 22년(1895) 양양군(襄陽郡)으로 개칭되었다.

8.15해방 이후 38선 획정으로 우리 고장은 일부 면을 제외하고는 38이북지역임에 공산치하(共產治下)로 5년간 되었다가 6.25전쟁으로 수복되어 군정(軍政)(1951)에서 행정권이 이양(1954)되었고, 1989년에 1읍 5면으로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sup>3)</sup>

나. 국난 및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해 낸 고장

1) 국난극복

고려 고종 8년(1212) 몽고병이 양주부(襄州府)까지 침공하였을 때 항몽방어 태세가 사전에 충분히 구축되



3) 양양군. 「양주지」 강원일보 출판국. 1990. P61



었기 자랑스럽게 격퇴시킴으로 양주방어사(襄州防禦使)로 승격되었고 고종44년(1257) 몽고병의 재침이 있을 때 강참(降參)한 사건으로 덕령감무(德寧監務)로 강등되는 비통한 사실도 있었으나 원종 원년(1260) 지양주사(知襄州事)로 다시 승격되기도 하였고, 이런 역사의 영욕 속에 그래도 자랑스런 사실이 있게 된 것은 양주성의 축성, 인구민보, 봉수대와 같은 방어시설을 사전에 관민의 합심으로 이루었기 때문이다.

조선조 성종21년(1490) 오늘날의 해군기지인 수군만호영(水軍萬戶營)이 양양읍 조산리로 강릉안인에서 이전, 「대포영」으로 설치하였으나, 인조4년(1545) 헐파되기까지 수군기지로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동해묘(東海廟)에 춘추(春秋)로 조정에서 내려 보낸 향축으로 국가적 제례행사를 거행하였던 것이다.

## 2) 수재복구

다음 몇 차례의 재난이 있었으나 그 중 특히 철종11년(1861) 윤3월에 가옥 5백여 호 이재민 3천여명을 낳게 한 설악산 동쪽 동해안 일대에 불의의 대형 산불로 인한 화재와 병자년(1936)의 수해(水害)로 584명의 사망자를 내기도 한 대홍수도 있었고, 최근 년에 전답이 연 36시간의 940mm의 폭우에 가옥 135호, 선박유실 102척 등 큰 손실을 가져 왔을 때 제8군단(軍團)의 지원으로 군, 관, 민의 혼연 일체 속에 복구가 빨라 그 이듬해 대부분 완료하였다.

## 다. 국권회복을 위한 항일정신이 강한 고장

우리 고장 3.1만세운동은 서울탑골공원에서 시발된 지 한달 뒤인 4월 4일 양양 장날을 기하여 4월 9일까지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거군적 시위로 전개되었으며 당시 중심인물로는 이석범, 조화벽(당시 호수돈 여학교 학생)으로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입수, 이곳까지 가져와 제작보급에 앞장섰었고, 당시 시위로 순국한 사람은 12명 복역은 73명, 태형은 1,230명이었고 보복이 두려워 숨어서 요양 및 치료자를 포함한다면 더 많은 희생의 통계표가 작성될 것이다.

## 라. 自由守護(反共)와 統一意志가 왕성한 고장

감격의 8.15해방과 더불어 획정된 마의 38선으로 공산치하가 5년간 실시되는 동안 민일당 사건(民一堂事件), 반공의거사건, 학생의거사건, 중학생 집단일남사건, 김일성초상화 소각사건, 호림부대, 서북청년회 활



동의 반공투쟁사(反共鬪爭史)를 볼 수 있었다.

#### 마. 郷土社會 구석구석 활기찬 터전으로 변모시킨 재건과 우수 새마을 고장

##### 1) 수복지구

국군 및 UN군의 38선 돌파이후 1950.10.2 군민 스스로 먼저 군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10.10에는 군내학교가 일제히 개교하였다. 뜻하지 않게 중공군의 개입으로 국경선까지 진격한 우리 군민은 작전상 이유로 12월말 철수하게 되어 우리군민들도 피난하였다가 1951. 4 국군과 UN군의 반격으로 귀향한 이후 자치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행정을 펴다가 그해 7.4 군정행정법령(軍政行政法令)에 따라 3년 4개월 군정을 실시하다가 행정권 이양이 1954.11.17 있어서 대한민국품에 안기게 된다.

##### 2) 새마을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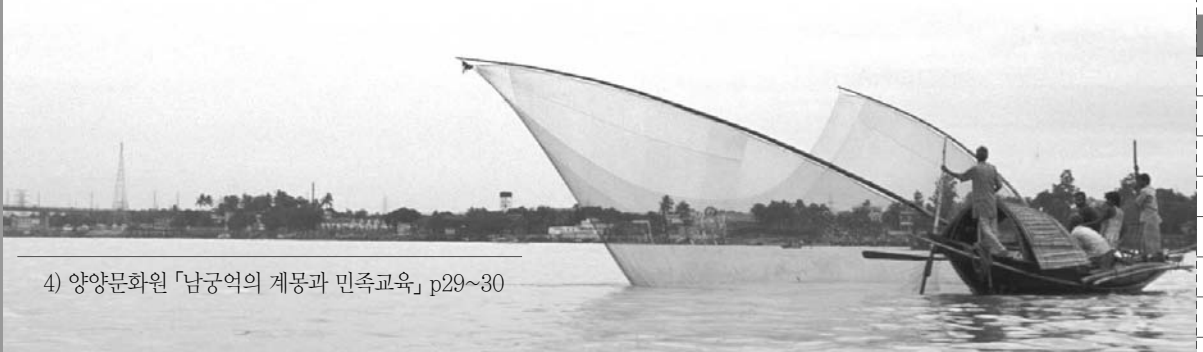
요원의 불길처럼 번진 새마을운동으로 우리 군은 우수 새마을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우수 사례를 갖게 되었고 한때 삼다군(三多郡)으로 즉 소 자랑, 송이 자랑, 자철 자랑(지금은 폐광)으로 평판 받던 긍지 높은 고장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 바. 峴山學校 設立으로 근대교육에 일찍 눈뜬 고장

고종44년(1906.9.8)(음 7.20) 총 4만향의 기쁨으로 현산학교를 설립하고 200여명 학생 수용에 수업료는 면제, 학용품은 무상지급 되었고, 교과목은 8개 교과목 중 음악, 영어, 체조 교과목은 선진적이라 하게 되며 여기 설립자 남궁역의 교육사상인 자주독립, 근로정신, 남녀평등으로 한 이념의 교육 속에 그 후 많은 인재를 배출하는 요람이 되기도 한다.<sup>4)</sup>

#### 사. 축제와 지방문화 행사가 해마다 열리는 전통문화예술의 고장

문화관광부지정 축제인 양양송이축제, 회귀어종인 연어를 테마로 한 양양연어 축제 그리고 전통문화 예술 종합축제인 현산문화제 등은 지역의 홍보와 주민의 화합을 공고히 하게 하는 매체가 되었고, 그 외로 전국 대상으로 해맞이축제, 그리고 군민의 화합을 전제로 달맞이 행사(음력 대보름)도 매년 개최된다.



4) 양양문화원 「남궁역의 계몽과 민족교육」 p29~30



아. 상징물로서 나무는 소나무, 꽃은 해당화, 새는 백로, 고기는 연어로서 그 생물의 특징과 고장과의 충분한 관계성을 고려하여 지정하게 되었다.

#### D. 定義

우리 양양은 백두대간을 배경하여 동쪽으로 급경사를 이룬 지방으로서 굳이 마을형성을 구분한다면 전체 면적의 약 84%를 차지하는 임야가 있는 곁에 마을, 산촌과 약간의 버텨를 끼고 있는 야촌 그리고 해안선 굴곡 따라 자리한 바닷가 마을 해촌으로 구분해 본다. 여기에서 굳이 ‘어촌’이 아닌 ‘해촌’으로 밝히고 싶은 건 수산업에 그래도 종사하는 사람들이 영서 같은 내륙지방에서 호수나 강가에서 민물고기만 잡아서 생업을 영위하는 사람과 달리 오직 바다만 바라보면서 생업을 이어온 순수 바닷가 어업인으로 표현하고자 밝히는 것이다.

#### E. 制限点

본 조사연구의 제한점으로서는 우리지방에 있는 현재의 포구 중심으로 역사성, 시대성, 문화성 그리고 생업의 수단과 방법에 초점을 맞춰 수립·정리해 보고자하겠다.

## II. 展開

### A. 海村形成

#### 1. 始原

인류역사는 지구 창성 이래 수집, 채집생활을 거치면서 일정한 장소를 택하여 정착을 피하면서 이른바 定住生活이 열리게 된다. 이때부터 강가 평평한 들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농경 문화권을 형성하고 동시에 주변의 강, 호수, 바다로 시야를 넓히고 돌리면서 소위 어로생활도 병행하게 되면서 생존의 수월성을 추구하게 된다. 특히 우리 고장에서는 오산리 선사 유적지가 발굴됨으로 해서 원양양인(原襄陽人)이 이미 BC6000년경부터 살아왔음이 증명되고 있겠다.<sup>5)</sup>

그리고 영북권은 단조로운 해안선에다 인구밀집도가 극히 미약해서 항만발달 또한 열악한 탓에 여건상 오늘에 이르기까지 해촌생활 환경이 그리 여유 있고 쾌적하다 보기엔 어렵겠다. 석호가 오산리 선사유적지 부근에 ‘쌍호’가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형태만 있을 뿐 그 기능은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만 현남면 ‘매호’는 아직도 충분한 호수로서의 그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 이 같은 현재의 해안선이나 석호는 후빙기 해면 변화로(약 7,000년 전으로 추산)형성되면서부터 그 영향을 받아 상승하였기에 이른바 용기울이 매우 컸다는 사실도 알 수 있겠다.<sup>6)</sup>

## 2. 背景

위에서 약간 언급한 것처럼 우리고장의 해안선은 태백산맥의 동쪽으로 급하게 기운 관계로 들고 나옴이 그리 심하지도 않음은 물론 그 구조가 심히 단조롭고 그 길이 약 39.5km밖에 안되고 부속도서로서는 3개가 있었으나 무인도이며 어떤 섬으로서 기능자체도 기대하기 힘든 편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그래도 섬다운 섬은 현북면 기사문리 앞바다 즉 38선 휴게소에서 바라보이는 일명 새 섬이라 하는 조도와 현남면 인구리 앞바다의 압초(3개의 압초군 형성), 그리고 현남면 남애리 압초(바위)를 꼽을 수 있는 실정이었다. 기상 관계는 인근 지방의 것을 참조해 보면 연간평균 기온 13.1°C, 강수량 1442.7mm 풍속은 2.3m/sec, 증발량은 1216.1mm라 하겠다.<sup>7)</sup>

또 바다 밑 환경은 서해에 비해 펍 깊은 바다이라 무려 3,000m 되는 곳도 있겠다.

그 까닭은 한반도 동해안에서 급격하게 폭 깊어지며 해안으로부터 7km바다 밑은 약 1,000m정도가 되고 다시 말해서 지질학적으로 살펴본다면 현재 태백준령의 높은 곳은 1,500m 솟아났다면 바다 바닥은 3,000m까지 가라앉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해는 평균 수심이 약 1,700m이고 이로 인하여 대륙붕 발달이 미약한 반면에 동해 중앙부에는 얇은 해저언덕인「대화퇴(뱅크)」가 발달하여 좋은 어장의 조건을 가졌다 할 수 있겠다.<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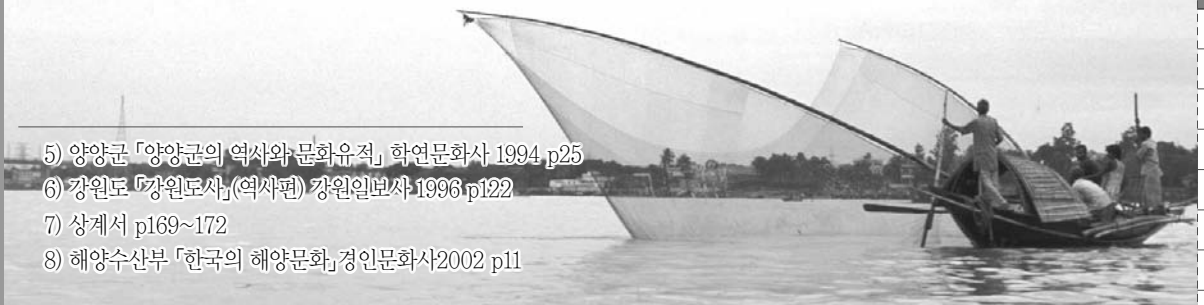
그 밖의 일반적 상황을 밝히면 대략 다음과 같겠다.

5) 양양군 「양양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학연문화사 1994 p25

6) 강원도 「강원도사」(역사편) 강원일보사 1996 p122

7) 상계서 p169~172

8) 해양수산부 「한국의 해양문화」 경인문화사 2002 p11





또 우리고장의 해촌 실태를 살펴보면

- 1) 국가어항 : 남애, 수산
- 2) 지방어항 : 동산, 물치
- 3) 어촌정주어항 : 전진, 후진, 기사문, 오산동호, 광정, 하광정, 인구

그리고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532호이고 인구는 1,502명, 어촌계는 13, 어촌계원은 405명이고 조합원은 553명이 되겠다.

어선세력을 살펴보면 총 어선 348척에 총 1,121톤에 평균 3.2톤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중에 동력어선은 340척(1,117톤)이 되겠다. 그 밖에 어업기반시설로는 위판장시설 8동 급유시설 1개소, 어업인 복지회관 3동(인구, 기사문, 물치항)이고 활어회센터 2개소와 어업 정보센터는 현재 남애에만 설치되어 있겠다.<sup>9)</sup>

또 어업권을 살펴보니 정치어업은 24건에 477ha, 양식어업이 13건에 104ha이며 수산가공품은 942톤인데 주로 냉동품이 되겠다.

이어서 어획량을 소개하면 어류가 1,029톤, 갑각류가 33톤, 연체동물 278톤, 기타 134톤이나 강원도나 전국적 수준으로 보기에는 매우 약한 편에 속한다 하겠다.

수산물을 살펴보면 강원도 해안선 고성군 북쪽 끝에서 삼척시 남쪽 끝자락까지의 길이는 약 236.3km이며 옛날에 서식하던 생물을 신증 동국여지승람을 참조하니 다음과 같겠다. 즉

- 어류 - 대구, 송어, 연어, 도루묵, 황어, 방어, 고등어, 광어, 농어, 쌍조어
- 갑각류 - 전복
- 패류 - 홍합(이곳에서는 ‘셍’이라 부르기도 함)
- 연체동물 - 문어
- 수산동물 - 해삼
- 해조류 - 김, 미역을 들 수 있겠다.

오늘날 수산물로서는

9) 양양군 「양양군 통계연보」 양양인쇄사 2007 p122~129

- 어류 - 가자미, 콩치, 학꽂치, 넙치, 도루묵, 대구, 감성돔, 멸치류, 명태, 방어, 복어, 송어류, 까나리, 연어, 임연수, 쥐치류, 청어, 새우
- 갑각류 - 전복, 굴뱅이
- 패류 - 홍합, 일반조개
- 연체동물 - 문어, 오징어
- 해조류 - 미역, 김 등을 들 수 있겠다.
- 수산동물 - 해삼

3. 해촌분포

해촌 영역	지정	소재	면적(ha)	어가	어민어가	선박	비고
물치	지방	강현 물치	202	39	118	34	
전진2	정주	강현 전진2	152	24	96	22	
낙산	정주	강현 전진1	43	42	154	38	
오산	정주	손양 오산	94	18	61	16	
수산	국가	손양 수산	57	29	89	36	
동호	정주	손양 동호	206	16	44	4	
하광정	정주	현북 하광정	73	17	47	6	
기사문	정주	현북 기사문	87	64	184	51	
동산	지방	현남 동산	168	57	158	23	
인구	정주	현남 인구	79	41	134	30	
광진	정주	현남 광진	178	14	38	9	
남애2	국가	현남 남애2	37	98	251	79	남애1, 2는 같은 개념으로 묶었음
남애1	국가	현남 남애1	111	33	88	13	

※ 해안가 인접된 가평, 조산 제외





## B. 生活環境

### 1. 漁撈活動

보편적으로 어로작업을 위해 바닷가 뱃머리에 일단 나와 서서 그 날의 기상을 소위 경험에 의한「觀天望氣法」으로 출어하게 된다. 오랜 경험을 가진 나이 많은 어민(가급적 어부란 말을 안 쓰려는 뜻에서)이 한참동안 사방을 두루 보게되면 산 밑의 구름의 형태라든지 하늘과 수평선 부근의 현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나서 출어를 결정하게 된다. 정말로 심사숙고한 상태의 결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하겠다. 이때 관찰하는 한 예를 들어 본다면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바람이 불어 온지를 보고, 몇 시간 뒤면 구름의 위치와 방향을 예상하고서는 물고기의 이동 상태를 파악하기도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의 동식물의 현 상태를 보고 예측도 해 본다는 것이다. 더욱이 동해안은 단조로운 관계로 비교적 바람과 파도도 사나울 수도 있기 때문이겠다. 바다에 나가서도 항상 수평선 멀리 멀리 보이는 산마루나 산 밑을 보고서 이상 유무를 재차 확인하면서 순간적 판단을 게을리 하지 않고 항상 긴장된 준비상태로 작업에 임하게 하여 순조롭게 일과를 마치고 귀향하기 만은근히 비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하겠다. 그래서 어떤 신앙심의 발로가 일게 되는지도 모르겠다. 해촌의 신앙에 대하여서는 뒤에 기술하기로 하겠다.

근·현대에 들면서부터 어업기술의 개발과 어장의 새로운 개척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1921. 6. 14 조선총독부 강원도령 제 5호에 의거 강원도 수산시험장 규정의 공포를 보게 된다.

이 같은 수산 시험장은 바로 어업기술 향상과 어장개척의 구심적인 역할 기능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 1922~1929에 시험선을 매년 파견하여 자망, 유자망, 저인망 및 중층토롤을 이용한 고기잡이 시험에서 후일 명태어업의 주어구로 등장하게 된다.<sup>10)</sup>

그러나 기선 저인망이 동원되면서부터 강원도 자망업자는 치명적 타격도 받게 되었다. 아무튼 이와 같은 변화무쌍 속에 실로 연안의 수산업은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잠깐 옛날의 어족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 조선시대 세종실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어류 대략 다음과 같았다.

10) 상계서 p24

표) 1. 실록에 나온 수산물

자료 \ 종류	어류	패류	해조류	기타 수산동물	가공품 및 기타
세종실록지리지	45	12	19	13	24
신증동국여지승람	50	15	13	14	4

※ 세종실록에 실린 수산물

어류 - 대구, 수어, 사어, 연어

패류 - 홍합

해조류 - 곶, 상곶, 곤포, 해조

기타(수산동물) - 문어

가공품, 기타 - 전

## 2. 漁具活用

강가나 바닷가 그리고 호수부근에 주거를 형성하면서부터 수산자원 확보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하게 되니 생활 속에서 자연히 생산기술 개발이 일기 시작되겠는데 그의 고기잡이 법을 소개하면 대략 다음과 같겠다.

- 1) 刺突漁法 - 자들구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된다. 작살, 창, 찢개살로 고기를 보고 재빨리 찢러 잡는다.
- 2) 弓矢漁法 - 고기를 향하여 화살로 쏘아 잡는다.
- 3) 釣어법 - 각종 낚시의 개발
- 4) 網어법 - 그물로 한꺼번에 많은 어획을 꾀한다.
- 5) 결합식 작살 - 짐승의 뼈, 뿔, 멧돼지의 어금니로 한쪽에 비늘을 세워서 고기를 잡는데 한번 물리면 쉽게 달아날 수 없게 한 방법
- 6) 曲釣針 - 갈고리형, 교차 결합식  
낚시에는 낚시 비늘과 낚시 추를 달아서 같은 곳에 있는 물고기까지 잡을 수 있게 함
- 7) 直釣針 - 흘리개, 찌르개형, 면 결합식 곡추  
어로작업을 위해 일단 뱃머리에 나와 서서 그 날의 기상을 소위 경험에 의한 「觀天望氣法」으로 출어하게 된다. 즉 어느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몇 시간 후면 비를 몰고 올 것이고, 바다에 나가 바람과 구름의 위치와 방향을 보고 물고기 이동 상태를 파악하기도 했었다. 뿐만 아니라 지상의 동식물의 현재의 상태도 보고 예측하기도 했다.

동해안은 비교적 바람과 파도가 사납다 할 수 있기 때문일게다.

조선후기에 들면서부터 특히 청어와 명태가 많이 잡히게 되는데 이때 도구로서는 주로 자망과 거망(정치망의 일종)을 썼고 또 연승과 같은 그물어구와 낚시어구를 사용했기 때문이라 하겠다.

### 3. 연안어로 작업선

#### 1) 선박

##### ● 범선(돛단배)

우리나라의 전통적 선박을 다른나라와 구분하여 부른다면 굳이 ‘한선’이라 하겠다.

여기에서 특별히 논의하고자 하는 배는 범선(돛단배)이 되겠는데 다른 아닌 명태바리를 하는 것으로 규정해 놓고자 하겠다.

그 크기는 길이가 약 13m(옛날 표현대로라면 40척), 무게는 약 1톤 내외로서 순수 목재로 제작된 선박이 되겠다. 그 당시 배를 제작할 수 있는 용도의 목재를 ‘삼’이라 불렀으며 또 나무로 제작하였다해서 ‘木船’이라 하기도 하였다.

그 선상에서 어로작업에 필요한 인원은 보통 6명이 승선하여 각기 역할기능을 하게 된다. 먼저 항해에 임하는 위치는 노를 저을 수 있게끔 된 위치 배 양면에 적당한 간격으로 두 곳이 설치되어있고 매 뒷자리 중앙부에 선장의 몫으로 방향을 조정할 수 있게 된 위치로 구분하겠다. 그런데 그 노를 젓기에 보다 더 수월하게 도움을 주고자 배 위쪽에 ‘노 젓’이라고 하는 돌출부를 쇠붙이로 박아 놓았고 보다 좌우로 젓기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속력의 가속화를 위하여 노가 밀리지 않도록 적당 길이의 노끈도 달아놓고 해서 적은 힘으로 충분히 진취력을 내게 하였다.

그런데 연근해 어로활동에서는 노만으로도 어장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겠으나, 명태바리와 같은 좀 먼 바다로 출어를 하게 될 때에는 포구를 벗어나고부터는 뜻을 올리게 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항해 속력의 기술이라 하겠는데 즉 부는 바람을 지혜롭게 피할 줄도 알고 또 가속에 이용할 줄도 아는 법과 밀려오는 크고 작은 파도의 방향과 높이를 보고서 물길을 잡아 앞으로 또는 서서히 회전하는 방법의 하나로 어떤 수월성속에 목



적 해역까지 무사히 속히 순조롭게 들고 날 수 있게 한 이용도구라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명태바리와 같은 규모가 조금 큰 배에는 두개의 돛대를 꽂고 항해를 하게 된다.

앞쪽에는 작은 돛대, 뒤쪽(배의 중앙부)에는 좀 긴 돛대를 세워 꽂고 항해를 한다.

배 밑창으로 여러 용도의 칸을 개폐식으로 구분지어 놓아 선원의 쉬는 공간, 어획물의 적재고로도 이용하게 하였다.

돛단배는 일정거리까지는 노 저으며 항해 하였다가 돛을 이용하여 보다 빠르게 목적해역을 오고 갈 수 있는 무동력이었지만 그 당시로는 그래도 기동성을 발휘한 기물이라 하겠다.

여기에서 잠깐 동해안의 배 모양을 소개하면 앞은 좀 뾰족한 편인 반면 뒤쪽은 뭉뚱한 편이 되면서 약간 울린 형체가 되겠다. 조선후기에 연안어로 활동 시에 주로 사용된 배는 ‘떼 배’가 되겠는데 이것은 여러 개의 원목을 다듬어서 평으로연결하여 노를 짓게 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그 떼배를 타고 사둘(일종의 쪽대 그물채)이나 긴 장대로 바다 밑의 해산물을 채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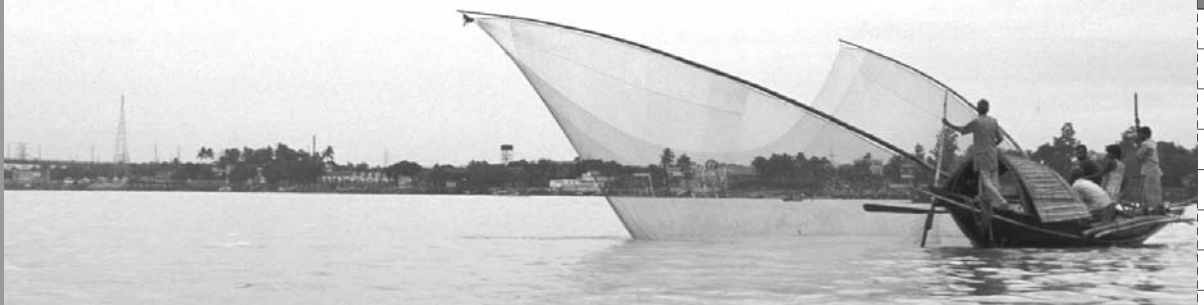
돛대의 모양은 전체적으로 윗부분은 좀 좁고 아래부분은 너른 광목천에 향토물을 들인 재료를 쓰는데 중앙에 세워 꽂는 돛대는 단단한 낙엽송으로 하고 광목에 가로지른 활대는 단단한 대나무로 그 배의 크기에 따라 균형 잡아 설치한다.

그리고 돛대는 기둥은 평소 내려놓을 수도 있고 활대로 된 광목천으로 된 바람맛이 감도 줄로 올리고 내릴 수 있게끔 간편하게 제작되어 어로작업에 불편을최소화하는데 까지 세심한 배려를 해 놓았다 보겠다.

여기에서 또 배의 부분별 명칭을 소개한다면 앞은 ‘잇물’ 뒤는 ‘도모’라 하였고, 그 배를 바다로 띄우거나 육지로 올리게 될 때 적은 힘으로 신속히 하고 지렛대 원리를 이용한 방법으로 하나인 배 양 밑에 ‘괘테’라고 하는 긴 나무를 바쳐놓고 ‘둔대’하 하는 보통사람 키 만한 길이의 나무로 올리며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는 가운데 육중한 배를 조금씩 움직여 오르내리게 하는데 이용하였다. 지금은 볼 수 없겠다.

## 2) 전마선

연근해에서 주로 노만 저으면서 작업하거나 이동통신 운반용으로 활용하던 소형의 선박이 되겠는데 그 길이는 대략 5m내외라 하겠다. 이는 ‘떼배’의 발전적 선박이라 할 수도 있겠는데 주로 이 작은 배로는 가까운 거리에서 긴 쪽대나 긴 틀이개를 가지고 해산물을 채취하는데 많이 쓰이게 되었다.





더욱 창경바리에 적격의 배라 할 수 있겠다. 지금 동력선이 아닌 무동력선은 이런 작은 규모의 선박은 쉬이 해촌에서 볼 수 있겠다.

#### 4. 어종별 어로장면

##### 1) 명태바리

동해안의 어종은 비교적 다양하다하겠으나 그래도 최대어종은 명태를 꼽겠다.

우리나라 국민의 선호도를 보아도 명태를 먹는 것이 많은 편이고 아무튼 명태는 알, 내장, 아가미까지 먹을 정도이니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먹는 식품이라 할 수 있겠다.

명태는 동해안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실정이고 그 명태의 생존조건 중 수온은 0.2~15°C겠으나, 최적의 온도는 2~7°C라 할 수 있겠다.

명태바리는 11월부터 시작되면 이듬해 2월까지 하게 되어있고 산란기는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이며 보통명태가 산란하자면 3년정도 성장하면 가능하고 명태가 한 번에 낳는 알의 수량은 대략 25만~40만개정도 이겠다.

부화된 어린새끼는 수심 200m안팎의 바다에서 자라게 되며 2년 자라면 25~35cm, 3년이면 35~40cm, 4년 되면 40~50cm, 5년이면 50cm, 그 후 8년 동안 자라게 되면 그 크기가 60cm이상까지 된다는 것이다.

명태는 생선, 냉동, 말림, 소금 절임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관처리 될 수 있겠고 생물인 경우에는 특히 겨울에 잡힌 것은 동태, 그물에서 잡힌 건 자망태, 낚시로 잡은 건 연승태, 건조된 상태에서는 황태, 떡태 등으로 불리어지겠다.

또 크기별로는 노가리, 소태, 중태, 대태, 왕태로 나타내는데 그 길이를 소개하면

대태 - 20cm이상

중태 - 20cm까지

소태 - 20cm이하

노가리 - 12cm이하

아무튼 크기 기준선은 대략 20cm가 아닌가 하겠다. 시기별로 부르는 명칭은 도루묵 고기가 잡힐 무렵에 잡힌 명태는 은어받이, 동지 무렵에 잡힌 건 동지받이, 설을 쉰 다음에 잡히는 건 춘태라 한다. 그 밖에 애기태,

노가리꺄태, 코다리(관대), 햇태, 석태, 반태 등 다양한 별칭도 듣게 된다.

또 명태의 특성은 몸은 따뜻하고 찬물을 좋아하고 조류따라 생활반경을 이동하면서 수심이 깊은 곳에서 서식한다 하겠고 성질은 급한 편이겠으나 끈기보다는 못하다 하겠다.

여기에서 낚시바리 즉 연승어로 활동을 집중적으로 열거해 보면 먼저 낚시바늘은 80cm간격으로 약 250~300자루를 달게 되는데 그것을 대나무 가지에 차례대로 끼워놓는데 그것을 한초락 이라 부른다. 이렇게 초락에 끼운 낚시를 아낙네들이 함지 또는 초락(초래기)라 부르는 나무판에 양미리 또는 임연수를 잘게 썰어서 낚시에 미끼를 끼워 그 판에 가지런히 정성껏 올려놓기를 거듭하여 보통 한 선원 이 한번 출어할 때 10초락(초래기)를 찍어서 승선하게 된다. 출어시간은 무동력선으로 행하던 그 시절에는 새벽 3시~3시반경에 그리 멀지 않는 어장으로 나가 부표를 띄우고 낚시를 이어서 놓고 나면 아침 07:00경 되겠다.

이때 선실로 내려가 11:00까지 잠도 자며 쉬었다가 다시 뱃전으로 올라와 낚시견는 작업에 임하게 된다. 이렇게 작업에 임하는 동안 걸려 올라온 명태를 뱃전으로 떨구어 놓은 다음 미리 준비한 침줄로 20마리씩(한 두름) 꿰어 놓는다.

그리하여 오후 늦게 귀향하게 되면 그제서야 아낙네들이 뱃전에 나와 맞이하고 낚시그릇을 받아 이고 집으로 간다. 바닷가 생활에는 이런 일들이 하나의 풍습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새벽에 출어할 때 남편보다 아내가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지 않고 물론 배웅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불문율 형식으로 내려오고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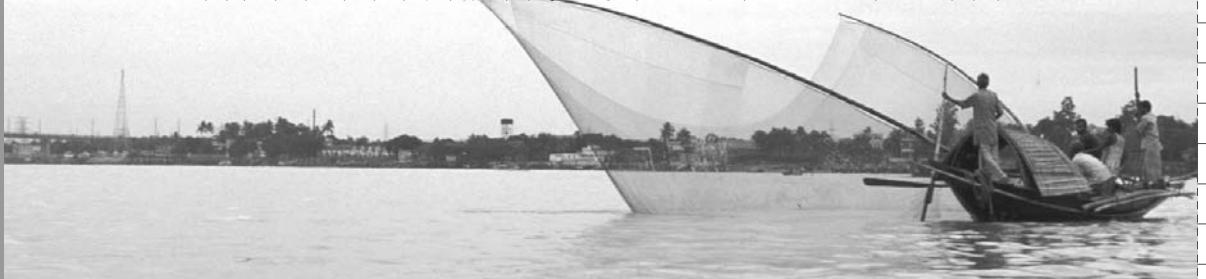
이렇게 형클어진 낚시 초락을 집에 돌아와서 하나씩 풀어서 미리 준비된 나무에 초락 기준으로 잘 정리해 끼워놓고 착착 물에 행군 다음 다시 미끼 끼울 준비를 반복하고 있는 생활의 일면이 연속되고 있다 하겠다.

이때 밝은 불을 해놓고자 카바이트 불을 준비해 놓았기에 여간 밝지가 않다.

전기 없는 시절의 하나의 개량되고 불편이 최소화 된 풍경이라 할 수도 있겠다.

#### ※ 用語

- 1손 : 두 마리씩 꿰어 놓은 것
- 1두름 : 20마리씩
- 1괘 : 마른명태 20마리씩 싸리나무와 침줄에 꿰어 놓은 것
- 1바리 : 100두름(2,000마리)
- 1초락 : 명태 낚시를 약 80cm 간격으로 250~300개 단위로 줄에 달아 굵은 대나무에 위로부터 차곡차곡 꿰어 놓은 상태 또는 함지로도 그 단위를 표시하기도 함





## 2) 멸치후리

후리는 그물로 잡는 어업의 한 방법으로서 보통 어로활동은 연안에서 봄에서부터 늦가을까지 주로 행하여진다.

대개 주업이 아닌 바닷가 마을에서는 가을철 농사를 어느 정도 맞춰 놓고 후리를 하는 것이 많다하겠다. 그리고 후리 어로활동은 해안지역이 바다에 모래가 깔려있는 곳에서만 가능하겠다. 부근 바닷 속에 암초가 있다면 후리 그물을 치기 곤란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우리고장에서는 아직까지 명맥을 계승하고 있는 마을은 동호리라 하겠다. 후리작업을 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말씀드리면 명태바리 배와같은 크기의 배가 있어야 하고 승선인원은 기본적으로 10~15명이어야겠다. 각기 임무가 있게 되겠는데 먼저 후리작업을 위해서 '망지기'가 있어야겠는데 망지기가 있을 뉘다란 망대를 바닷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하게 된다. 그러면 망지기는 그 곳에 올라서서 바다를 응시하면서 멸치떼를 관찰한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고기떼가 검붉게 튀며 물결을 이는 걸 보면 재빨리 신호를 보낸다. 신호방법은 소리치는 방법, 징과 같은 물체를 두들겨 소리 내어 알리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선원들은 뱃전으로 모이게된다. 이때 선장(사공)이 배를 내리라 띄우라 급히 외치면 일제히 움직인다.

멸치 작업 시기가 되면 배는 미리 바다에 띄워 놓았기 밧줄만 쉽게 당기면 오는순서대로 승선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승선해서 바다에 나가면 때에 따라 '살주'라는 고기물이를 담당하는 선원이 미리 준비해놓은 주먹만한 돌을 던져 멸치떼가 더욱 집결하도록 유도하겠다. 이렇게 일정시간동안 최대로 모여졌다 싶으면 출어 할 때 한끝 줄을 물에 놓고 왔기에 600m나 되는 후리그물을 재빨리 멸치떼 에워싸면서 또한 끝을 물 쪽으로 들면서 잡아당기기를 신호를 하면 깃발을 휘두르면서 '당겨라, 빨리 빨리 당겨라'를 반복하면서 재빨리 움직이겠다. 이때 그물 속에 많은 멸치떼가 든 것을 감지하면 쪽대를 들고 아니면 대야 같은 그릇으로 멸치를 퍼서 건조를 위해 미리 퍼놓은 바닷가 모래밭에 있는 가마니에 갖다놓고 고르게 퍼놓아 마르게 한다. 그 기간은 한 일주일 된다. 이때 만선에 흥겨운 사공은 웃옷도 벗고기도하면서 흥에 겨워 '야 빨리 당겨라' 외치게 되면 같은 일행들은 '어사 어사' '지여사' 하며 합창으로 화답하며 쉽게 힘들지만 고된 줄 모르고 열심을 다하게 된다. 멸치후리 작업에 앞서 고사도 지내게 되고 바닷가에 돌아와 선원들을 내려놓고 다음 사공은 선원한 사람과 바다에로 나가 그물의 이상유무를 파악한다. 그 까닭은 많은 멸치 떼가 들게 되면 그 물이 터질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 만약 그물이 군데군데 보수할 곳이 발견되면 다시 손질을 해서 다음 작업에 지장이 없

도록 사전 준비에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겠다. 정말로 만선되었을 때의 모두의 기쁨은 대단했었다한다. 만선기를 쫓고 덩실덩실흥에 겨워 즉석 소리로 매겨 노동요로 탄생하는 것이다. 멸치 푸는 쪽대는 산대라 부르기도 한다. 그때 소리를 하게 되는데 그 소리를 산대소리라 하겠다. 아무튼 한 일주일 걸려(청명한 날씨를 만나면) 건조한 멸치를 가마니에 넣어 여러지방으로 팔려 나간다. 때로는 동네 사람끼리 후리그물을 쳐서 얻게 되는 고기들은 함께 참여한 모두에게 고루 나누워지던 해촌의 훈훈하고도 넉넉한 인심도 엿볼 수 있었기도 했다.

※ 用語

- 연승 : 한 배에 승선한 선원의 미끼 끼운 낚시 초락을 이어 어장에 내려 명태 잡이 하는 낚시 이은 상태
- 자망 : 고기떼가 지나는 곳에 길게 그물을 쳐서 물고기가 그물코에 걸리게 하여잡는 그물
- 저인망 : 바다 밑 바닥을 끌고 다니면서 고기잡이하는 그물
- 건착망 : 고기떼를 수직으로 둘러막고 밑에 달린 금속고리에 펜 밧줄을 죄어서 차차 오그라들게 하여 배옆에 바싹 붙이고 고기를 퍼내어 잡게 만든 그물
- 정치망 : 일정한 곳에 쳐 놓은 그물
- 어량 : 물을 한군데로 흐르도록 막고 그곳에 통발을 놓아 고기를 잡는 장치
- 수괴 : 바닷물 온도와 염분, 빛깔 따위의 특성에 따라 나눌때에 거의 균일한성질을 가진 바닷물 덩어리
- 염분(鹽盆)=염부(鹽釜) : 바닷물을 고아 소금을 만드는 큰 가마
- 浦口 : 배가 드나드는 개의 어귀
- 港口 : 바닷가에 배를 댈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놓은 곳
- 漕運 : 해운항로
- 津 : 나루
- 渡 : 나루터, 물 건너감
- 浦 : 개펄





### 3) 창경바리

근·현대 전통적 어법 중 하나로서 옛날에는 수경이 없기에 바닷 속 작업을 위해보다 밝게 물속을 들여다 보기위해서 고기 애기름(간유)을 몇 방울 물위에 떨어뜨려 놓으면 잠깐 밝게 볼 수 있었기에 그런 방법을 지혜롭게 활용해왔으나 그 후에수경을 이용한 어구를 고안해 냈던 것이다.

그 창경의 제작은 4개의 송판을 사다리꼴 모양으로 위는 좁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넓게 하여 맨 밑 부분에 유리를 바착한 기구라 하겠다.

수경을 단 창경의 길이는 약 50~60cm정도라 할 수 있겠고 그 창경 윗부분 한쪽면을 좀 파이게 하여 양 끝에 굵은 끈을 팽팽하게 매어놓고 그 주위를 입에 물고 작업할 수 있도록 형꼴을 몇 겹 감아 놓았다. 그리고 그 창경이 작업 중 멀리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끈을 달아 작업하는 곳에 고정으로 묶어 놓을 수 있게끔 하였다.창경바리 배는 작은 전마선으로서 바다 작업장에 나갈 때 까지는 긴 노를 저으며 나갔다가 작업장에서는 '가이노'라 하는 작은 노로 자리에 앉아서 준비된 위치에 노를 끼워서 빙빙 물살을 가르게 된다. 그러면서 수경 즉 창경으로 물속을 들여다 보면서 어로에 임한다. 주로 얻어지는 수산물은 철따라 다르겠지만 미역, 해삼,바위틈의 전복, 조개, 문어, 고기등을 그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활용하게 된다.

그 어로도구를 소개하면 대략 다음과 같겠다.

- 작살, 창 - 고기 찌르기
- 장대 - 쪽대나 낫 다는 것으로 활용
- 쪽대 - 해삼, 전복, 성게 뜨기
- 팝쟁이 - 문어잡이용
- 미역낫대 - 해초류 채취용

### 4) 오징어 잡이

오징어는 동해안에서 서식하는 난류성 어종으로서 수온 4~27°C가 적정생활 온도이고 연간 어획고가 명태 다음으로 연간 한때 26만 톤까지 되는 절대 여름철소득원이 되었다. 산란기는 5월~8월이 되겠고 오징어가 한창인 시기는 7월에서부터 9, 10월경인 즉추석 때까지라 할 수 있겠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고정된 가로막대에 늘어뜨린 양갈래 줄에 비늘없는 오징어 낚시를 한쪽에 3개씩 총 6개를 세로로 매어 달아 바닷물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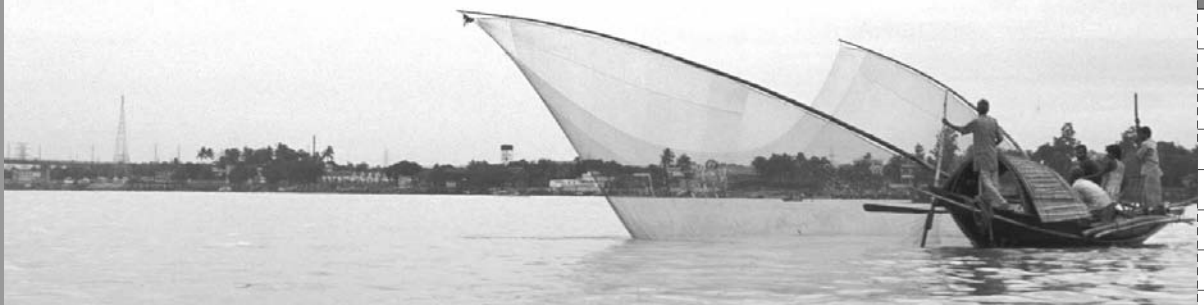
에 일정 깊이 까지 떨어뜨려 위 아래로 손놀림을 해서 오징어를 낚아채어 잡기도 한다. 이때 선장에는 환한 불을 밝혀 놓았다. 출어해서 작업하는 시간이 오후(점심때 지나)에 나가서 어장에 도착해서 어두워지면 오징어 떼 몰려오면 낚시를 드리워 낚아채곤 했던 것이다. 이때 낚아채어 뱃전에 떨어진 오징어는 먹물로 자기방어를 하기도 하며 괴성을 내기도 일쑤이다. 지금은 집어등을 밝혀 육지에서 수평선 저 끝까지 바라볼라치면 해상에 한도시가 형성된 듯 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장관을 일으킨다 하겠다. 이튿날 새벽, 작업을 마치고 귀향하게 된 활복하여 모래밭에 길게 장대를 박고 걸고 줄도 늘어뜨려 놓고 생오징어를 걸어 놓는다. 며칠동안 청명한 날씨를 만나게 되면 품질 좋은 마른 오징어로 20마리 기준으로 묶어 시중에 내기도 한다. 오징어 종류는 세계적으로 460여종이 되겠고, 우리나라에는 80여종이 있겠는데 우리고장에서 주로 잡히는 오징어는 살오징어와 갑오징어 등 8종정도 되겠다.

### 5) 손 콩치잡이

우리나라 전통어법중의 하나라 할 수 있겠다. 보통작업은 6월 하순에서 7월 사이에 이루어지겠는데 먼저 콩치를 유인할 수 있는 ‘뽕복이’란 해초를 뜯어 모아 장방형으로 엮어서 배 옆구리에 띄워 놓는다. 그러하면 그 위로 산란기를 맞이한 콩치떼가 좋은 보금자리로 착각하고 모여든다. 그러할 때 콩치를 쥐어 잡기만 하면 되는 아주 쉬운 어법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때 보다 많은 어획을 올리기 위해서 먼저 콩치 한 마리를 붙잡아 손가락 사이 끼워가지고 그 해초위에 손을 담그면 더 많은 콩치 떼를 유인할 수 있다는 말도 있겠다. 그물로 잡는 법이 보급되기 전까지 이와 같은 맨손잡이 어법으로 어획을 올려 생계유지에 도움을 가져오게 되었다. 우리고장 뿐만 아니라 이런 어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어로활동이 이제는 전설로만 남게 되었다.

### 6) 도루묵 잡이

동해안 겨울 연근해에서 그물로서 포획하던 어종이다. 옛날에 하도 많이 잡히어 천대받던 고기로 기억된다. 심지어 부둣가에서 상거래를 할 때 마리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샅으로 푹푹 퍼서 어름치고 계산하였다. 그러나 상인들은 근년에 들어 자동차(소형화물차)에 가득 싣고 영 너머 지방이거나 아니면 같은 군내라 할지라도 산골마을로 가지고 판매하여 째절한 소득원이 되기도 하였다. 70년대부터 것처럼 흔하던 도루묵도 주위환경 변화에 따라 명태처럼 급격히 어획량이 감소하게 되는 데가 어떻게 일본에 수출할 길이 열리며 그





값도 좋은 것은 물론 진귀한 고기로 부상하게 된다. 마치 전설에 나오는 도루묵이 은어가 되고 은어가 도루묵이 되는 격이 되기도 했다. 수출 이후로부터 국내에서도 조리해서 먹는 법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어종 즉 고급 어종 취급하듯 겨울철이면 도루묵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주점에서 구워먹고 찢어 먹고 볶아먹는 풍경이 심심치않게 벌어지게 되었고 가정에서도 천대받던 고기가외국에 수출까지 하게 되니 동시에 귀히 여기게 되었다. 이에 대한 전설은 다음장으로 넘기기로 하겠다.

그 밖에 바닷고기를 소개하면 청어가 내가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귀한 어족이었기에 손님이 온다던가 아니면 가정에 특별한 날이 되면 장터에 가서 사다가 생선을 석쇠에 소금 뿌려 굽는 것이다. 그런데 그 냄새가 이웃까지 번지게 되어 청어 굽는 집에 특별한 일이 있는 줄 알고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정어리는 지금 멸종하 다시피 되었는데 일제 시대에는 동해안 어지간한 마을이면 정어리 포획과 정어리 기름 짜는 공장이 많았다. 바로 그 기름이 일제의 수탈용으로 전부 일본으로 반출되었다는 것이다.

그때 무분별하게 많은 정어리 떼를 남획하였기 지금 보기 힘들다는 얘기를 해촌가의 화제로 곧잘 등장하고 있겠다. 아무튼 고기는 규정대로 포획하며 양식도 잊지 말아야 할 교훈으로 남게 한다.

### 7) 미역채취

미역은 대개 봄철 3월~5월 사이에 채취 작업을 하게 되는데 채취방법은 전마선을 혼자 타고 나가 긴 장대에 낫을 부착하거나 감 장대와 같이 사이에 끼워 빙빙돌려 뜯어 올리는 방법도 있겠다. 대개는 2~3 사람이 1조가 되어 미역틀이로 감아올리거나 톱날 같은 끌개살로 바다속에 미역바위에 넣고서 멀리 끌고 가면서 채취하는 방법도 있다하겠다. 이렇게 채취한 미역은 물으로 들어와서는 약 1m크기의 형체로 가마니에 넣어 건조하여 20장씩 한축으로 하여 묶어 놓게 된다.

- 낫대각 - 창경바리로 통해서 낫으로 미역을 한포기씩 뜯어 올린 미역
- 굽각 - 2~3명이 1조가 되어 톱날과 같은 기계로 된 끌개살로 뜯어 올린 미역
- 절각 - 갈퀴리 같은 것으로 물속으로 던져 넣어 뜯어 올린 미역

뿐만 아니라 높은 파도가 혹 일 때이면 바닷가 모래밭에 갯가지의 해초가 뜯기어 밀려오게 되는데 긴 줄에 갈퀴리를 매어 던져 걸리는 갯가지 해초 중에서 미역만 골라내는 방법이거나 긴장대에 갈퀴리 같은 모양의 나뭇가지를 매어 미역만 건지는 것이라든지 이때 재수 좋게 심통어, 문어도 횡재로 얻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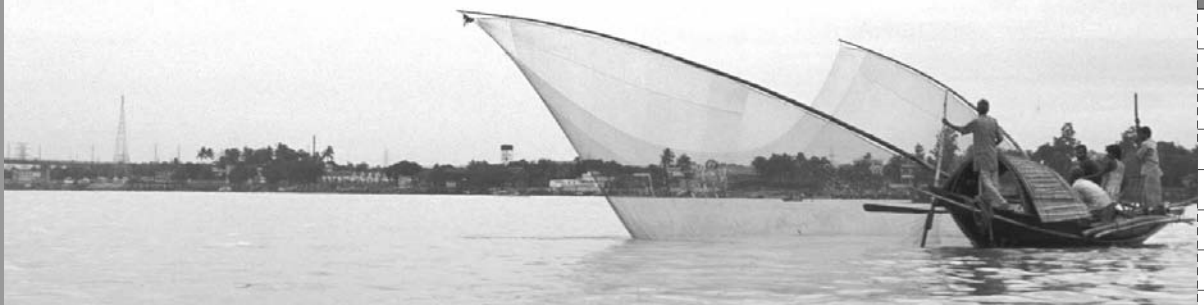
도 했다. 정말 한때의 바닷가의 진 풍경의 연출이라 할 수 있겠으며 더욱 60~70년대 경제 사정이 그리 좋지 않을 때 해촌 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게 하는데 한 몫 톡톡히 했다 하겠다.

### 8) 돌김채취

겨울날 아낙네들이 바닷가 바위에 돋은 돌김을 채취하여 먹기 좋은 김을 생산하게 되는데 먼저 작업장에 나가기 위한 준비과정을 살펴보면 두툼한 옷차림에 바위에서 쉬이 미끄러지지 않고 작업에 용이하도록 특별 신발에 유념하게 되는데 신발은 짚신을 신고, 가는 새끼줄로 바닥에서 발등을 빙빙 감아서 걷는데 편하게 한다. 그리고 김을 채취할 수 있는 도구로서 바구니와 바위에 돋은 김을 긁을 수 있는 전복껍질이거나 쓰다버린 낫 숟가락도 이용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바닷가 바위를 돌고 돌아 긁어모은 물김을 집으로 가져와서는 먼저 큰 함지 같은 그릇에 물을 담고서 일게 된다. 이때 이는 까닭은 이물질들을 고른다던가 긁을 때 함께 붙어 온 바위부스러기를 골라내는 작업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손질한 김을 미리 준비된 약 20~40cm크기의 김발을 물이 잠긴 큰 그릇에 띄워놓고 적당량의 김을 얹어 골고루 살살 발에 펴게 하여 건져서 물이 푹 푹 떨어지는 발 그대로 양지바른곳에 한 장 한 장 건조하여서 나중에 떼어 20장 기준으로 '첩'으로 하여 짚 또는 노끈으로 묶는다. 한첩 한첩 묶음을 10단위로 해서 '한 톨'이라 하여 겨우내 짹짹한 가외소득을 올리기도 했었다. 김을 말리는 과정은 옛날 닥종이를 제조하는 과정과 연관해 보면 쉬이 이해가 되리라 보겠다. 돌김을 부업으로 하는 활동은 비단 해촌의 아낙네뿐 아니라, 인근마을까지 부인네들의 특별한 가내 보탬의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하겠다.

지금 우리고장에서는 그리 흔히 하지 않고 몇 마을 부녀자들만 하고 있는데 '재래김'으로 값도 그리 만만치 않으리라 보겠다.

돌김 못지않게 해초를 김 채취하는 방법과 거의 똑같이 하여 긁거나 또는 베어다가 잘 행귀 김발에다 바로 뜨는 것도 있겠으나 '얼개미'를 물함지에 뒤집어 띄워놓고 살살 손으로 피어가며 말릴 수 있도록 퍼놓되 좀 억센 관계로 '고르매' 자반은 두텁게 하고 '파래' 자반은 김발에 같은 요령으로 건조하여 20장 단위를 한 첩으로 하여 짚(지금은 포장 끈)으로 중간허리를 묶어 장에 나가 팔거나 두고두고 밥반찬 감으로 입맛 돋우는데 한 몫 톡톡히 차지하게 하였다. 그밖에 '보리해둥' '진저리' '청각' 같은 해초도 채취하여 무침 또는 된장, 막장, 고추장에 깊이 넣어 장아찌로 식품화하여 특히 도시락 반찬감으로 인기가 아직도 대단한 줄 안다.





## 5. 물고기에 얽힌 속설

### 1) 명태

함경도 明川에 살던 太씨 성을 가진 어부가 바다에서 잡은 귀한 이름도 모르는 관찰사에게 고기를 올린다. 이 물고기를 먹은 관찰사는 맛도 좋고 해서 이름을 물어보나 없다가에 명천의 태씨가 잡은 고기라 해서 첫머리 글자를 따서 ‘명태’라 지어 내렸다 한다. 뿐만 아니라, 이 고기는 그때 형편상 여러 식량 못지않게 이용되었음은 물론 심지어 눈이 어두운 사람이 먹으면 눈이 다시 밝아진다고 해서 밝을 ‘明’자를 붙여 명태라 불리게 되었다는 얘기도 전해오고 있겠다. 아무튼 명태는 하나도 버림 없이 다 식용화 할 수 있는 고기로서 각광을 받게 되었다. 이름도 다양하겠다. 이는 앞에 열거하였기 생략하고 이에 얽힌 얘기 몇 가지도 덧붙여 보게 되면

- 창란은 당숙에게 보내고 명란은 외숙에게 보낸다.
- 눈이 흐린 사람은 눈을 밝게 해 달라는 뜻으로 국을 끓여 먹는다.
- 소원 성취를 위해 쓰이기도 했다.
  - 마른명태를 대문 문설주 위에 달아 놓고 복 받기를 기원하는 풍습
- 새 차를 사도 산사람의 무사운행을 위해 태실에 마른 명태를 묶어 차안에 특히 트렁크나 큰 차인 경우에는 핸들 쪽에 고이 달아놓는 풍경

### 2) 도루묵

임진왜란 당시 선조가 피난길에 나섰는데 한 어부가 ‘묵어’라는 고기를 진상하게된다. 하도 맛있게 그 고기를 먹은 임금께서 고기 이름을 ‘은어’라 하사한다.

그러나 뒷날 선조가 피난길에서 것처럼 맛있게 먹던 그 맛을 되찾지 못하게 되므로 그때 ‘도루묵’이라 부르도록 했다는 전설 사람의 심리가 참 이상하다. 국내에서 소비 될 때에는 돌아다보지도 않고, 실정에 맞게 요리개발은 아예 생각도 않다가 외국 수출되고 그 나라에서 여러 영양적 가치를 인정하니 그제서야 “누가 먹으니 나도 먹어야지”하는 식으로 덩달아 먹는다는 건 펍 우스운 일은 물론 우리들의 의식 또한 생각해볼 대목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 3) 양미리

동해안에서 근년에 보기 드물게 많은 양미리가 잡히고 있어서 한 겨울 해촌 또는 수산물 시장 근처 먹을거리 좌판에 좋은 풍경을 수놓고 있겠다.

지난날 양미리 새끼를 봄철 후리그물로 살주가 돌로 모여 작업을 하여 얻게 된 어린 양미리를 뚝에 올라와서 미리 끓인 바닷물에 슬쩍 데치다시피 하여 발리거나, 가마니를 깔고 벌에서 잘 건조하여서 상품화 되었다. 요즈음은 그전 어로작업은 없고 늦가을부터 다 큰 양미리 떼를 그물로 잡아 소득을 올리게 되는데 정확한 명칭에 많은 혼란을 가져 온다. 즉 종, 속, 과, 목, 강, 문, 계와 같은 생물학적 분류체계에서는 양미리가 까나리인지 혼돈하고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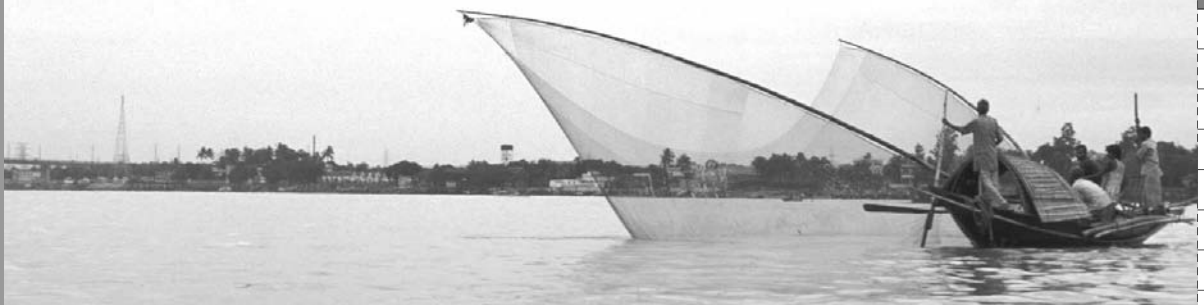
아무튼 동해안에서는 그 본명이 까나리이든, 농어목에 있든 양미리로 불리어지고 있겠다. 뱃전에서 수산시장으로 수산시장에서 각 가정 또는 전문 음식점으로 옮겨지면 삼삼오오 짝을 이루고 활활 이글이글 피워 오르는 화롯가에 앉던지 서서이던지석쇠에 되는데로 양미리를 올려놓고 굵은 소금을 훌훌 뿌려가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혹 설익었다라도 정담을 나누며 먹는 그 자리가 진정 희희낙락의 꽃피는 삶의 동산으로 자리 매김하는데 큰 몫을 겨울 양미리가 차지했다 해도 그리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연안 밑바닥에서 서식하는 양미리는 그물로 포획하게 된다는 사실을 앞에 밝힌 바 있겠는데 그 양미리를 보다 많은 어획을 올리기 위해서 그물추를 달아서 바다 밑 모래에 닿게 하여 모래 속에 숨어 있는 양미리를 자극하여 이동을 가속하게 하여 그때 피하다가 그물코에 걸리게 한다는 것이다. 그 고기의 특성을 잘 이용하여 잡는 방법 중의 하나라 말할 수도 있겠다.

### 4. 수산물의 유통과정 형성

생존의 수단인 하나이겠으나, 해촌에서 얻어진 갖가지 수산물을 지금처럼 다방면의 경제구조가 형성되지 않은 그 시대에는 물물교환 형식으로 내가 생산또는 채집 그리고 잡아 올린 산물을 이웃마을로 이고 지고 가서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살아왔다 하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시장형성은 신라시대부터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을 기억한다면 굉장한 역사를 가졌다 하겠다.

바닷가 풍경을 더듬어 보면 최근 년까지 잡힌 고기를 두 마리씩 새끼줄에 아니면 짚에 꿰어 단위를 '한손'이라 했고, 어떤 때는 몇 마리씩 또 잔고기는 여러 마리를 단위를 하여 '바꿈이'를 해서 필요한 양식이거나





생활필수품을 가져오는 유통구조 과정이 있었다.

특히 영동지방은 강릉을 생활권으로 잘 형성되었다 하겠으나 우리고장 같은 곳에서는 場市가 조선전기까지 강릉중심으로 발달하였다는 것을 문헌을 통해 알 수 있겠고 우리고장에서도 근거리가 유통을 형성한 장날을 보니 양양읍내장이 4일, 9일, 물치장(강현면)이 5일, 10일, 인구장(현남)이 3일, 8일에 열리게 되어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겠고 오래전에는 산촌의 중심지로 서림(서면)도 장이 열렸다한다.

상상만해보아도 힘들었다는 걸 알게 된다. 영을 넘어서 몇 십리 길을 걸어서 ‘바꿈이’ 를 하였다는 걸 생각 하니 그때 선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겠다.

좀 달리 얘기한다면 서림은 산간의 중심지는 틀림없는 것 같다. 38선 분할로 이남으로 되었을 때 서면 일부를 ‘신서면’ 이란 명칭 아래 수복되고 행정이양되기 전까지 한동안 독립 면단위로 지내왔음이 결코 우연이 아닌 사실로 생각해 본다.

여기에 잠깐 조업 중 얻어진 소득에 대한 기준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겠다. 선주가 3,5, 선장이 2,5, 기관장이 2,5, 낚시사공이 1,5, 평 선원 1을 차지하게 되는 그 배분기준을 ‘10’ 으로 하였다.

## C. 생활문화

### 1. 풍습

#### 1) 2월 영동(영동할머니 맞이)

영동의 세시풍습은 해춘 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지켜지던 전해오는 행사라 하겠는데 靈登 또는 영동으로 표현하는데 영동에서는 ‘영동할머니’ 로 신봉하고 있겠다.

즉 2월초 하루날 바람이 심히 부는 날이면 ‘바람영동’ 이라 하였고 비가 오는 날이라면 ‘물영동’ 이라 하겠다. 속설에 의하면 바람영동에는 딸과 함께 오고 비 오는 영동이면 즉 물영동이라면 며느리를 데려온다 했었다. 이날 해춘에서는 명태와 무를 썰어 끓인 소위 ‘와재기’ 를 밥과 함께 장독대에 얹어놓겠는데 밥그릇에는

11) 상계서 p423

식구대로의 수저를 쫓는다. 그러면 떡도 장만하게 되는데 그 떡 재료는 바닷풀인 ‘뽕복이’를 뜯어다가 삶아 말리어 가루로 하여 쌀을 섞어 떡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서 빌기를 “바람님 잘 잡수시고 우리 온가족 잘 되게 하옵소서”를 빈다. 2월 15일 바람님이 올라가시기 전까지 혹 이곳에서 음식이 들어오면 장독대에 먼저 진설해 놓았다가 그 후 집에서 먹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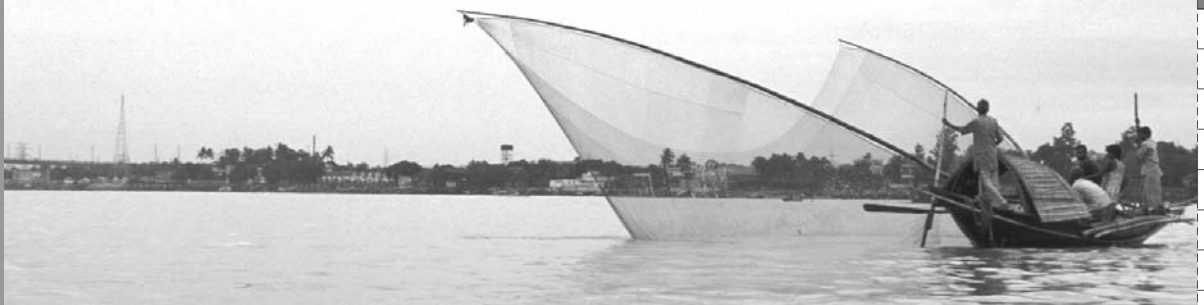
그 외에도 매달 세시풍습이 있겠으나 특별한 것은 없고 그리 어로를 위한 사전준비하는 그물손질하거나 정월대보름 달맞이를 하며 그저 고기 많이 잡히게 해 달라는 것과 무병장수를 달을 보고 빌었던 것이 좀 특별한 연중행사라면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지금은 해촌의 풍습도 작업과정도 옛날과 크게 변화하고 있기에 하나의 전통적 행사로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하겠다.

## 2) 걸립(乞粒)

당초 뜻은 마을의 공동기금조성을 위해 풍물을 울리며 마을의 집집마다 방문하면 한바탕 춤판을 벌리며 그 가정에게 복을 기원하는 뜻도 가지고 있겠으나, 점점 내려오면서부터 명절이 되고 정초가 되면 대개 정월보름을 전후해서 마을깃발을 앞세우고 청장년들이 가장도 꾸미고 풍물을 각기 나누어 들고 신명나게 치며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나면 방문하는 집에서 끝날 무렵 주안상을 장만하여 마당에 진설해 놓으면 우두머리가 또 축원을 하며 함께 즐기며 또 다른 집으로 옮겨 온통 온 동네 축제의 분위기 속에 마을의 안녕과 풍농, 풍어 그리고 나라의 태평성대 까지 기원하며 희희낙락하겠다. 마련된 곡물이나 현찰은 다시 정리하여 공동기금으로 유용하게 쓰이게끔 의논해서 처리하는 미풍의 계승이라 하겠다. 이 기회를 통해 특히 아낙네들이 바깥세상도 함께 보며 이웃간의 돈독한 화목을 더욱 다지는 복된 장면의 연출로 날로 좋은 소문나는 마을로 성장하는 계기 또한 충분하리라 보겠다.

## 2. 신앙생활

해촌에서의 신앙은 대단하겠다. 그 까닭은 생활터전이 목숨을 때로는 담보하면서까지 생업현장으로 들고 나아갈 위기의 순간 이 보다 많다는 것도 하나의 까닭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늑한 곳에 제단을 축성하고 아니면 오래된 나무가 있다면 어떤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면서까지 원시신앙으로부터 계승발전하고 있다 보겠으며 그러나 지금 해촌에도 기독교도 전파되어 신앙의 다양성도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 볼 수도 있겠다. 이어서 우리고장에 특히 해촌과 관계 짓고 있는 묘와 제당 밭을 종합적으로 열거해보려 하겠다.





### 1) 동해신묘

최초설립년도는 정확하지 않지만 「고려사」 익령현조에 나타내기를 「동해신묘」가 있다는 기록이 있겠고 즉 고려 공민왕 5(1356) 四海중 첫 번째로 동해신의 이름을 내렸다하겠다. 본래 강릉 안인포에서 조선 성종 21(1490)수군만호영이 양양 대포(오늘의 조산)에 영을 이전하게 되므로 옮겨 지은 곳이 아닌가 보기도 한다.

당시 건물은 3동이었는데 허균이 1605년에 동해신묘 중수기를 작성하였고 그 후 남공철이 동해신묘 중수 기사급명이란 비석을 1800년에 건립하여 잘 내려오다가 일제강점시기인 1908. 12. 26 일제의 훈령에 의해 신위를 뒷산에 묻고 철폐사실이 있겠는데 당시 군수인 최종락은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피를 토하고 사망 하였다는 것이다. 동해신묘의 위상에서 한 말씀드리면 당시 조정에서 춘추(2월, 8월)에 향축을 내려 보내 제의를 봉행 할 만큼 중요한 몫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후 1993년 총320여평의 대지와 옛 모습과 같이 새롭게 개축하여 해마다 1월1일에 봉행하고 있겠다.

동해묘에 대한 위상을 좀 더 소개해 보면 동해 수호신으로 양양땅에, 서해의 수호신으로 '서해단' 을 황해도 풍천에 남해의 수호신으로 '남해신사' 를 전남 나주에 세우게 되었다. 북쪽에는 바다 없으나 함북 경원에 '두만강 신사' 를 평북의주에 '압록강사' 를 세웠다.

그런데 동해는 '廟', 서해는 '壇', 북쪽에는 두만강과 압록강에는 '祠' 로 이름 붙였다.

※ 사전적 의미

- 묘 - 종묘의 준말(격이 매우 높음)
- 단 - 흙이나 돌로 쌓은 제터
- 사 - 규모가 작은 집

그러므로 양양의 동해신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겠고, 그래서 앞으로 제례행사 원형을 되찾는다는 뜻에서 국가 단위 봉행으로 발전, 격상되기를 개인적 입장의 소망을 밝혀본다.

### 2) 해촌의 제당

마을마다 제당을 짓던지 아니면 오래된 나무에 석각을 쌓고 금줄을 띄워 놓은 신앙의 대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상례이겠다. 특히 바닷가 마을은 더욱 더 그런 현상이 현재까지 보존 계승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면서 우리고장 바닷가 마을들의 제당을 살펴보면 공통점을 발견해 볼 수 있겠다.

제당이름 대개 성황당으로 명명하고 성황신을 섬기는 것으로 되어 있겠고 제의일자도 춘추 또는 정월 택 일하던지 아니면 고정 제의일자를 지키는 곳도 있겠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풍어굿판을 벌이는 것이 지금도 있겠는데 경비관계로 3년에 5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 마을도 있겠다. 제의일자의 공통점은 정월, 3월 3일, 9월 9일로 하는 곳이 많다는 것도 특징이라 하겠다. 또한 마을(현남, 광진)은 3불을 모시었는데, 3불이 삼신, 성황, 부처를 말하고 있겠다. 동산마을은 제당명을 붙이고 있는데 그 제당은 ‘湖海祠’로 하고 있겠다.

남에 2리(현남)는 할머니 성황을 모시고 있다하고 할아버지는 설악산에 있다고 전한다. 지금 제의에 드는 모든 비용은 대개 마을 공동 추렴으로 하고 있다하겠다.

### 3) 해촌 주민의 전통적 금기사항

1. 출어 할 때에는 인사를 하지 않는다.
2. 출어 할 때에는 뒤를 돌아다보지 않는다.
3. 출어 할 때에는 여자가 앞을 지나면 그 날은 포기한다.
4. 아버지와 아들이 한 배에 승선하지 않는다.
5. 출어를 위해 가까운 이웃이라도 문상을 안한다.
6. 바다에서 조업 중 쇠붙이를 바다에 빠뜨려서는 안된다.
7. 항해 중, 조업 중 시체를 보았다면 정중히 모신다.
8. 배를 건조하거나 첫 출어 시에는 부부행위를 안한다.
9. 출어 할 때에는 달걀을 가져가지 않는다.
10. 출어 할 때에는 만약 아내가 출산했다면 그 남편은 승선하지 않는다. (피와 관계되어)

### 3. 漁謠

해촌에서 고기잡이 할 때의 힘든 순간과 최소의 힘이라도 결집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자 소리를 통하여 작업장면마다 부르던 소리를 몇을 선정해보면서 다음과 같은 작업현장에서 불러오던 사실을 알게 된다.

- ① 물에 있는 배를 내릴 때(둔대질)
- ② 일정거리까지 노 저어 나갔다가 돛을 올릴 때





- ③ 포구에 들고 날 때
- ④ 연안에서 그물을 당길 때
- ⑤ 후리로 통하여 그물에 든 고기를 퍼 올릴 때
- ⑥ 그물에 걸린 고기를 털 때에 선창에 의해 또는 함께 부르던 소리가 고된 작업장에서 순간적으로 잊게 하며 큰 힘을 일으키게 하는 충분한 매체로서 역할기능과 기대에 부응하게 하였는데 그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겠다.

● 둔대질 소리(배 내리고 올리는 소리)

- 선창 : 에이야아아 에이야아아
- 후창 : 에이야아아 에이야아아
- 선창 : 에이야아아 에이야아 청실홍실을
- 후창 : 에이야아아 에이야아 에이 야아아
- 선창 : 목에다 걸고 오 소나무 고개로 오오 넘어를 온다
- 후창 : 에이야 에이야아 에이야아

· 노 젓는 소리

디여 디여차 디여 디여차  
 디여 디여차 디여 디여차  
 디여 디여차 디여 디여차

· 줄 당기는 노래

에라 마이다 에라 마이다	히여소 마이다 히여소 마이다
어또아 마이다 어또아 마이다	히여소 마이다 히여소 마이다
에야라 마이다 에야라 마이다	히여소 마이다 히여소 마이다



● 그물 당기는 소리

사공 : 자바

선원 : 어여사(합창)

사공 : 자바

선원 : 어여사(합창)

혹은

사공 : 자- 자-

선원 : 으여차(합창)

사공 : 자자

선원 : 으여차(합창)

사공 : 얼른 땡기자

선원 : 으여차(합창)

〈※동호리 멸치후리 장면에서〉

● 그물 당기는 노래

에이야 어거디야

어거갈사 에이야

연령각시 실날비듯

다리고 다리고

어거디야 에이야

푸르려구나 에이야

에이야

어이야디야 에이야

에이야 에이야

충신되어 에이야

에이야

다렸네 에이야

어기야 에이야

덩겅덩겅 땡겨주오

어기야 에이야

어야어야 어이여차





에이야                                 멍겼네  
 에이야                                 에이야

● 그물 조르기

소나에 소나에 소나에 소나에 소나에

● 산대소리(쪽대로 고기를 퍼낼 때)

선창 : 에라로 가래라소

합창 : 에라로 가래라소(후렴)

선창 : 이번에 산대는 용왕의 산대다

합창 : 에라소 가래라소

선창 : 이번의 산대는 전주의 산대다

합창 : 에라소 가래라소

선창 : 이번의 산대는 사공의 산대다

합창 : 에라소 가래라소

선창 : 하늘에는야 별두 많고 땅도 많네

합창 : 에라소 가래라소

선창 : 장절밭에는 오리두나 많다

합창 : 에라소 가래라소

선창 : 언제오나 언제오나

합창 : 에라소 가래라소(이하 생략)

● 가래소리(1)

에라소 가레이야

에라소 가레이야  
 가레는 우나  
 명사십리 화당화야  
 꺼치러 진다구 참을 더라  
 꺼진소리를 정자하면  
 끼여서 소리를 내는데

이번꺼래라 누구인가  
 우리네 선주님 가레로다  
 에라소 가레이야  
 에라소 가레이야  
 에라소 가레이야  
 에라소 가레이야  
 에라소 가레이야

● 가래소리(2)

에라 - 소 - 가래로구나  
 에라 - 소 - 가래로구나  
 에라 - 소 - 가래로구나  
 에라 - 소 - 가래로구나  
 에라 - 소 - 가래로구나  
 에라 - 소 - 가래로구나  
 에라 - 소 - 가래로구나  
 에라 - 소 - 가래로구나  
 에라 - 소 - 가래로구나  
 우리들 가래는 어느 누가 부르나  
 요번 가래는 무슨 가래냐





요번 가래는 선주님 가래다.  
요번 가래는 무슨 가래냐  
요번 가래는 선원들 가래로다.  
요번 가래는 무슨 가래냐  
요번 가래는 고성군 가래로다.  
요번 가래는 무슨 가래냐  
요번 가래는 용왕님 가래다.

● 만선가

헤이야~ 헤이야~ 어기여차 헤이야  
헤이야~ 헤이야~ 어기여차 헤이야  
헤이야~ 헤이야~ 엇다 고기 많이 잡았다

### Ⅲ. 整理

#### A. 요약

##### 1. 해촌의 형성

인류의 역사는 수집, 채집의 생활에서 시작되어 일정한 곳에 머물러 주위환경을 유효 적절하게 적응하면 서부터 즉 강, 호수, 바다에로 삶의 터전을 한가슴 품으면서 다시금 새로운 생존방식과 영원성을 추구하게 되는데 우리고장은 이미 BC6000년경 오산리 선사문화유적을 통해 해촌과의 어떤 관계성을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발굴된 유적과 유물 중 낚시와 그물추가 바로 그것이라 하겠다. 그러하기에 더 한층 ‘원양양인’의 후예라는 긍지를 품고 앞을 보게 되는 계기가 그 자체를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리라 본다.

그리고 배경에서 보면 태백준령의 급경사로 해안선은 매우 단조롭고 해양문화의 교류가 그리 크지 않았기에 지금도 항포구는 있으되 항만으로서 기능을 갖춘 현대적 규모의 시설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현재 국가어항 2, 지방어항 2, 그리고 어촌정주어항이 8이 있다는 사실도 전체 해안선 길이 39.5km밖에 안 되는 고장이라면 그래도 괜찮은 사정이라 하겠다. 어류도 명태, 오징어, 연어, 도루묵 등 해산물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다를 바라보고 사는 해촌의 어민들에게는 아늑한 보금자리 역할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할 수 있겠다.

또 오늘에 살아가는 해촌 주민의 현실도 다른 지역과 별 차별 없이 제1차 산업 활동이 승계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다시 말해서 젊은 층은 어업의 기피현상으로 날로 그 지역이 침체 내지는 노쇠해 가고 있고 그야말로 어업 기피현상, 해촌 존립의 위기 등 한 사회의 불균형에 직면해 있다 단언도 해 보겠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지리적 환경, 역사적 배경, 정신적 지주감에서 새삼 나름대로의 주관을 살려 문화적, 경관적 환경을 고려한 새 해촌 건설에 차별화된 그곳만의 특징이 부각된 충분한 자료제공에서 하나 둘 취사 선택하여 진정 살아 숨 쉬는 고장을 한 가슴 품게 하는 내용을 정선하였다 하겠다.

## 2. 생활환경

1) 어로작업은 보편적으로 소규모 어선을 이용하게 되면서 바닷가에 나와 그날의 출어를 위해서는 날마다 기상상태를 예의주시하게 되는 그 방법은 전통적으로 「관천망기법」에 의해 즉 하늘을 쳐다보고 날씨를 예측해 본다는 관습에서 조심성 있게 바다에로 나가게 된다.

연근해에서 주로 어로활동 하다가 차츰 먼 바다로 눈을 돌려 명태바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 방법은 낚시로 이어놓아 잡기와 그물로 어획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면서부터 보다 많은 소득을 올리게 되니 자연 겨울철 해촌이 넉넉한 풍경을 연출하게 된다.

그 후 여러 가지 조건으로 명태어획은 점점 감소되어 급기야 품귀현상으로 되어 아마도 전설의 고기가 될까 염려가 앞서기도 한다. 그러나 그 밖의 어류는 그런대로 얻어질 수는 있겠으나 고장의 많은 포구가 옛날을 벗어나지 못해 종사자는 감소 일로에 있음에 딱 안타까운 마음 들겠다.

### 2) 어종별 어로장면에서

- 명태바리는 실로 한때 영동지방 아니 우리고장의 해촌 수산물 수입원으로서 최고를 차지한 어종이었으





나 근년에 들어 실제 우리고장에서 범선으로 어로하는 경우도 많이 줄었거니와 명태자체도 여러 여건 상 많이 감소할 뿐 아니라 해촌마다 울상을 짓게 하여 새로운 자구책을 요구하고 있다하겠다. 명태는 크기에 따라서 명칭도 다양할 뿐 아니라 건조 또는 쓰임에 따라서 많은 명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peculiar하다. 그리고 명태는 버릴 것 하나도 없고 심지어 애(간)까지도 기름으로 받아 등잔불 등유로서도 한 몫 단단히 한 적도 있겠다. 그리고 낚시에 미끼를 끼워서 잡는 연승법이거나 또 근년에 들어 여러 그물을 이어 잡는 법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하겠다.

- 멸치후리는 지금은 그리 볼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우리고장에서 한 마을에서 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름 피서철 하나의 특별계획으로 이루어져 실제 멸치후리를 통한 주민의 생계와는 거리가 멀고 다만 피서객을 위한 추억만들기 환경조성이라 표현하고 싶겠다. 그 밖에 청어, 정어리가 한때 많이 잡히기도 했으나, 일제때 정어리의 남획으로 지금 흔적 보기란 힘들고 정어리 잡이는 이미 사라졌고 그래도 청어는 그물로 더러 잡아 식탁에 오르는 실정이라 하겠다.
- 창경바리는 연안에서 현재도 하고 있는 형편이겠으나 그전처럼 배들이 나가 조업하는 형편은 아니겠다.
- 오징어잡이는 옛날방식보다는 새 문명에 의한 기동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업하고 있는 실정하겠다.
- 손꽂이잡이는 현재도 가끔 이루어지고 있겠으나, 옛날처럼 재래식 방법에 의한 어로작업은 하고 있지 않다 할 수 있겠다.
- 도루묵잡이는 지금 겨울철에 많이 행해지고 있겠으며 소득도 짝짤한 편이 되겠다.
- 미역, 김 채취도 해촌에서 이루어지고 있겠으나, 특히 김 채취는 일부 마을을 제외하고는 행해지지 않고 있다 하겠다.
- 물고기에 얽힌 전설 또한 있음을 알 수 있게 되는데 명태의 경우 명천에서 사는 태씨성을 가진 어부가 잡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와 눈 어두운 사람이 먹어서 눈이 밝아졌다 해서 붙인 이름이라든지 도루묵 역시 원래 이름으로 되돌렸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겠다.

### 3) 연안어로 작업선

- 범선(돛단배)

보통 길이 13m정도의 배에 돛을 두 개를 달수 있도록 해서 연근해에 나가 어로작업을 하게 되는데 물에서 내릴 때에는 둔대질(괘테를 받쳐놓고)을 해서 배를 띄워 일정한 거리까지는 노를 저으며 나갔다가 그 때 돛

대를 세우고 돛을 올려 바람방향과 바람의 세기를 잘 이용해서 항해하여 어장에 나가 조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작업 장면마다 힘을 보탤 수 있는 갖가지의 소리가 등장해서 일의 수월성을 가져오게 하였다.

또 연안에서는 떼배와 전마선을 이용하여 갖가지 어로작업으로 생업의 기쁨과 슬픔 또한 노래할 수 있게 되었다. 연안 선박은 그 길이가 5m내외밖에 되지 않는 아주 소형이라 할 수 있겠다.

● 어구활용에 대해서는 원시적 방법에서 많은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새로운 도구 개발로 점점 변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는데 옛날 어구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았다.

- 자돌어법 - 찢러잡는 고기잡이 어구
- 궁시어법 - 화살처럼 고기를 향해 쏘아잡는 어구
- 조어법 - 각종 낚시잡이 어구
- 결합식 작살 - 짐승의 뿔, 뼈 등으로 제작된 어구
- 그물어법 - 그물로 한꺼번에 많이 잡는 어구
- 곡조침어법 - 갈고리형 어구
- 직조침어법 - 흘리개, 찌르개형 어구

그밖에 일정한 곳에 그물을 쳐 놓는 방법 등 다양한 것들이 있었다.

### 3. 생활문화

1) 여러 세시풍습 중 영동할머니가 내려온다는 2월 초하루에는 일찍이 영동고사를 가정마다 장독대에 진설해 놓고 풍어 무병장수를 기원하여 봄철 출어에 부푼 꿈을 안게 되고 또 정월대보름날 동네 청장년들이 모여서 가장을 꾸미고 풍물을 치며 집집마다 방문하여 복을 빌면 주인은 답례로 주안상과 곡물 또는 돈을 내놓게된다. 그러면 그날 행사를 마치고나서 수입된 곡물과 돈으로 마을 공동사업기금으로 써 왔다는 미덕은 아직도 전승되고 있겠다.

2) 해촌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마을마다 제당이 다 마련되어 있고 연중행사로 동네마을의 안녕과 풍어 그리고 각 과정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제의행사를 정중히 행하여 오고 있으며 특별히 우리고장에 '동해





신묘'가 설치되어있기에 당시 조정에서 춘추(2월, 8월)로 향축을 내려 제례행사를 행하였던 중요한 위치의 고장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다.

또한 어민들은 오랜 옛날부터 금기사항으로 내려오는 10가지 규제사항도 있었는데 지금도 의연중에 이에 관심을 갖고 있는 현실이라 아니할 수도 없겠다.

3) 어요는 농요와 한가지로 어로작업현장에서 고된 몸에 양약이요 새 힘을 솟게하며 보태는 역할을 아낌없이 하는 무형의 강성이라 하겠다.

그 내용은

- 둔대질 할 때(배 내리고 올리는 과정)
- 바다에서 노를 저을 때
- 그물 내릴 때
- 그물 당길 때
- 그물에 든 고기 풀 때(가래질)
- 돛대를 세우며 돛을 올리고 내릴 때
- 만선이 되어 귀향할 때

이처럼 일정한 곡조에 흥겨워 불러대는 즉흥적 가사 속 어부의 애환이 스며있음을 충분히 알아낼 수도 있겠다.

4) 수산물의 유통과정을 살펴보면 옛날에는 필요에 의해 물물교환 형식으로 일정곳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장이 열리게 되었고 또는 생산품을 직접 이고 지고 해서 이웃마을로 가서 소위 '바꿈이' 방법으로 필요를 충족하였다는 방법을 알 수 있겠고 이곳 우리고장에서 아직 5일 장이 3곳에서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적고 싶다.

## B. 오늘의 해촌

1. 오산리 선사문화유적 속에서 원양양인의 어로 생활사를 볼 수 있는 궁지 높고 뿌리깊은 고장이라 하겠다.
2. 다소 규모가 크고 정비된 인근 시 지역의 항포구로 발전이 둔화 된다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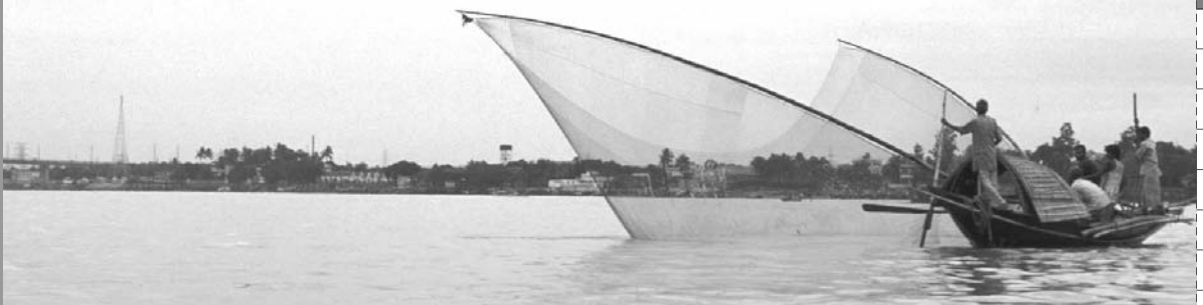
3. 국가지정 어항인 수산, 남애가 있기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지속된다면 시범적 해촌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고장이라 하겠다.
4. 연근해 어장 개발과 확보로 짝짤한 소득을 올리는 고장이라 할 수 있겠다.
5. 피서철 많은 인파가 오는 고장이라 할 수 있겠다.

### C. 미래의 해촌

1. 선사문화유적을 바탕으로 새로운 해촌개발의 잠재력을 살린다면 이상해촌 건설이 가능한 고장이 될 것이다.
2. 해촌의 신화, 전설 그리고 어로문화의 정선으로 교육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아름다운 해촌을 꿈꾸는 고장으로 될 것이다.
3. 해촌의 건설을 위해 의식의 변화를 꾀함에 있어
  - 지켜야할 일
  - 되살려야할 일
  - 만들고 다듬어야할 일을 단독이 아니라 공동 집단사고에 의해 창출하여 관계기관의 조언과 지도 속에 보다 일체감 조성으로 정진한다면 으뜸고장으로 분명 변모되리라 믿는다.
4. 그러면서 조화로운 자원활용을 제시해본다.
  - 경관자원 : 승지, 해수욕장 개발
  - 문화자원 : 선사문화유적 활용
  - 생업자원 : 새로운 어업방법의 모색

### D. 맺는 말

무한히 산재되어 있는 유무형의 문화적 가치성을 재정비하여 자존의식을 강화한다면 분명 역사의 거둬드는 명멸 속에서 살아남는 향토사회 정신문화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자료수집 방법 졸속, 정선하는 기법의 부족으로 소기의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자인합니다만 다만 하나의 분명한 계기를 제공되었다보면서 앞으로 꾸준한 노력으로 완성의 그 날을 상상한다. 그러면서 굳이 문화를 말하라고 한





다면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한다」라는 어느 문구를 떠올리면서 마침표를 찍는다.

참고문헌

강원도	강원도사(역사, 전통문화편)	춘천 강원일보사출판국	1996
강원도	강원어촌지역 전설 민속지	서울 국학자료원	1995
강원도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춘천 산책출판사	2001
김종서	고조선 제국사	서울 도서출판 민족문화	2001
양양군	양양군 통계연보	양양 양양군	2007
양양군	양주지	춘천 강원일보사 출판국	1990
양양군교육청	향토지	삼화인쇄사	1968
양양문화원	동북아시아속의 오산리	대양출판사	1997
한국선사 고고학회	신석기문화의 위치		
윤명철	한민족의 해양활동과 동아지중해	서울 학연문화사	2002
이승철	동해안의 어촌신화	서울 눈빛한소리	2006
이재풍	양양시가의 배경과 교훈적 시문정선	양양 제일인쇄사	2002
해양수산부	한국의 해양문화	서울 경인문화사	2002

도유형문화재 제33호

# 낙산사 홍예문

편집실

**낙**산사의 문루(門樓)인 홍예문은 조선 세조 12년(1466) 왕이 낙산사에 행차하여 사찰을 중수하고 이 홍예문을 건립하였다고 하며 홍예는 당시 강원도의 고을 수에 맞추어 26개의 홍예석을 써서 조성하였다고 전해온다.

홍예 위의 누각은 1962년 건립한 것으로 門樓 좌우의 자연적 지형을 이용하여 홍예석 주위에 자연석을 쌓고 그 위에 문루를 세운것이 아주 특이하다. 누각은 2005년 산불로 소실되었으며, 현재 복원되었다.



〈산불소실전사진〉



〈복원된 사진〉

## 竹島의 절구바위

편 집 실

縣南面 仁邱里 바로 앞에 竹島라고 부르는 山峰이 바닷가에 우뚝 솟아 있다. 이 산을 竹島라고 부르는 것은 산 도처에 키가 작은 대나무가 우거져 있는 탓으로 竹島라고 하기는 하나 지금은 섬은 아니고 峰의 서쪽脈은 해변은 백사장과 이어져 있다.

이 죽도 동쪽 해안은 큰 바위로만 되어 있고, 이 바위 중에 가운데가 파여 절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옛날에 마고 할미가 上帝를 섬기고 있을때 上帝가 마음 먹은 일이면 무엇이든지 이룩되는 上帝의 灌能이 부러워 불가능이 없는 上帝의 권능이 어디에서 생기는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날 上帝가 큰 일을 계획해 놓고는 밀실에 들어가 큰 공만한 둥근 돌로 열심히 바위를 갈아 끝내는 그 바위에 구멍을 내놓고는 그 다음날 계획했던 일을 착수하여 무서운 권능으로 그 일을 달성하는 것을 알고는 上帝의 不尙思議한 기능이 어디에서 생기나 했더니 바로 저 둥근 돌에서 생기는구나 내가 저 돌을 훔쳐가지고 인간세상에 내려가면 모든 세상을 통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며칠뒤 上帝가 없는 틈을 타서 그 돌을 훔쳐가지고 인간세상에 내려왔다. 막상 오기는 했으나 아무데서나 갈다가 혹 사람의 눈에 띄기라도 한다면 上帝에게 다시 잡혀가 벌을 받을 것이니 돌을 갈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 사람 없는 산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밀돌도 마땅치 않은데다가 가는 소리가 커서 사람들에게 들리기가 쉬웠으므로 인적이 드문 바닷가에서 밀돌을 구하여 갈기로 하고 해안선을 따라 장소를 물색하다가 이곳 竹島에 와 보니 섬이어서 거의 인적이 없는 데다 대숲이 우거져 있어 사람에게 발견될 염려가 적고 이곳은 沙場이 아니어서 항상 파도가 바윗돌에 부딪쳐 요란한 소리가 나므로 돌 가는 소리가 파도 소리 때문에 멀리

가지도 없거니와 소리가 난다 해도 동네 사람들은 파도 소리거나 생각할 것이니 돌 가는 소리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 좋은데다가 밑돌 할만한돌이 얼마든지 있어 여러모로 안성맞춤이었다. 야심에 찬 마고할미는 그 바위 중에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 갈기 시작했다. 며칠이 걸려 바위 하나를 구유처럼 갈아 이제 겨우 끝나게 되었을때 갑자기 바다가 거칠어지며 파도가 거세게 일어 물결이 마고할미가 일하고 있는 작업장까지 쳐들어와 작업도 할 수 없거니와 갈아놓은 밑돌 구멍에 물이 가득 차 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며칠을 기다려 보아도 물결은 자지 아니하고 上帝가 잡으려 올것같은 조바심이 나기에 거의 끝을 보게된 돌을 버리기는 아까우나 그렇다하여 무작정 파도가 잘 때를 기다릴 수 없어 파도가 미치지 아니하는 위쪽에 있는 돌을 다시 갈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돌도 거의다 갈아 끝을 보게될 무렵 다시 파도가 일어 이 돌 있는 데까지 물결이 쳐왔으므로 또 작업을 중단아니 할 수 없었다. 작업을 중단한 채 물결 잘때를 기다렸으나 전혀 잔잔해질 기색이 없었으므로 다시 위쪽으로 자리를 옮겨 다른 돌을 골라 갈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또 전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 다시 자리를 옮기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번 옮기다 보니 돌 하나도 끝을 맺지 못한채 上帝에게서 흠쳐온 둥근 돌이 다 닳아 쓸수 없게 되어 마고할미의 계획은 좌절되고 말았다. 지금 죽도 동쪽 바닷가에는 구유나 절구처럼 구멍이 파여있는 돌이 여러개 흩어져 있는데 이 돌들은 다 이때에 마고할미가 갈다가 파도 때문에 끝을 보지 못하고 중단하여 버려놓은 돌들이라고 한다. 오랫동안 물결이 거세게 쳐서 갈다 던져둔 이 돌들이 물결의 힘으로 마멸이 되어 구멍이 나면 반드시 社會에 큰 번고가 생긴다고 하여 옛날에는 이곳 사람들은 사회의 큰 이변이 있을 기미가 보이면 竹島에 와서 이 돌에 구멍의 상태를 살펴 이변을 예측했다고 한다. 國內에서도 兵亂이 일어났을 때에 이곳 돌에 구멍이 났으며 피난짐을 써서 산중으로 피난을 가고 外兵이 쳐들어 온다는 風聞이 돌고 이곳 돌에 구멍이 나지아니하면 재앙이 이곳까지 미치지 아니할것이라고 평상시와 같이 생활한다고 한다. 마고할미의 야심에서런 장난이 끝내는 이곳 사람들에게 재앙을 점치게 하여 옛날에는 이곳 서낭당 祭때면 곁들여 마고할미 祭까지 지냈다고 한다.



양양문화원장 양 동 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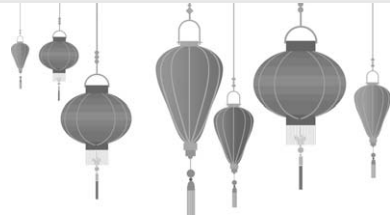
중국의 호북성 양양현과 자매결연을 맺은지 10년이 되는 2008년 11월 6일 이진호 양양군수 외 10명의 양양군 교류사절단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필자도 영광스럽게 일행과 동행하게 되어 매우 감회가 깊었다.

중국호북성양변시양양구인민정부 우호교류 10주년 기념행사방문내용  
(中國湖北省襄樊市襄陽區人民政府 友好交流 10週年 記念行事訪問內容)

1. 방문기간 : 2008년 11월 6일(목)부터 11월 10일(월) 까지 4박 5일간
2. 방문교류사절단 : 11명

양양군수	이진호
양양군의회의장	김준식
강원도의회의원	임용식
양양문화원장	양동창
농협양양군지부장	김철래

강원일보주재기자      박기용  
 경제도시과장          김진하  
 보건소장                김선택 외 수행원 3명



### 3. 방문목적

- 우호교류 10주년 기념행사
- 기타 우호교류 협력관계 협의 등

2008년 11월 6일(목) 오후 2시 양양을 출발하여 밤 9시 30분에 인천 공항을 이륙하여 3시간에 걸친 비행을 한 후 중국과 우리나라의 시차가 1시간이므로 중국 현지시간 밤 10시30분에 중국 호북성 무한 공항에 도착 입국 수속을 마치고 홀리데인 호텔에서 여장을 풀었다.

10년 전에는 김포국제공항에서 북경국제공항을 거쳐 국내선인 양변공항에 도착하여 승용차로 양양 현을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무한(武漢)에서 하루 밤을 보내고 관광버스로 세 시간 동안 의십 고속도로(議十高速公路)를 달려 양양 구를 방문하게 되었다.

11월 7일 아침에 일어나니 비가 내리고 있었다. 현지가이드 이용남이 무한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를 해 주었다. 그 중에 무한 사람들은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고 말이 많다고 하는데 심지어 자동차 넘버 앞 글자가 입구 자가 두 개가 있는 악(鄂)자를 쓴다고 하였다.



상견례 (2008.11.7)

창밖으로 거리의 풍경을 보니 자전거, 오토바이로 출근하거나 다니는 사람이 많았는데 자전거와 1인승 오토바이, 2인승 오토바이가 눈에 많이 띠는데 비가오기 때문에 우비를 착용한 모습이 이색적 이었다. 우비를 핸들 앞까지 덮고 2인용 오토바이는 2인용 우비를 쓰고 있는 것이 매우 정겨웠다.

기후가 온난하여 눈에서 벼를 이모작 한다는데 들판에는 수확한 눈과 수확하지 않은 눈의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있었다.



다시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중국 사람은 평생 자기나라 땅 다 밟아보지 못하고, 자기네 요리 다 먹어보지 못하고, 자기나라 말 다 못 배우고(못하고) 죽는다고 한다.

오전 11시 30분에 양양 구에 도착하니 여러분이 나와 영접해 주었다.



오찬 (2008.11.7)

우리 일행이 방문하는 곳마다 열열히 환영한다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었다.

숙소를 배정 받고 여장을 풀고 나서 양양구 인민정부 왕군(王軍)부장이 환영 오찬을 베풀어 주었다. 오찬에 앞서 환영사와 양양군수의 답사를 주고받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오찬을 즐겼다.

오후 2시 20분 공식행사인 기념식수를 하였는데

기념수는 개화나무(중국에서는 계수나무를 개화나무라고 함)로서 가지가 2개

뚝같이 곧게 뻗은 나무를 골라서 양국의 우의를 상징하고, 10월에 꽃이 피기 때문에 교류의 뜻을 더욱 깊고 영원한 의미를 부여하였다고 했다.

표지석에는

記念中韓兩襄陽建立友好關係十週年

友誼樹

大韓民國江原道襄陽郡廳 中國湖北省襄樊市襄陽區人民政府

2008年十一月七日

이라고 새겼다.

기념식수를 마치고 양양구 제1고교를 방문하기 위하여 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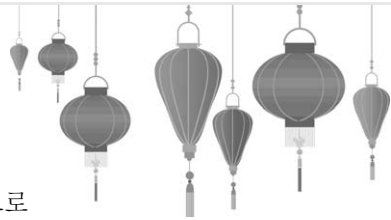
10년전 양양현과의 교류를 계획할 당시를 회고하면 필자가 양양군청에 재직 중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제일물산 양양출신 정인화 사장님께서 당시 오인택 양양군수님에게 우리 양양군의 지명이 중국의 양양에서 연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호 교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의함으로써 이를 받아들여 1998년 7월 26일부터 교류하게 되었는데

양양의 명칭은 “한서지리지 완벽국사 대사전 기구회첩(漢書地理志 完璧國史 大辭典 耆舊會帖)”에 의하면

{1416년(태종 16년) 비로서 襄陽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양양이란 본래 중국 호북성 한수연안(漢水沿岸)에 있는 지명으로서 아름다운 자연과 지리적 환경이 양양과 유사하고 사람들의 품성(稟性) 또한 자연의 섭리(攝理)에 감모(感慕)하는 기개(氣概)가 잠재하여 사대부의 문헌(文獻)이 찬란하고 풍습이 선미(善美)하여 다른 고을 보다 더 훌륭함으로 양양이라 명칭 하였다 고 전하고 있으며 이곳 현산(峴山), 한수(漢水)[남대천], 무산(巫山), 휘문(麾門)[林泉], 태평루(太平樓) 등의 명칭도 중국 양양의 명칭에 연유(緣由)되었다고 전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최초의 교류 시작은 여러 차례 실무적인 절차를 거쳐 1998년 7월 26일부터 7월 29일 까지 4일간에 걸쳐 중국 양양현의 부원장외 6명이 우리 군을 먼저 방문하게 되었으며



기념식수 (2008.11.7)



제일 고교 방문 (2008.11.7)



우리 군에서는 1998년 11월 8일부터 11월 11일 까지 오인택 양양군수 외 8명이 방문하여 “상호 공동발전을 위한 국제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물론 상호 교류를 제안 하셨던 정인화 사장님도 동행하셨다.

그 당시 중국에서는 1994년부터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개혁개방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기였는데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인건비등 생산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으로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시기였다. 정인화 사장님은 양양현의 여건을 보고 회사이전을 염두에 두면서 양양 현을 방문하였으나 교통의 불편과 물류이동이 여의치 않아 이미 청도(靑島)에 진출해 있던 남애전자를 인천의 제일 물산과 연계하여 사업을 크게 번창시켜 현지에서 중국정부로부터 많은 각광을 받았으나 지금은 고령으로 은퇴하고 서울에서 노후를 보내시고 있으며 항상 고향을 잊지 않고 후원해 주시고 계신다.

그 후 양 정부는 매년 상호 교류가 계속되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로 농업, 보건, 관광 교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때와 비교하여 보면 당시 중국의 양양현은 아주 초라한 농촌이 대부분이고 집에서 돼지를 들어 내 놓고 키우는 광경도 보였으며 진흙 밭에 버드나무를 심어 바구니 등 생활용구를 만들어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것을 견학시켜 주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60년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방문단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 할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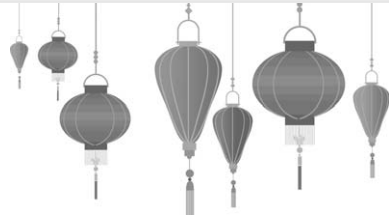
그러나 이번 방문 시 분위기는 세월이 많이 흐른 탓도 있겠지만 2008년 8월에 열린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엄청난 발전을 가져온 것 같았으며 중국 전역이 화장실을 정비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었으며 곳곳에서 개발의 붐이 일고 있었다.

주택 건축에서 부터 마을정비, 상가정비, 도로개설, 학교시설 개선, 공원조성, 관광 유적지 정비 등 어느 곳 할 것 없이 공사를 끊임없이 하고 있었으며 설 사이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양양 구 제1고교에 도착하니 학교 내는 공사 중으로 어수선했으나 학생 수는 80개 반에 5,000명이고 전교생이 기숙사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방문 후 교장 선생님과 선물을 주고받고 시설을 둘러보던 중 교실 벽면에 타일로 중국 주변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어 교장 선생님에게 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교장 선생은 검토해보겠다고 하였으나 난색을 표했다.

귀국 후 동행했던 강원일보 박기용 기자가 2008년 11월 12일(수)자로 강원일보에 다음과 같이 보도 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을 소개한다.



#### 〈기사 내용〉

“잘못된 일본해 표기 바꿔 주세요”

-양양군 교류 학교 중(中) 양양 구 제1고교 지도에 동해 잘못 표기-

-현지 방문 중인 군 교류사절단, 한국 영토 사실적 교육 당부-

양양군과 10년째 교류를 하고 있는 중국 양변 시 양양 구 제1고등학교 벽면에 타일로 설치된 대형 중국 주변 지도에 우리의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돼 양양군이 이에 대한 수정을 요청했다.

지난 7일 교류 10주년 행사 차 중국 양양 구를 방문한 교류사절단은 현지 제1고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해를 삭제하고 동해로 표기해 줄 것을 요청한데 이어 독도 등 한국 영토에 대한 사실적 교육을 주문했다.

현지 동포 졸업생에 따르면 중국 대부분의 학교가 한국의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로 교육하고 있다며 일본해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중국은 상하이 동쪽의 바다를 동해로 표시하고 있어 한국의 동해 표기 보다는 한국해로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양 구 제1고교 관계자는 “검토해 보겠지만 학교 측이 단독으로 결정 할 사안이 아니다.”며 “상부기관에 보고해 변경여부를 결정하겠다.” 고 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당장표기가 변경될 것으로 보지는 않지 만 교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청 할 계획이다.”며 “변경 표기가 불가 할 경우 일본해의 명칭을 삭제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고 했다. (지도사진 생략) 양양=박기용 기자.

제1고교 방문을 마치고 양양구의 내륙지방 건재 시장인 “화중광채 대 시장(華中光彩大市場)”을 둘러보고, 다음 탐방지로 이동 중 차중에서 가이드가 양변시에 대한 소개를 하여 주었다.

10년 전에는 양양 현이었는데 2001년 12월 양변시 양양구로 행정 체제가 개편되었다고 한다.



“양변시는 양양성과 변성을 합쳐서 양변시가 되었으며 한강 남쪽은 양양성 북쪽은 변성이라고 한다.

양변시의 세 가지 보배는 두부면, 식혜, 술 인데, 바퀴가 세 개인 인력거가 유명하다고 한다.

삼국지의 중심 배경지이고 재갈 량이 살던 곳이 관광 명승지 문화재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인구는 580만 명이라고 한다.

양양 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은 우리군의 네 배인 2,306 평방키로 미터이고 그 중 경지 면적은 130,000 헥타르 이다.

인구는 100만 명이 조금 넘으며 호북성 서북부 양자강의 최대 지류인 한수의 중류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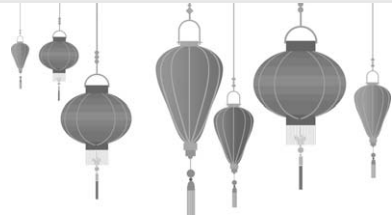
기후는 아열대 습한 계절풍 기후로 분지의 특성상 여름엔 무덥고 겨울엔 춥다고 한다.

농업은 밀, 벼, 면화, 깨, 옥수수 등이 주요 곡종을 이루고 호북성 내에서 최고의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다고 한다.



제갈공명 공원 동상

19,000여개의 중소기업의 공업기반으로 방직업, 의류업, 화공업이 발달해 있으며, 외국 자본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공장도 유치되었고, 소, 돼지의 가축사료 생산체계가 잘 정비되어있다고 한다.



관광자원으로는 녹문사와 국가급 관리의 산림공원과 제갈량의 사당이 위치하고 있다.”고 하였다.

다음에 도착한 곳은 2001년에 새로 조성했다는 제갈량 광장 공원이었다.

양번시에서 제일 큰 광장이며 실물의 열두 배 크기의 제갈량 동상이 우뚝 서 있었다.

제갈량은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모신(謨臣)이다 자는 공명(孔明)이며 와룡(臥龍), 복룡(伏龍)으로도 불렸다.

제갈량은 산둥 성 사람이며 181년에 낭야 군의 지방관이었던 제갈 규(諸葛 珪)의 둘째아들로 태어나 14살에 양친을 여의어 한동안 백부 제갈 현이 예장에서 제갈량을 돌보았다고 한다. 제갈 현이 죽자 형주로 온 제갈량은 스스로 농사를 하고 양보음이라는 노래를 즐겨 불렀다고 하는데 당시 형주는 난세를 피해온 명망 높은 선비들이 많았는데 제갈량은 이들과 교류를 하면서 인맥을 넓히고 지식을 쌓았다. 당시 유비도 여남에서 조조에게 패한 후 유표에게 의탁하고 있었는데 제갈량에 대한



제갈량의 성지 古隆中

소문을 듣고 삼고의 예를 하여 결국 제갈량을 영입하게 되었는데 이때 제갈량이 유비에게 제안한 계획이 그 유명한 “천하삼분 지계”이다. 제갈량은 양번시에 와서 10년 동안 살았다고 한다.

제갈량의 광장을 뒤로하고 제갈량의 성지인 고룡중(古隆中)을 탐방하게 되었다.

제갈량의 은거지로 해발 306미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6년 11월에 “전국중점문화보호단위(全國重點文物保護單位)”로 지정공포 된 곳이라고 안내되어 있었다. 입구에 들어서니 역시 경내 정비공사가 한창이었다. 작업광경은 대부분 인력으로 하고 있었으며 어설픈게 보였다.



사당으로 들어가는 어구에 머리는 용, 몸은 봉황, 등은 거북, 독수리 발을 한 초려비(草廬碑)(뒷면에 龍臥處라 새겨있었음)가 신기하였다.

와룡 유지(臥龍遺址)에도 제갈량 동상이 있는데 여기 동상의 크기는 실물의 두 배로서 “한제갈승상무후사(漢諸葛丞相武侯祠)”라 새겨져 있다.

삼고유적(三顧遺跡)이 있고 도원결의를 맺은 장면을 재연한 삼의전(三義殿)이 있는데 뜰에는 말배나무 세그루가 있고 영화 촬영 세트장이 있어 년 중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만찬장 (2008. 11. 7)

고룡중 탐방을 마치고 용화 공업지구(자동차생산), 신천공업지구(자동차부품생산)의 견학을 끝으로 탐방 및 견학 일정을 마치고 저녁 6시 양양구 당서기장이 주최하는 공식 만찬이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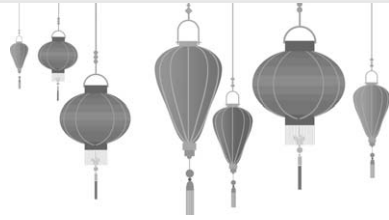
만찬은 개회 선언에 이어 참석인사 소개가 있었는데 양양구 참석인사는 당서기장이 소개하고 우리군 사절단은 이진호 군수가 소개를 하였다.

참석인사 소개가 끝난 후 “교류단의 방문을 환영하고 앞으로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자”는 왕군 부장의 환영사에 이어 “우리 교류 단 일행을 열렬히 환영하여 주신대 대하여 교류 단을 대표하여 감사

드리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양정부의 발전을 도모  
해 나가자”는 이진호 군수의 답사를 마치고,

양국 간의 우의를 다짐하는 기념품을 교환하였으며  
상호 대표의 건배로 흥겨운 만찬이 무르익었다.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 도중 우리군의 숙원 사업인 케이블카  
(로프웨이)의 필요성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설치반대 이론에 대응하기 위하여 장가계 5경구의 황석채삭



천문선산 정상 삭도 (케이블카)

도(黃石寨索道)를 시찰하였다.

삭도의 거리는 1,200미터이고 1기당 50명이 탑승 할 수 있는 대형 케이블카 였으며 자연훼손도  
없었으며 자연경관 훼손 보다는 자연 보존에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길다는 천문선산(天門仙山)의 6인승 케이블카를 탑승하여 보았는데 해발  
1,500미터 까지 연결되어 있었으며 거리는 7,500미터이고 운행 시간은 평균 35분이 소요되었고 삭  
도가 주택 위를 지나 천문선산에 이르는 시설인데 지붕 위를 상당한 거리를 지나면서도 추락방지 등  
의 안전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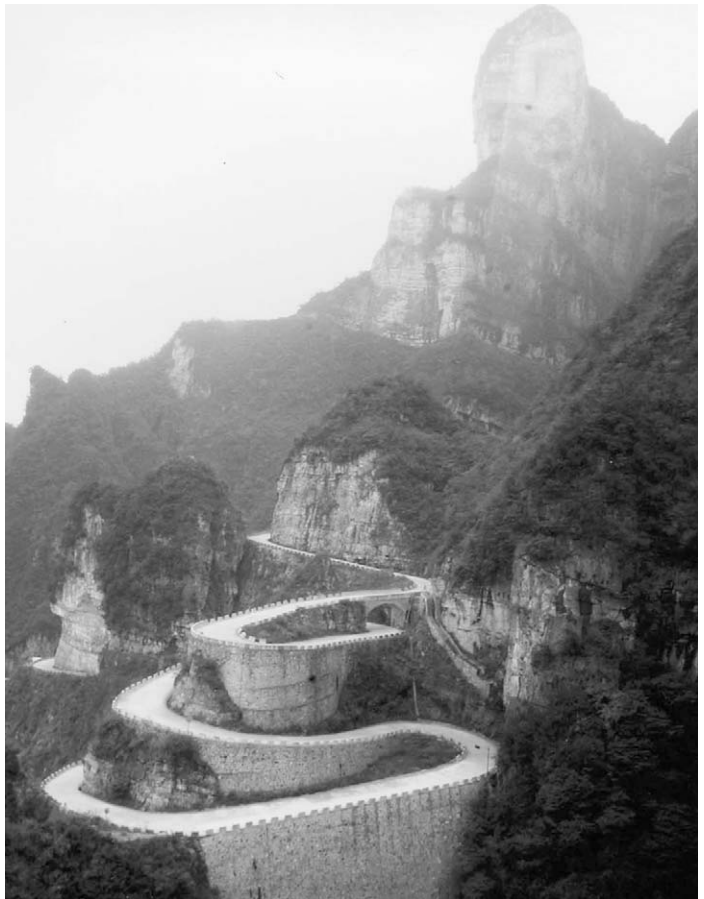
정상에 오르는 도중 주위의 경관이 장관을 이루었으며 삭도 중간 역에서 천문으로 가는 셔틀버스



를 운  
행  
하고  
있  
었  
는  
데  
절  
벽  
위  
를  
달  
리

는 버스가 아슬아슬하였다.

천문선산에는 두 개의 삭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지상에서 산 정상까지 운행하는 6인승 케이블카이고 하나는 천문산 정상에서 짜릿짜릿한 절벽의 귀곡잔도(鬼谷棧道)를 지나 천문사(天門寺)에 가면 여기에서 정상까지 운행하는 2인용 리프트용 삭도가 있어 탐방객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되어 있었다. 2008년 11월 10일 (월) 4박 5일의 일정을 마치고 중국 장사 공항을 출발 인천공항에 도착 육로로 귀향 하였다.



천문 운행서틀버스 운행도로

이번 중국 양양구의 방문을 마치고 느낀 소감은

상호 교류를 통해 우리의 기업이 진출하지는 못하였지만 관광 문화 교류, 농업기술교류를 통해 중국의 문물을 조금이나마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는 것이 보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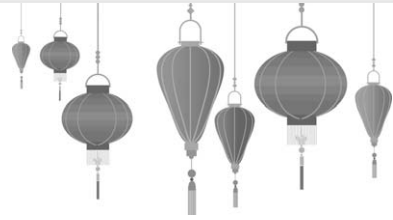
한편 매년 상호 공무원 교환 근무를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앞으로 중국의 개혁 개방에 참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중국의 역사와 지리교육에 있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인식시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다든지 동북공정에 대한 잘못된 역사의식을 바로 세워 나가야 하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게 되었다.





천문선산 석도 주택위로 설치



귀국 후 로프웨이 설치에 대한 찬성 반대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진호 군수께서 주제 발표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2008년 12월 19일 환경부로부터 자연공원 내 로프웨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기존 탐방로나 도로의 제한 내지 폐지를 유도할 수 있는 지역과 자연 친화적 공원 환경조성에 기여 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주요 경관을 조망 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당해공원의 대표적 상징성을 지닌 주봉(主峰)을 피해 설치하는 등 주요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설악산~오색 로프웨이 설치 사업이 2009년부

터 탄력을 받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다행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다.

앞으로 양 정부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양 정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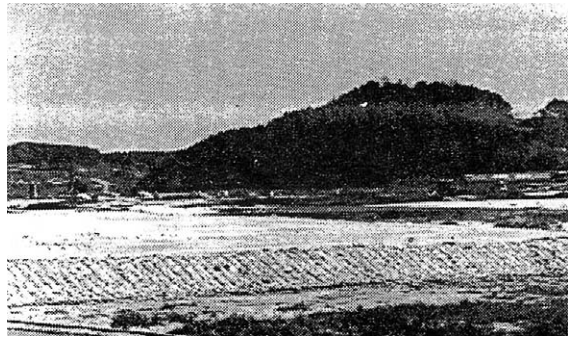


천문사에서 천문산정상운행 2인용 슬러프

# 古月山

편집실

읍 동쪽 2km의 지점이며 本面 북부 松峴里 뒷산인데 일명 孤月이라고도 한다. 東은 망망한 萬里滄海를 바라보고, 南은 동서평야가 전개하였으며 西는 峴山이 마주하고, 北은 관동팔경의 첫째를 자랑하는 洛山寺가 바라보인다. 영봉 雪嶽이 南大川 머리에서 어깨를 솟아 中天에 높이



있고 北走하는 五臺長脈이 龍을 둘러 一舉支脈이 동으로 흐르다가 巍然히 돌기하였으니 청속한 산세가 태고성을 가진 승지이며 지금까지 소개 한곳이 古月山이다. 산형이 丹雘하여 마치 一輪明月이 東天에서 솟아 오르는 듯 古月이니, 脈月이니 하는 칭호를 얻으리만치 방불한 천연의 자태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韓國산천은 대개 지리적관계로 해서 中國과 유사한 곳이 많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襄陽도 역시 지형이 흡사한 것을 東讚해서 지명을 같이한 것으로서 峴山이니, 古月山이니, 漢水니 하는 산천까지도 中國襄陽의 위치와 勝狀을 모방한 것이다. 그러면 누구나 이 古月山에 올라서서 襄陽邑內를 굽어보면 峴山을 바라보게 될 때 글에서만 보던 萬里中原의 佳麗한 勝狀을 實査하는감이 없지 않을 것이다. 서쪽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一幅長江의 漢水가 굽이쳐 산허리를 싸서 안고 柯坪川을 지나 동해로 유입하니 물굽이치는 곳이 바로 똑갑 沼다. 이 똑까비 沼라 이름하기 까지에는 여러 가지 웃음거리와 같은 유래와 전설도 많으나 너무 허황하기에 略한다.

19세기까지는 여름철 한발이 심하면 산위에 올라가서 東海神에게 기우제를 지내는 등 이 산의 영험을 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해안을 통하는 南川橋의 八道鐵道の 두 교량은 嶺東의 최대 가설로써 이 산을 가운데 두고 아래로 위로 놓여 있고 바다와 같은 한강물이 만폭의 緋緞를 펼쳐 놓은 듯 綺麗하고 담백하여 소리없이 흘러가니 마치 은하수에 따라 오작교를 바라보는 듯 天京上界가 분명하다. 山上이 평탄하여 가히 수백명의 團座를 열어놓았으니 春花秋月에 佳人才子들의 靑絲玉壺와 錦囊詩郎의 왕래가 끊이지 않음은 用之不竭하고 取之無禁하는 天古風月の 주인공으로서 천연적인 조건을 부여하였거니와 맑은 가을 밤에 半輪孤月の 밝은 그림자가 襄陽全景을 휩싸고 南江물을 따라 흘러가니 蛾眉山月半輪秋 影入平羌江水流란 蛾眉山을 읊은 古詩가 이 산의 야경을 그대로 그려놓은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같은 고요한 달밤에 풀밭에 앉아 꽃가지를 휘어잡고 한잔술을 마시려니 連昌驛에서 떠나는 기적소리는 遷客騷人이 그 누구냐. 離情千里의 향수를 자아내고 太平樓에서 들려오는 은은한 洞笛소리는 태평성대를 자랑할 때, 誰家玉笛喧飛聲 散入東風滿洛城(늬의 집 옥통소 들려오는 소리가 동풍을 쫓아 낙성에 가득하도다) “洛城”이 아니고 “襄城”이 아닌가 한다.

## 한시

편집실

詩協風雅(第14號 出品作2008年2月)

詩題：秋盡江山滿霜葉

次上 又泉 李鍾寓

秋盡高空最碧清  
 霜宵皓月倍光生  
 朝暎照壑優楓色  
 夕景穿雲惻雁聲  
 披卷燈挑吟學士  
 投鎌露積樂農氓  
 江山灑落眞紅繡  
 探勝人波錦帳成

늦가을의 고공은 가장 푸르고 맑은데  
 밤 서리에 밝은 달은 무척이나 밝구나.  
 아침 해 비친 언덕 단풍은 우아하고  
 초저녁 구름아래 기러기는 처량하네.  
 책을 펴고 등 밝히고 학자는 읊조리고  
 낫을 놓고 노적 쌓고 농민은 기뻐하네.  
 진홍색의 수를 놓은 쇠락한 강산을  
 탐승하는 인파로 금장을 이루누나

詩協風雅(第14號 出品作2008年2月)

詩題：秋盡江山滿霜葉

參榜 桂堂 金慶一

秋盡涼天氣象清  
 江山灑落勝情生  
 霜侵砌下悽蛩咽  
 月透雲邊遠雁聲  
 釣渚竿垂愉漁叟  
 農村露積悅耕氓  
 錦楓丹壑吾招誘  
 探賞人波大海成

가을 다한 서늘한 하늘 기상이 맑으니  
 강산은 쇠락한데 승정이 생기네  
 서리 내린 뜰아래 귀뚜라미 소리 처량하고  
 달 밝은 구름가의 기러기 소리 멀어지네  
 대 늘인 낚시터엔 늙은 어부 즐겁고  
 노적 쌓은 농촌은 농민이 기뻐하네  
 금풍 단학이 우리를 불러오니  
 탐상 인파로 대해를 이루노라

漢詩協會主催全國漢詩白日場(2008年6월)

詩題：制憲六十週年回顧

入選 又泉 李鍾寓

興邦制憲未來祥  
六十年纔國會光  
議政危機眞克服  
統治正道復宣揚  
湯追廣濟民生樂  
禹鑑平章産業昌  
燭火示威搖秩序  
九疇雅度孰遺忘

나라 세워 헌법제정 미래가 상서하니  
육십 주년 맞이하여 국회가 빛났었네.  
의정의 위기를 참되게 극복하고  
통치의 정도를 새롭게 선양했네.  
商湯王을 생각하며 널리 세상을 구제하니 민생의 낙원이요  
夏禹王을 거울삼아 공평하게 잘 다스리니 산업이 창성했네.  
촛불 시위대가 질서를 혼드니  
구주의 바른 법도 누가 잊었나.

漢詩協會主催全國漢詩白日場(2008年6월)

詩題：制憲六十週年回顧

入選 南岡 梁東昌

肇國歡天樹紀祥  
弘宣制憲照神光  
堂堂民主三權確  
歷歷條文六法揚  
盛世興懷清世關  
弊風掃蕩美風昌  
現時議政遊何處  
六十年華顧不忘

건국을 기뻐하며 상서로운 기원을 세우고서  
제헌을 널리 선포하니 신묘한 빛이 비쳤네.  
당당한 민주의 삼권이 굳어졌고  
역력한 조문의 육법이 들어났네.  
성세를 품었으니 태평세상 열렸고  
폐풍을 소탕하니 미풍이 창성했네.  
현재의 의정은 어느 곳서 놀아나나?  
육십년 세월을 잊지 않고 돌아보네

漢詩協會主催全國漢詩白日場(2008年6월)

詩題：制憲六十週年回顧

入選 桂堂 金慶一

重明喜地紀元祥  
六十週年制憲光  
民主風來天下燠  
國基鶴立域中揚  
經文盛世邦治效  
煙月康衢日益昌  
人本尊崇遵秩序  
九疇雅道莫輕忘

중명 희지에 기원이 상서하니  
육십 주년의 제헌절 빛나도다.  
민주의 바람 불어 천하가 따스하고  
國基가 우뚝 서니 세계에 드날렸네.  
나라 정치에 힘입어 경문성세 이룩되고  
날로 창성하여지니 태평한 세월 맛았네.  
인본을 존경 숭배하고 질서를 준수하면서  
구주 대법의 바른 길을 가벼이 잊지 말자.

漢詩協會主催全國漢詩白日場(2008年6월)

詩題：制憲六十週年回顧

入選 道巖 金榮奎

重明權域蓋嘉祥  
六十週年憲節光  
道義蘇生仁里設  
倫綱回復德門揚  
歡天當代家家慶  
喜地只今處處昌  
與野拔河看亂脈  
寒心政局本源忘

다시 밝은 우리나라 상서가 드리우고  
육십 주년 제헌절은 빛나기도 하여라.  
도위가 소생하여 아름다운 마을 세워졌고  
윤리가 회복되어 적선하는 집안 나타났네.  
환천의 당시는 집집이 경사였고  
희지의 지금은 곳곳이 창락하네.  
여야는 줄다리기 난맥상을 보이고  
한심스런 정국은 근본을 잊었구나.

漢詩協會主催全國漢詩白日場(2008年6월)

詩題：制憲六十週年回顧

入選 笑海 朴文熙

六十年華制憲祥  
三權分立變和光  
紀綱確固國安定  
法治公平民讚揚  
先進自由旗幟舉  
後從福祉槿鄉昌  
大中志向賦青史  
清世基盤豈敢忘

육십 주년 제헌이 상서로워  
삼권 분립하니 그 빛이 조화롭네  
기강이 확고하고 나라가 안정되고  
공평한 법치 질서 백성이 찬양일세  
선진하는 자유의 가치를 높이 드니  
뒤따른 복지사회 온 나라 아름답네  
지향하는 바른 법도 청사에 빛나는  
청세의 이 기반을 감히 잊으리

漢詩協會主催 全國 現場白日場(2008.8.30)

詩題：仲秋佳節

佳作 桂堂 金慶一

仲秋佳節快晴辰  
氣爽神清興趣新  
水碧長江回雁浦  
楓蒸萬壑賞人隣  
黃禾四野搖和浪  
紅果千園染化旻  
熟歲高穹肥槿域  
省楸崇祖美風伸

중추 가절은 날씨가 쾌청하고  
기운 상쾌하고 정신 맑아 흥취가 새롭네  
수정 같은 강 포구에는 기러기 돌아오고  
단풍드는 만학엔 구경꾼이 이웃하도다  
벼 익은 들에는 금 물결이 일렁이고  
과수원엔 붉은 과일 하늘을 물드리네  
풍년이라 하늘은 높고 근역은 살찌고  
조상 숭배 성묘하는 미풍이 퍼지네

漢詩協會主催 全國 現場白日場(2008.8.30)

詩題：仲秋佳節

佳作 道巖 金榮奎

仲秋佳節好期辰	중추 가절 좋은 때이구나
滿月光明夜景新	둥근 달 밝게 빛나니 야경이 새롭구나
雨順風調豐溢庫	우순풍조하여 풍년들어 창고가 넘치고
祖先省墓食分隣	조상에 성묘하고 이웃과 나누어 먹네
庭園樹木聽蟬縣	정원나무와 고을에서 매미소리 들려오고
廣野金波舞雁旻	넓은 들 금파에 하늘에선 기러기 춘추네
自古以來名日樂	예로부터 지금까지 명절에는 즐기고
都農老少集游伸	도시 농촌 노소 모여 놀이를 퍼누나

漢詩協會主催 全國 現場白日場(2008.8.30)

詩題：仲秋佳節

佳作 笑海 朴文熙

仲秋佳節快晴辰	중추 가절은 일기가 쾌청하고
山水清心眼界新	산수의 맑은 마음 안계에 새롭구나
千里他鄉逢故友	천리 타향의 고향 벗을 만나고
萬孫省墓樂親隣	많은 자손 성묘하며 이웃과 친히 즐기네
上天生白月精魄	드높은 하늘에 생백은 밝은 달의 정신이요
高嶽染楓霜化旻	높은 산 물든 단풍 상화의 하늘이네
度是金風常熟物	가을바람 지나가니 만물은 여물고
豐登稻穀四郊伸	풍등의 도곡은 사교에 펼치네

漢詩協會主催 全國 現場白日場(2008.8.30)

詩題：仲秋佳節

佳作 南岡 梁東昌

佳節仲秋甚吉辰	중추 가절은 매우 좋은 때이고
郊墟露下最清新	이슬 내린 들과 언덕 가장 청신하도다
長天水碧銀河際	수정 같은 장천은 은하의 끝이요
萬壑楓蒸玉兔隣	단풍드는 만학은 맑은 달과 이웃하네
熟果千園徽白日	잘 익은 과수원의 대낮이 아름답고
豐禾四野引蒼旻	풍년든 사야를 가을하늘이 당기도다
生涼勝地風歸省	생량 승지에 귀성의 바람이 부니
民俗遊敖處處伸	민속의 즐거운 놀이 곳곳에서 펼쳐지네

漢詩協會主催 全國 現場白日場(2008.8.30)

詩題：仲秋佳節

佳作 又泉 李鍾寅

仲秋佳節爛星辰	중추 가절은 성신이 찬란하니
爽氣神情感日新	상쾌한 정신은 날마다 새롭네
洞壑蒸楓紅蓼岸	동학에 단풍드니 언덕의 여뀌 붉어지고
漢江淨水白鷗隣	한강의 깨끗한 물을 갈매기가 이웃하네
鴻飛遠浦蘆深渚	기러기 나는 원포는 갈대숲이 울창하고
稻熟平郊露下旻	이슬이 내린 넓은 들에는 벼가 익어가네
千里倍明歸省鑑	배로 밝은 강산은 귀성의 본이 되고
清靈皎潔自然伸	자연이 힘을 펴니 청령이 교결하네

註: 清靈=만물의 맑은 원기. 맑은 정기(精氣)



平昌漢詩會主催 江原道漢詩白日場(2008.10.8)

詩題：讚訓民正音

參榜 又泉 李鍾寓

世宗創制正音眞  
易習人人學革新  
愚婦能知顏色赫  
匹夫亦悟眼光均  
形容簡潔孤高艷  
書字優殊永遠珍  
國際文財輝一號  
尤磨通用萬方伸

세종대왕이 창제 반포한 훈민정음의 이치를  
사람마다 쉽게 배워 익히니 학예가 혁신됐네  
우부도 능히 깨달으니 안색이 빛나고  
필부도 역시 깨달으니 안광이 고루네.  
모양이 간결하니 고상하고 아름답고  
글자가 우수하니 영원한 보배로다.  
유네스코 문자문화재 1호로서 빛을 발하니  
더욱 같고 닮아서 통용하며 만방에 펼치리

栗谷祭行事白日場(2008年10月26日)

詩題：祝新貨幣登申師任堂像

佳作 青山 黃光洙

幣登申像卓吾東  
收斂民情特旨同  
唯一良妻賢母鑑  
無雙君子聖人風  
詩才畫格才名裏  
玉振金聲振世中  
新券發行通四海  
真心感祝必興隆

화폐에 오른 신상은 나라에 우뚝하고  
인정을 수렴하였으니 특지와 같으리라  
유일한 현모양처 모두에 귀감이니  
둘도 없는 군자 성인의 품격이네.  
시재와 그림격조 재명의 명망 속에  
훌륭한 그 명성은 세상에 떨치네.  
신권을 발행하여 사해로 통하는  
진심 감축하에 필히 훌륭하리라

詩協風雅(第17號 出品作.2008年11月)

詩題：小春即景

佳作 冠山 秋鍾三

溫暉氣候恰中秋  
穫了千村擊壤流  
似絮江蘆疑雪艷  
勝花霜葉比臙優  
錦衣處處揚明笑  
秫酒家家醉遠愁  
瞻仰先塋多薦祀  
小春世俗見尤休

기후가 온난하니 흡사 팔월이라  
수확 끝난 마을마다 격양가로다.  
솜 같은 갈꽃은 고운 눈이 의심되고  
꽃보다 나은 단풍은 연지같이 곱구나.  
곳곳마다 비단 물결 밝은 웃음 일어나고  
집집마다 좁쌀 술에 취해 수심 멀어졌네.  
선영를 우러러 보면서 제사를 올리는  
소춘의 세속이 더욱 아름답게 보이네.

旌善吟社主催 關東八州漢詩大會(2008年11月27日)

詩題：秋夜讀書

參榜 桂堂 金慶一

芸香獨醉勉儒生  
秋夜舒篇趣益明  
得味床頭消睡癖  
潛心樓上破愁城  
十年磨杵能針細  
九仞爲山豈篋輕  
懋語書聲交響裏  
通宵讀習夢長榮

부지런한 유생이 책속의 운향에 취해서  
추야에 책을 펴니 뜻이 더욱 밝아지네.  
뜻을 얻은 책상 머리선 졸음 벽이 사라지고  
깊이 생각하는 루상에선 근심성이 무너지네.  
십년동안 공이 같으니 능히 바늘 같아지고  
구인의 산을 이루니 어찌 삼태기 가벼우리.  
벌레소리 글소리 서로 올리는 가운데  
밤새워 읽고 익혀 길이 번영을 꿈꾸네

旌善吟社主催 關東八州漢詩大會(2008年11月27日)

詩題：秋夜讀書

參榜 又泉 李鍾祐

蕭瑟金風瑞氣生  
讀書秋夜月華明  
作詩院外丹楓岸  
詠賦窓邊白露城  
尙友和衷堪睡重  
狂瀾至寢可心輕  
罄宵猶短沒三昧  
研學博文丕器榮

소슬한 금풍에 서기가 생하니  
독서의 추야에 달빛이 밝구나  
시를 짓는 담장밖엔 단풍 숲 언덕이요  
책을 읊는 창밖에는 하얀 이슬 성일세  
상우와 마음화해 무거운 졸음 견디며  
광란을 잠재우니 가히 마음 가볍구나  
밤새워도 짧은 삼매경에 빠지어  
면학에 박문한 대기의 영화리라

旌善吟社主催 關東八州漢詩大會(2008年11月27日)

詩題：秋夜讀書

贊助詩 又泉 李鍾寓

讀書秋夜勉書生  
朗誦聲容輔月明  
十載研磨成樂道  
三更記誦破愁城  
學文嗜習多才積  
詩賦耽吟鬱氣輕  
志在五車探不息  
東窓已知報過榮

부지런한 서생이 추야에 독서하는데  
낭송하는 소리에 밝은 달이 돕는구나.  
십년을 연마하니 낙도를 이루고  
삼경에 외우니 수심이 사라지네.  
학문을 즐겨 익히니 다재가 쌓여가고  
시부를 즐겨 읊으니 울기가 사라지네.  
오거에 뜻을 두고 쉬지 않고 탐독하나  
동창은 이미 알고 영욕이 지나치다하네.



알아두면 건강을 찾아주는

# 자연식품 (自然食品)상식

약사 김 관 호



## 청국장

“한국 토종 콩이 건강을 지킨다”

“청국장”에 있는 식이섬유, 올리고당이 비피더스균을 잘살게 하여 장내의 이로운 균을 도와 건강한 생활을 돕는다. 장 청소 및 인체 내 독소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시원한 배변으로 매일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해줄 유용한 자연식품입니다.



## 익모초

“따뜻한 인체! 아름다운 피부”

“익모초(益母草)”는 한자어 그대로 어미(母)에게 모두 이롭다(益)는 풀(草)입니다. 손발이 차거나 몸이 냉한 여성들의 인체를 따뜻하게 하여 임신을 도와주며 여성의 피부를 아름답게 가꾸어 주는 미용식으로도 아주 좋으며 한여름 더위를 먹거나 냉방병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특효가 있습니다.



### 인진쑥

“깨끗한 간! 편안한 위장!”

“인진쑥”은 나무처럼 자라며 한방에서 여성냉증, 황달에 약재로 쓰이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또한 간과 장의 기능회복 시력보호 등에 효과가 있는 식품입니다.



### 누에

“혈당을 조절! 공포의 당뇨를 이겨낸다”

“누에”는 피속의 당분을 조절하는데에 우수한 효능이 인정된 식품으로 현대에서는 남성의 정력을 높여 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 되기도 하였습니다.



### 오가피

“성인들의 공포! 중풍 예방한다”

“오가피”는 피를 맑게 하고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며, 특히 뇌의 기능을 상승시켜 늘 맑은 정신을 유지 시켜 줍니다. 손발저림, 손발 떨림에도 좋은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 도라지

“기침 푹! 공해에 노출된 기관지를 지킨다.!”

“도라지”는 칼슘, 인,철분, 나아신 등이 함유되어 있어 심한 기침을 멎게 하고 가래를 삭히는 효과가 높을 뿐 아니라 흡연 등으로 인한 니코틴 해독에도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느릅

“편안한 위! 튼튼한 장을 만든다”

느릅나무 뿌리껍질은 “유근피”라 하여 코막힘, 비염 등에 효과가 있으며, 각종궤양, 만성소화불량 등에 효험이 높은 식품입니다.



### 동충하초

“인체의 氣를 살린다”

“동충하초”는 겨울에 곤충, 여름에는 버섯으로 피어나는 기적의 식품으로 각종질병의 면역력증가, 기력증진에 효과가 높습니다.



### 홍삼농축액

양질의 6년근 홍삼을 엄선하여 추출 농축한 100%홍삼제품으로 원기회복, 면역력증진, 자양강장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 헛개나무

“깨끗한 간! 암세포 증식 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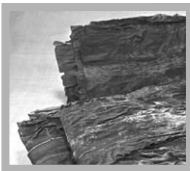
“헛개나무”는 현대인의 음주, 흡연 등으로부터 간장을 보호해 주며, 손상된 간을 회복시키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을 뿐 아니라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성분이 발견되었다 하여 주목을 받고 있는 식품입니다.



### 함 초

“천연 식물 소금! 비만을 이긴다”

“함초”는 장속의 숙변을 제거하고 중성지방을 분해하여 비만을 해결하며 “먹는 화장품”으로 불리울 만큼 피부를 곱게 하는 효과가 탁월한 신비의 식품입니다.



### 다시마

“살찌지 않는 영양의 보고! 변비를 다스린다”

“다시마”는 해조류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특히 다시마는 칼슘, 알긴산, 마마신요오드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숙변을 제거 하여 쾌변, 통변을 통한 상쾌한 하루를 약속해 드립니다.



### 구운마늘

“강한심장! 강한 남성!”

“구운마늘”은 중추신경을 자극시키고, 내분비선을 왕성하게 해줍니다.

또한 몸안의 기를 증진시켜 정력을 강하게 하는 강장식품으로 세계적으로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식품입니다.



### 홍화자

“神의 선물! 건강을 지킨다”

“홍화자”는 그 효능이 민간에게 더욱 잘 알려져 있는 식품입니다.

뼈를 강하게 하고 임산부의 산후회복 등에 주로 애용되고 있습니다. 혈액의 원활한 순환에도 도움을 주는 다양한 효능의 식품입니다.



### 산수유

“신장 기능을 강화! 남성의 정기를 돋운다”

“산수유열매”는 장기간 복용시 원기부족으로 인한 식은땀 또는 정력이 저하된 남성에게 뛰어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뽕 잎

“죽음의 사신! 고혈압을 조절한다.”



### 솔 잎

“백년을 푸르게 노화를 방지한다.”



### 삼백초

“시원한 배뇨! 아름다운 피부를 가꾼다”

“삼백초”는 해독, 이뇨 작용이 뛰어난 식품으로 몸이 붓는 현상 보수, 부종, 수종 등에 뛰어난 효과가 있으며 여성들의 피부 미용에도 중요한 식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홍삼환

양질의 6년근 홍삼 농축액 19%와 홍삼분말 38%를 넣어 복용하기 쉽고 휴대 간편한 환제품으로 원기회복, 면역력증진, 자양강장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알아두면 건강을 찾아주는

## 자연식품 효능

### 1. 갈근

만들어 드세요  
효능

물1리터에 50g에서 100g넣고 중불에 끓여 드십시오.  
해열, 진통, 소염작용, 숙취해소

### 2. 감잎

만들어 드세요  
효능

물1리터에 50g에서 100g을 넣고 중불에 끓여 엽차용으로 드십시오.  
딸꾹질, 야뇨증, 혈압강하

### 3. 감초

만들어 드세요  
효능

냄새제거. 각종요리에 단맛을 낼때 사용  
해독, 진정, 항염작용, 위산분비억제작용

### 4. 결명자

만들어 드세요  
효능

물1리터에 50g에서 100g을 넣고 중불에 끓여 엽차용으로 드십시오.  
눈의피로, 결막염, 해열, 변비개선 등

### 5. 계피

만들어 드세요  
효능

물1리터에 100g을 넣고 결명자, 오가피등을 넣고 차로 드십시오.  
살균작용, 해열, 혈액순환, 향신료, 방향제

### 6. 구기자

만들어 드세요  
효능

물1리터에 50g에서 100g을 넣고 결명자, 오가피등을 넣고 차로 드십시오.  
자양강장, 혈당강하, 항지방간

### 7. 느릅나무

만들어 드세요  
효능

물1리터에 20g에서 50g을 넣고 중불에 2시간 끓여 드십시오.  
이수, 소종, 거담, 이뇨작용 등

### 8. 당귀

만들어 드세요  
효능

물 1리터에 5g에서 10g을 기호에 따라 대추5개, 감초 3쪽, 황기, 인삼등을 약간씩 넣고 끓여 드세요.  
자궁기능조절, 진정, 보혈, 빈혈등

### 9. 대추

만들어 드세요  
효능

모든 약제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물 1리터에 감초, 둥글레등을 가하여 드시면 좋습니다.  
진정작용, 이뇨작용, 불면증, 마음을 안정

### 10. 도라지

만들어 드세요  
효능

물1리터에 30g에서 40g의 대추, 감초를 넣고 중불에 달여 드십시오. 1일3회 100cc정도  
기관지염, 진해거담

### 11. 두충

만들어 드세요  
효능

물1리터에 10g에서 15g의 대추5개 감초 2쪽을 넣고 달여 드십시오.  
강압작용, 혈압억제, 지혈, 이뇨, 진정

### 12. 둥글레

만들어 드세요  
효능

물1리터에 3쪽에서 4쪽을 넣고 보리차대용으로 드십시오.  
혈압강하, 혈당억제, 강심작용, 미용

**13. 맥문동****만들어 드세요**

생맥산의 원료로 여름철에 1리터의 물에 오미자, 인삼, 감초, 황기를 넣고 달여 드세요.

**효능**

해열, 진해, 거담, 소염, 자양강장

**14. 모과****만들어 드세요**

물1리터에 20g에서 30g을 넣고 약한불에 달여 꿀, 설탕을 가미하여 드세요.

**효능**

청간, 재습, 조혈작용

**15. 복분자****만들어 드세요**

물1리터에 5g에서 20g을 넣고 약한불에 달여 드세요.

**효능**

강장, 보간, 이뇨작용

**16. 뽕잎****만들어 드세요**

물1리터에 5g에서 15g을 넣고 약한불에 20분정도 끓여 드세요.

**효능**

진해건담, 해소, 천식, 이뇨, 소염

**17. 산수유****만들어 드세요**

물 1리터에 10g에서 15g 넣고 약한불에 끓여 드세요.

**효능**

자양강장, 향균작용, 이뇨작용

**18. 삼백초****만들어 드세요**

물1리터에 30g에서 40g을 넣고 은근한 불에 끓여 드세요.

**효능**

해열, 이뇨작용, 간염, 황달

**19. 상황버섯****만들어 드세요**

땅콩 크기로 잘게 썰어서 50g을 물2리터에 넣고 끓인 후 드세요.

**효능**

면역력증강, 항암작용

### 20. 약쑥

만들어 드세요  
효능

좌욕용이나 여름철 습기로 인한 곰팡이 제거 및 지하실 냄새 제거제.  
통경, 지혈, 제습

### 21. 영지버섯

만들어 드세요  
효능

잘게 썰은 후에 물 1리터에 넣고 약한불에 달여서 드세요.  
자양강장, 피로회복, 항암작용, 비만예방

### 22. 오가피

만들어 드세요  
효능

물 1리터에 20g에서 30g을 대추, 생강을 넣고 끓여 수시로 드세요.  
자양강장, 이뇨작용

### 23. 오미자

만들어 드세요  
효능

1차세척후 1리터의 차가운 물에 12시간 담궈 빨간색이 우려 나오면 설탕이나 꿀 등을 첨가 하여 드시면 됩니다.  
중추흥분, 해소, 천식, 혈압강하, 강심작용

### 24. 인진쑥

만들어 드세요  
효능

물 1리터에 20g에서 30g을 넣고 중불에 끓여 드세요  
황달, 해열, 소염, 항균작용

### 25. 진피

만들어 드세요  
효능

물1리터에 50g에서 60g을 넣고 은근한 불에 40분정도 끓여 드세요.  
감기예방, 건위, 구풍작용, 지구작용

**26. 차가버섯****만들어 드세요**

잘게 부순후 끓는 물에 60도 정도로 식혀서 2일간 방치 후 걸러서 여액을 드십시오.

**효 능**

항종양, 활성산소제거, 혈압강하 항당뇨

**27. 치커리****만들어 드세요**

볶음처리 후 보리차 대용으로 드세요.

**효 능**

이뇨, 강장, 혈당저하작용, 건위

**28. 헛개나무****만들어 드세요**

물1리터에 40g에서 50g을 넣고 끓여 드세요.

**효 능**

간염, 지방간, 숙취해소

**29. 홍화씨****만들어 드세요**

물1리터에 30g에서 40g을 넣고 끓여 드세요.

**효 능**

해독, 어혈복통, 동맥경화증

**30. 황기****만들어 드세요**

물 1리터에 10g에서 15g을 넣고 대추 5개를 약한 불에 끓여 드세요.

**효 능**

익기, 다한증억제, 이수작용, 식용증진

〈초등부 산문부문〉

손양초등학교 6학년

권 종 오

# 우리할머니

요즘은 대가족보다는 핵가족이 많다. 그래서 시골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만 살거나 할머니나 할아버지 두 분 중 한 분만 살고 계시는 집이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할머니와 함께 사는 대가족이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집에는 항상 웃음꽃이 피어난다. 내가 어렸을 때는 할머니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 주셨다.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을 말만 하면 할머니께서 척척 해 주셔서 나는 너무 좋았다. 아마 그때에 맛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비만이 된 것 같다.

정말 할머니께서는 나의 요술쟁이셨는데... ..

지금은 할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치매 증상을 보이셔서 가끔씩 우리들을 보고 소리도 치시고 밖에도 혼자 나가셔서 가족들이 걱정하며 찾기도 하셨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할머니께서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셨다. 정말 거짓말 같은 현상에 어이가 없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다니시는 것도 못하시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신다. 누워만 계시는 할머니를 뵈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옛날처럼 슈퍼에 가서서 과자도 사 주시고 맛있는 음식점에서 고기도 사주셨던 건강하신 할머니로 다시 돌아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가끔씩 어머니께서는 농담처럼

“중오가 할머니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으니 이제는 네가 할머니께 그 사랑을 갚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그게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안다. 정말로 할머니의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갚아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안다. 우리 가족 모두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할머니 수발에 정성을 쏟는다. 특히 내가 할머니의 진지를 먹여 드릴 때에는 할머니께서는 좋으신지 연신 웃으신다.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니께서 “어머니, 손자가 진지 심부름 하는게 그렇게 좋으세요?”

라고 여쭙어 보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고맙지~.”하고 또 웃으신다.

할머니께서 언제까지 우리와 같이 계실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시간이 날 때마다 할머니 진지를 먹여 드리고 싶다. 편찮으신 할머니 때문에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할머니께서 계셨기에 우리집이 더 웃음꽃이 피나 보다. “할머니, 중오가 맛있는 음식 많이 먹여 드릴 테니 드시고 빨리 일어나셔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할머니, 사랑해요.”



〈초등부 시부문〉

# 할머니

조산초등학교 6학년

박 상 은

가끔 할머니의 어깨를 주무를 때마다 할머니의 어깨가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가끔 할머니의 웃음을 볼 때 마다 예전엔 없었던 주름살이 보였습니다.

가끔 할머니의 손을 잡을 때마다 할머니의 예쁜 손이 자꾸만 거칠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꾸만 변해가는 할머니 나는 오랜만에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려봅니다.

한순간 한순간 주무를 때마다 추억이 떠오릅니다.

할머니에게 미안한 마음도 떠오릅니다. 기쁠 때든 슬플 때든 항상 웃어 주시던 할머니

나는 더 꼭 할머니의 어깨를 주무릅니다.

할머니도 좋으신듯 못보던 웃음이 얼굴에 피어납니다.

꼭 10년은 더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자꾸만.....

자꾸만.....

예전에 모습과는 다른 아름다움을 찾아가시는 할머니.

나는 할머니를 꼭 안아 드립니다.



〈중등부 산문부문〉

# 우리할머니

현남중학교 3학년

김 대 군

따가운 햇살을 받으며 마당 한 칸에서 고추를 말리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우리 할머니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나에겐 바쁘신 부모님대신 키워주신 할머니가 계신다.

난 우리 할머니께 효도는 커녕 할머니 지갑에 손을 댄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또 할머니에게 소리 지르긴 전국 1등일 것이다.

그래서 인지 요즘 할머니를 보면 죄송한 마음에 어쩔 줄을 모른다. 그런 마음에 이번에 사상 최초로 우리 할머니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 내 손으로 번 돈을 우리 할머니께 드렸다. 투덜 투덜 대며 할머니 손에 쥐어 주었지만 마음은 편하고 기뻐다. 할머니도 기뻐셨는지 걸으론 내색하지 않았지만 내가 처음 드린 용돈을 손에 쥐어 우리 할머니 입가에 미소가 묻어 있다. 그 모습을 본 나도 물론 기분이 좋았다. 이 정도로 할머니 은혜에 보답할 순 없지만 앞으로 더욱 잘 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굴뚝같다. 하지만 할머니한테 대드는 것은 여전히 여전하다. 안 그래야지 하면서 대들게 된다. 이 점은 정말 고쳐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가끔 비쩍 마르신 우리 할머니를 보면 속상하다.

갈라져서 테이프로 칭칭 감은 우리 할머니의 손을 보고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런 할머니를 보고 난 눈물이 핑 돌았다. 아마도 난 할머니를 많이 사랑하나보다. 그런 우리 할머니한테 아직 제대로 된 효도 한번 못해 봤다. 아직 내가 어려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가 나에게 헌신 한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글로 쓰니까 정말 내가 죄를 많이 지었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다. 요즘은 가슴이 아픈게 할머니가 집에 혼자 계시면 많이 쓸쓸하고 심심해 하신다. 가끔은 마루에 누워서 할머니랑 같이 텔레비전도 보긴 하지만 집에 계시면 말하는 병어리라고 나에게 말하신다. 우리할머니가 많이 심심하신가 보다. 그래서 할머니께 말도 자주 걸고 학교에서 뭘했는지 아르바이트는 어땠는지 이야기도 많이 해주지만 이런 이야기도 그때 뿐이다. 혼자 계시실 때 심심한건 마찬가지 이신가 보다. 그래서 할머니는 요즘에 “늙으면 일찍 죽어야 돼”라는 말을 자주하신다. 할머니도 남자친구가 필요하신건지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너무 지루하셨나 본지 요즘엔 앞집 아주머니가 하는 부업을 같이 하신다. 내가 이런거 왜 하냐고 했더니 너무 심심해서 한다고 하는 말에 할 말이 없었다. 할머니가 부업을 시작한 후부터 할머니께서 재미가 드셨는지 할머니의 지루해하는 모습이 많이 줄었다. 할머니의 이런 모습을 본 나도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요즘엔 할머니 부업을 도우면서 할머니랑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하고 할머니 웃는 모습도 보니 정말 기쁜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돈도 벌고 웃음도 많아지셨고 정말 일석 이조이다. 하지만 걱정되는게 하나있다.

다치지 않게 조심하셔야 할텐데 지루해하지 않는 반면에 혹시라도 다치실까봐 내심 걱정이다. 하지만 다행이다. 부업이란 할머니의 친구가 생겨서 또 부업해서 버는 돈을 내 통장에 넣는다고 하는데 난 괜찮다고 하지만 할머니는“대학교에 가면 여자친구랑 다방가서 커피 살 돈은 내야지.” 이런말을 종종하시는데 정말 할머니께 감사하다. 가끔 일하시는 할머니를 보면 할머니도 많이 늙으셨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요즘엔 흰머리도 제법 많이 나셨다. 흰머리 많이 난게 다 나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할머니속을 많이 씩히긴 했나보다.



살짝 굽으신 등과 거친 손을 볼때마다 가슴이 많이 아프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난 태어나서 할머니 생신을 한번도 챙겨 드린적이 없다. 이제 곧 할머니의 생신이 다가오는데 그 때 내마음을 담은 선물을 드릴것이다. 경로 효친에 대한 글짓기라는 것을 통해 노인에 대한 공경심이 더욱 많이 생겼고 또 평생을 나만 보시고 사신 우리 할머니에게 더욱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노인공경은 우리 학생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실천해야하는 하나의 진리이다. 지금 우리나라엔 많은 노인이 소외받고 살아간다고 책에서 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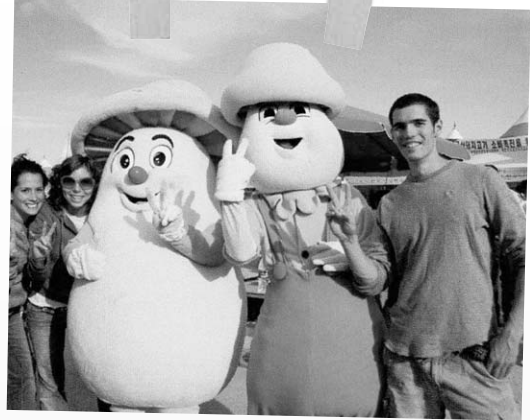
앞으로도 이런 행사에 우리는 참여 해야하고 어른 또 한 이런 행사를 무시해선 안될것같다.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에서 같이 살고계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너무 무심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나 또한 우리 할머니에게 너무 나도 무심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도 가정에서 살고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나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노인은 귀찮은 존재가 아니다. 노인은 우리들에게 공경받을 권리가 있다.

앞으로는 우리도 노인을 지금보다 더 공경해야 할 것이고 나 또한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웃음을 주고 싶은 마음이다. 이 글을 보면서 우리집에 같이 살고 계시는 하나뿐인 우리 할머니께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으며 이 나라의 노인에게 ‘효’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국민에게 새겨 주고 싶고 나 또한 가슴에 새겨 노인공경에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노인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지금 집에서 외로워 하시는 할머니들을 보며 주저말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 드렸으면 좋겠다. “사랑한다고.”할머니 우리 할머니 이글을 쓰면서 깨달은 것이지만 할머니께 불효한거 죄송하고요. 할머니 앞으로도 오래 오래 건강하게 같이 살아요. 할머니께 직접 말해드리진 않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 양양송이축제2008

Yangyang Song-i Festival 2008



1. 슬 로건 : 재미있게, 신나게, 실속있게  
(재미있게 구경하고, 신나게 즐기고, 실속있게 구입하자!)
2. 행사기간 : 2008. 9. 26(금)~9.30(화)  
- 외국인송이채취 현장체험 : 9. 15~10.14(30일간)
3. 행사장소 : 강원도 양양군 · 읍 남대천 둔치 행사장 및 송이산지 일원
4. 체험행사 및 주요행사
  - 외국인 송이채취 현장체험
    - 어른 - 20,000원 (상품권 10,000원권 지급)
    - 어린이 - 10,000원 (상품권 5,000원권 지급)
    - 송이1개씩 지급, 상품권 지급, 기념품 지급, 송이요리 시식
  - 송이보물찾기체험
    - 어른 - 10,000원 (상품권 5,000원권 지급)
    - 어린이 - 5,000원 (상품권 5,000원권 지급)
    - 송이1개씩 지급, 상품권 지급, 송이요리 시식

- 소달구지타기, 동호리 멸치그물당기기 체험, 탁장사 체험 등 농촌체험 행사 및 송이생태견학 등 여러가지 부대행사

5. 주 최 : 송이축제위원회

6. 주 관 : 양양군

7. 문 의 처 : 033-670-2724, Fax 670-2733, e-mail : jaeyun@yangyang.go.kr

8. 홈페이지 : <http://festival.yangyang.go.kr>(영어, 일어, 중어)

### 축제개요

수십년 자란 소나무 밑 솔잎을 살짝 들추면 천년의 향을 간직한 황금송이가 살포시 고개를 내밉니다. 자연의 향으로 가득한 설악산에서 신비의 영물 양양황금송이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 양양송이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백두대간의 중심 강원도 양양송이축제에서 온가족이 함께 자연을 느끼고 솔잎 향기 물씬 풍기는 송이도 따 보세요. 대자연의 벽찬 감동이 가슴으로 전해옵니다.(8월초 인터넷 및 전화접수).

### 송이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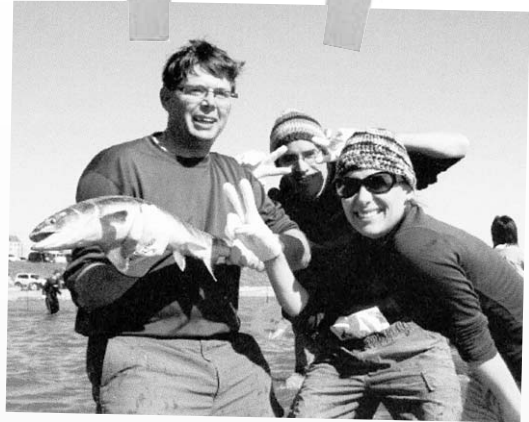
최적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태백산맥에서 채취되는 양양송이는 일본산에 비해 살이 두텁고 향기가 풍부한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양양송이는 타 지역 송이보다 수분함량이 훨씬 낮아 살이 단단하여 장기보관이 가능하다.

송이는 소나무 뿌리 가운데 가장 끝부분인 세근에 붙어사는 외생근균으로 곰팡이의 일종이다. 자연산 송이는 소나무의 정기가 배어있고 독이 없으며, 향기가 좋아 버섯 중에 으뜸이라고 동의보감에서 밝히듯 예로부터 송이는 신비하고 귀한 버섯으로 알려져 왔다.

영양학적으로는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편도선, 유선염, 탈하증 및 각종 성인병에 약효가 있으며, 특히 일본에서는 항암제로써 효과가 큰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 양양연어축제2008

Yangyang Salmon Festival 2008



1. 행사기간 : 2008. 10. 18~10.19
2. 행사장소 : 강원도 양양군 · 읍 남대천 둔치 행사장
3. 체험행사 및 주요행사
  - 연어 맨손잡이 체험
    - 어른 - 20,000원 , 어린이 - 15,000원
  - 연어연구센터 견학, 연어 탁본뜨기 등 여러가지 부대행사와 연어요리 판매 부스 운영
  - 체험자 상품권 제공 : 어른 10,000원권, 어린이 5,000원권
4. 주 관 : 양양군
5. 문 의 처 : 033-670-2207, FAX 670-2733, e-mail : edcomm@hanmail.net
6. 홈페이지 : <http://festival.yangyang.go.kr>(영어, 일어, 중국어)

## 축제개요

“연어라는 말 속에는 강물 냄새가 난다.” 시인 안도현의 「연어」에 나오는 구절이다. 연어는 강을 거슬러 오르는 모천 회귀성 어류의 하나이다. 북태평양에서 2~5년간 성장한 후 산란을 위해 아련한 고향의 냄새를 찾아 자신이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인간의 삶의 여정과 닮아 있다.

연어축제를 통해 불굴의 도전정신과 호연지기를 키우고 가족애가 깊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9월초 인터넷 및 전화접수).

## 연어의 특성

연어는 해초(海草)를 먹고 산다. 연어의 영양은 바로 이 영양이 풍부한 해초에서 비롯된다.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연어의 오메가-3는 혈액 찌꺼기를 녹여주어 체외로 배출시킴으로써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에 매우 좋다. 연어의 오메가-3는 체내에 축적된 불필요한 지방을 몸 밖으로 배출하기도 한다. 또한 관절염에도 효과가 있어 류머티즘을 예방하고, 노인성 치매를 방지해준다.

연어는 장기간 섭취하면 지친 피부 세포를 치료한다. 보습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건조한 피부를 촉촉한 아기 피부처럼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다. 또 연어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학생이나 직장인들의 시력보호에 좋다.



## 양양현산문화제 2008

Hyeonsan cultural festival 2008

1. 행사기간 : 2008. 6. 3~6.5
2. 행사장소 : 양양 남대천둔치 행사장 및 양양읍내 일원
3. 체험행사 및 주요행사  
- 가장행렬, 농악놀이, 각종 민속놀이, 체육행사 및 전시, 부대행사
4. 주 최 : 현산문화제위원회
5. 주 관 : 양양문화원, 양양군 체육회
6. 문 의 처 : 033-670-2728 FAX 033-670-2733
7. 홈페이지 : <http://festival.yangyang.go.kr>(영어, 일어, 중어)

### 축제개요

고려목종 10년(1007) 현재의 양양읍 성내리를 중심으로 양주성을 축성, 외적의 침입을 수호하는 기지로 삼고 호국영령 위로와 국태민안·풍년을 기원하는 성황제를 지내는 것으로 유래하였다. 조선시대 현산부에서 '현산'이란 이름을 빌어 매년 6월이면 양양읍내에서 개최되며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고유한 독창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장군성황제, 신석기 가장행렬, 제등행렬, 양주방어사행차, 대포수군만호행차, 영신행렬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 양양해맞이축제 2009

The New Year Festival Yangyang 2009



1. 행사기간 : 2008년 12월 31일 ~ 2009년 1월 1일
2. 행사장소 : 낙산해수욕장 및 부대행사장(오색령, 하조대해수욕장 등 약 10개소)
3. 체험행사 및 주요행사  
모닥불 밝히기, 해맞이 축하공연, 소망기원 촛불 밝히기 및 소망쪽지 쓰기, 사랑의 떡국 나누기 등 여러가지 부대행사
4. 주 관 : 양양군
5. 문 의 처 : 033-670-2724, FAX 033-670-2733 e-mail : jaeyun@yangyang.go.kr
6. 홈페이지 : <http://festival.yangyang.go.kr>(영어, 일어, 중국어)

## 축제개요

“襄陽” 해 뜨는 곳이라는 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새해 일출을 보며 소원을 빌면 그 해에는 만사형통을 한다는 설이 내려오고 있어, 해마다 일출을 보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어둠을 밝히며 떠오르는 붉은 해를 바라보며 일년 동안 묵혀두었던 근심과 걱정들을 털어낼 수 있다. 차가운 입김을 불어가며 기다린 일출의 시간을 맞이할때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이 가슴속에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낄 수 있다.

# 마을단위축제 2008

## 1 서면

### ● 웰~빙 봄바람 떡바람 축제

- 기 간 : 2008. 4. 25 ~ 4. 27
- 장 소 : 서면 송천리 일원
- 행사내용 : 여러 가지 떡 빚기 및 체험행사
- 연 락 처 : 마을사무실(033-673-7020), 사무장(011-217-6055)



### ● 은어야 복숭아 따라가자

- 기 간 : 2008. 8. 2 ~ 8. 3
- 장 소 : 서면 용천리 일원
- 행사내용 : 은어 맨손잡기 체험, 뚜거리잡기 체험, 복숭아따기 체험
- 연 락 처 : 용천리 마을회(011-375-0940, 033-672-3618)



### ● 서림리 농촌체험축제

- 기 간 : 2008. 8. 9 ~ 8. 10
- 장 소 : 서면 서림리 일원
- 행사내용 : 돌담쌓기체험, 은어맨손잡기, 뗏목타기 체험, 얼음골 등반행사
- 연 락 처 : 마을총무(011-9079-0848), 마을이장(017-373-0911)



● 구룡령 옛길걷기 산나물 축제

- 기 간 : 2008. 5. 17 ~ 5. 18
- 장 소 : 서면 갈천리 일원
- 행사내용 : 구룡령 옛길등산, 갈천약수 마시기대회, 산나물 채취 체험행사

● 미천골 토종꿀 및 울트라 산악자전거 축제

- 기 간 : 2008. 9월경
- 장 소 : 서면 미천골 일원
- 행사내용 : 불바라기 약수, 얼음골 등산, 토종꿀 알아맞히기, 미천골 생태탐방

## 2. 손양면

● 동호리 멸치후리기 체험

- 기 간 : 2008. 9. 26 ~ 9.30
- 장 소 : 동호리 해수욕장
- 행사내용 : 전통방식의 멸치후리기 체험



## 3. 현북면

● 맨손조개·오징어 잡이 축제

- 기 간 : 7. 11 ~ 8. 17
- 장 소 : 하조대 해수욕장
- 행사내용 : 맨손조개잡이, 오징어맨손잡이, 전통 그물후리기 멸치잡이





● 여성전 탁장사 체험

- 기 간 : 3월중, 8월중
- 장 소 : 여성전 2리 탁장사 마을
- 행사내용 : 탁장사 및 떡 빚기 체험, 영농체험



4. 현남면

● 인구항 어판장 어울림 축제

- 기 간 : 7. 11 ~ 8. 17
- 장 소 : 인구해수욕장
- 행사내용 : 낚시배 체험, 각종시식코너 운영, 선상바다관광체험 등

● 화상암 한여름축제

- 기 간 : 해수욕장 운영기간
- 장 소 : 원포리 해수욕장
- 행사내용 : 각종 체험행사 및 체육행사



● 죽도해수욕장 어린모래톱 축제

- 기 간 : 2008. 7. 25 ~ 8. 15
- 장 소 : 죽도 해수욕장
- 행사내용 : 각종 체험행사 및 체육행사

# 양양의 관광지 안내



## 남애항

386세대에게는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영화 ‘고래사냥’의 촬영지이다. 그 시절 그들이 정말 원했던 삶은 무엇이었는지.....

고래사냥 노래의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한 가득 슬픔 뿐...”이라는 가사가 입가를 맴돈다. 남애항은 강원도 3대 미항 중 하나로, 과거에는 바닷가에 핀 매화가 이 마을에 떨어져 낙매(落梅)라고도 불렸다고 한다. 해안가의 바위섬과 방파제로 연결된 두 개의 섬이 이 곳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일출의 황홀경을 맞으며 새벽을 깨우는 어촌사람들의 부지런함을 만나게 되어 어선에서 바로 내린 싱싱한 회맛으로 찾는 이의 미각을 즐겁게 한다. 양쪽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빨간색과 하얀색의 등대는 남애항의 운치를 더해주며, 낚시 배를 예약하면 바다에 나가서 직접 고기를 잡을 수 있다.






## 낙산사 의상대

낙산사 내에 있는 의상대는 낙산사 창건자인 의상대사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한 정자로, 낙산사의 동쪽 100m거리의 바닷가 절벽 위에 세워져 있다. 앞으로는 끝없이 맑고 푸른 동해 바다를 마주하고, 오른쪽 절벽 아래로는 낙산해수욕장과 인접해 있으며, 뒤로는 유서 깊은 낙산사와 울창한 소나무 숲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파도소리와 풍경소리 그리고 목탁소리와 산새소리가 지평선 끝에서 들려오는 곳. 일출의 장관을 감상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기도 하다.

 033-672-2448





## 오색주전골

오색약수 인근에 자리한 풍치절경의 계곡이다. 설악산국립공원 구역 내의 점봉산(1,424m)북쪽 기슭에 뺨은 주전골은 옛날에 엽전을 주조 하던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남설악지구대에서 가장 빼어난 계곡미를 자랑하는 주전골은 선녀탕, 용소폭포, 만불상, 흔들바위 등을 비롯하여 술한 명소를 품고 있다. 크고 작은 폭포와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진 주전골은 피서지로도 사랑받고 있다. 주변에 있는 오색 약수는 철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위장병에 탁월하며, 평탄한 산길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등산객의 발걸음을 잡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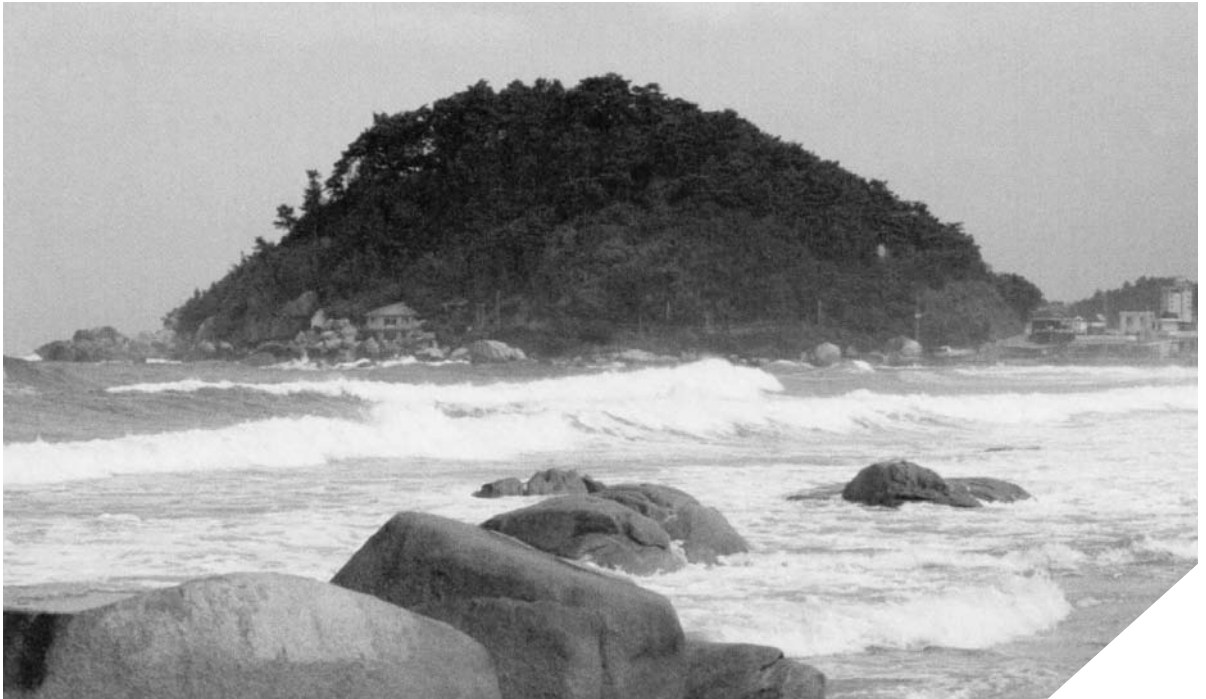




## 하조대

조선의 개국공신인 조준과 하륜이 이곳에서 잠시 은거하였다하여 두 사람의 성을 따서 「하조대」라 칭하게 되었다고 한다. 조선 정종 때 정자를 건립하였으나 퇴락하여 철폐되었으며, 수차례의 중수를 거듭하여 1940년에 팔각정을 건립하였으나, 한국전쟁때 불에 탄 것이 1955년과 1968년에 각각 재건되었다. 하조대는 동해바다의 절경을 볼 수 있는 돌출 된 만(灣)의 정상부에 위치하여 빼어나 경치를 자랑하는 곳이다. 현재의 건물은 1998년 해체 복원한 건물로 초익공 굴고리 양식의 육모정으로 지붕에 절병통을 얹어 소나무와 함께 주위의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고 있으며, 정자각 앞에는 조선 숙종 때 참판 벼슬을 지낸 이세근이 쓴 “하조대”라는 세 글자가 암각 된 바위가 있다.





## 죽도정

현남면 인구리에 위치한 죽도는 둘레 1km, 높이 53m로 예전에는 섬이었다. 지금은 육지와 연결돼 있으며 송죽이 울창해 죽도라 불린다. 조선시대에는 이 곳에서 난 장죽을 진상하기도 했다. 정상에 죽도정이 있는데 전망이 훌륭하며 산책로가 있어 인근 주민들이 애용하기도 하며, 인근 죽도해수욕장은 길이 2km, 면적이 1,400m<sup>2</sup>이며 모래가 곱고 경사가 완만해 가족 피서지로 적당하다.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 오색령 (한계령)

내설악과 남설악을 잇는 44번 국도는 애환을 동고동락한 고개이다. 인생을 닮은 듯 굽이굽이 이어진 길을 따라 달리면 남설악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설악의 운무가 펼쳐는 장관은 한계령에서만 볼 수 있는 특혜이다. 오색령은 사시사철 설악의 비경을 뿔어낸 관광객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강원도 지역에서 여섯 개의 령을 손꼽았는데 그 중에서도 으뜸이 오색령이라 했다.





## 대청봉

태고의 웅비를 간직한 설악산 대청봉은 해발 1,708m 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이며, 공룡릉, 화채릉, 서북릉 등 설악산의 주요 능선의 출발점으로 내설악·외설악의 분기점이 된다. 또한 천불동 계곡, 가야동 계곡 등 설악산에 있는 대부분의 계곡이 이 곳에서 발원한다. 대청봉 주위에는 기상변화가 심하고 강한 바람과 낮은 온도에 눈잣나무 군락이 융단처럼 낮게 자라며, 정상에서는 국립공원 전체와 동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 양양의 체험여행





## 백두대간의 정기가 살아있는 “탁”씨 장사 이야기의 마을

백두대간의 정기가 살아있는 천년송이의 고향, 양양탁장사 마을!  
넷가에서 물장구치고 고기잡아 장작불로 밥해먹는 곳! 천년의 향 송이를 만나고  
자연의 생명을 느낄 수 있는 고향에서 신나는 체험을 즐길 수 있다.



통나무던지기



물고기잡기



도자기 물레체험

## ■ 체험프로그램

년중	농가민박, 탁장사 지게지기, 탁장사 통나무던지기, 탁장사 톱질하기, 탁장사 목도지기, 탁장사놀이 시연, 떡메치기(인절미), 메밀국수 누르기, 두부만들기, 물장구놀이 시연, 도자기 물레체험, 장작 옷돌이, 사리나무 삼겹살구이, 칩소골 트레킹(숲해설(가이드필요시))
봄	수액채취
여름	감자캐기, 옥수수따기, 감자·옥수수구워먹기, 반딧불보기
여름,가을	물고기잡기
가을	단풍길산책, 송이길 산책, 송이채취 체험, 밤따기, 감따기, 벼베기
가을,겨울	싸리비만들기, 군용반합 서리태볶음
겨울	설피신고 눈길걷기, 비료포대 눈썰매타기, 얼음썰매타기, 양미리구워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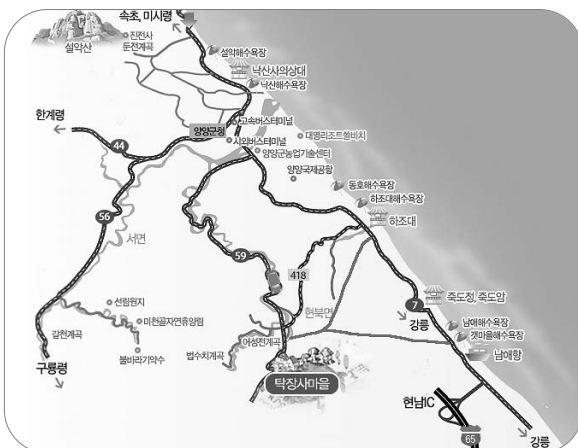
※참가비 : 유료(체험별)

## ■ 탁장사놀이체험

어성전은 빼어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탁장사'라는 마을이름은, 내기시합에서 나무를 옮기는 데 성공한 마을 출신 장사 탁구삼씨의 성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마을 이장님의 탁장사 전설이야기로 시작되는 놀이체험은 첫째마당-통나무 던지기, 둘째마당-통나무 줄다리기, 셋째마당-탁장사 지게지기, 넷째마당-목도놀이, 뒷풀이-강강술래, 감자와 양미리 구워먹기로 진행된다.

## ■ 이곳도 둘러보세요

어성전계곡	한여름에도 발을 담그면 뺏속까지 시원 시냇물과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숲속의 집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울창한 숲속이 좋은 곳이다. 9동의 통나무집을 운영하고 있다.
전통 체험장	통나무로 지어져 성인 50여명을 거뜬히 수용할 수 있는 큰방과 떡메치기, 메밀국수 뽑기, 손두부 만들기 등 먹거리 체험이 가능한 부엌으로 나누어져 있다.



### 탁장사 마을 약도/문의처

[오시는길] 영동고속도로 → 현남 IC(속초방면) → 현북면 하강정리(하조대) → 어성전리 방향 좌회전(418번 지방도) → 현북면 어성전 1리 → 어성전 2리(탁장사마을)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 2리 탁장사마을  
 홈페이지 <http://takjangsa.co2vil.org>  
 마을펜션홈페이지 <http://takjangsa.com>

이장 김창렬 H·P 010-2937-1557  
 조민석 사무장 TEL 033-673-2526 H·P 010-4248-6746

※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문의는 위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경쾌한 계곡 물소리와 태고의 멋을 느낄 수 있는 곳

해담마을에서는 짚풀공예 만들기와 메밀국수 만들기, 전통두부만들기등 전통체험을 할 수 있는 테마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마체험장을 통하여 전통적인 실습과 전통문화의 이해를 돕고자 해담마을의 마을주민 모두가 운영하는 체험관입니다. 마을을 방문한 체험객 여러분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활쏘기



돌화분만들기



4륜바이크



은어맨손잡기

## ■ 체험프로그램

년중	농가민박, 방가로, 짚풀공예체험, 떡메치기, ATV (4륜바이크), 활쏘기, 수륙양용차
봄	봄나물채취, 산나물채취
여름	후천물놀이, 뗏목타기, 조약돌 얼굴그리기, 돌탑쌓기/돌화분만들기, 썩모기불 피우기
가을	감자강판갈아 감자전만들기, 삼굿체험
겨울	인진썩옛만들기, 인진썩 찜질방, 장뇌채취, 소달구지타기
	설피체험, 메주만들기, 쥐불놀이, 연만들기

※참가비 : 유료(체험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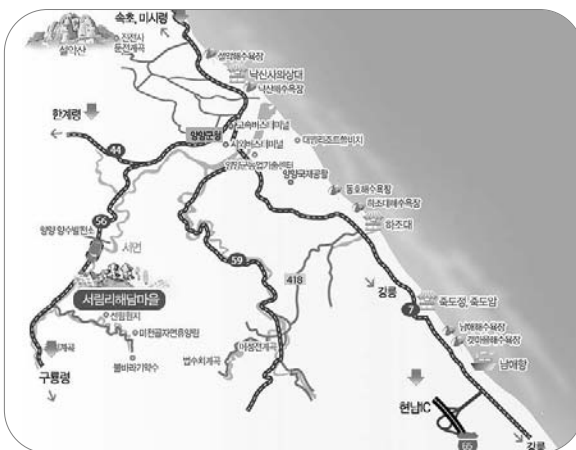
## ■ 짚공예체험

서림리 마을 어른들을 중심으로 예전부터 농한기에 짚풀을 이용한 명석, 지게, 망태, 설피, 짚신, 물레 등 다양한 모양의 전통 짚풀공예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전국에서도 솜씨 좋기로 유명한 해담마을의 어른신들로부터 짚공예 만들기를 배울 수 있다.

우리 조상님들의 생활용품은 짚으로 만들어 썼다는걸 아이들이 알고 있을까요? 어르신들의 멋진 손기술을 배워 보세요~

## ■ 이곳도 둘러보세요

해담마을 휴양지	청정지역의 계곡과 송림이 우거져 있고 민박형방갈로 31동은 다양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미천골 자연휴양림	자연그대로의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으며 야외교실, 다목적광장, 숲속의 집, 야영장 등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휴양림 입구에는 선림원지, 흥각선사탑비와 부도 등 신라시대 보물급 문화재가 있다.



### 해담 마을 약도/문의처

[오시는길] 서울 → 양평(6번국도)→ 홍천(44번국도) → 한계령을 넘어 오색약수를 지나면 구룡령과 갈림길 → 구룡령방면으로 진입 → 양수발전소 사거리 → 서림리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서림리 해담마을  
홈페이지 <http://hd.invil.org>

박미경 사무장 TEL 033-673-2233  
H•P 011-9480-7574

이상욱 총무 TEL 033-673-3951  
H•P 018-396-3969

※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문의는 위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달콤한 배가 열리는 과정을 직접보고 관찰하고...

낙산배는 조선 중엽에 재래종 황실리 품종이 낙산사 주변에 재배되면서 주요과수로 지정되어 나라에 진상될 정도로 맛이 좋아 낙산배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해바다와 연어, 은어가 소상하는 남대천의 맑은 물로 재배되어 맛과 품질이 우수하여 가을과 겨울철이면 과일을 맛보시려는 분들이 방문합니다.



견학모습



농장에서의 교육모습



낙산배



배꽃이 핀 모습

## ■ 체험프로그램

- 배나무의 구조와 성장조건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배의 한살이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계절별 과일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씨앗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유기농 재배가 사람과 어떤 인과 관계가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배꽃에서 배즙이 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흙속에 사는 다양한 미생물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지렁이, 땅강아지 등)

※참가비 : 유료(체험별)

※계절별 체험종류가 다름

## ■ 과수원에서의 현장체험

달콤하고 시원한 배가 열리기까지 많은 손길과 정성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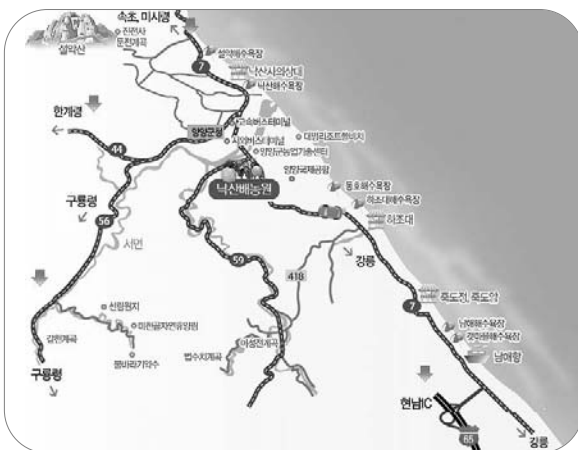
직접 그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배꽃따기, 과일숙아주기, 봉지씌우기, 배즙을 이용한 음식 만들기 등 배에 관한 모든것을 배울 수 있다. 그속에서 농업과 농촌이 가지는 소중함과 중요성을 성찰하는 공간이다.



## ■ 농장이용안내

시설 및 규모 과수원 13,230㎡ (4,000평) / 배즙가공 및 교육장 : 57.2㎡ (17평)

식사, 숙박가능 25명 내외



### 낙산배 농원 약도/문의처

[오시는길] 영동고속도로 → 현남IC → 7번국도 속초 양양방향 좌회전 → 남애 → 하조대 → 양양대교 지나기전 송현사거리에서 월리방향 좌회전 → 여성회관 → 낙산배농장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월리 43 낙산배농원

홈페이지 <http://www.naksanbe.kr>

<http://www.naksanbe.pe.kr>

농장주 : 박정숙, 김익환

TEL 033-671-2264 H·P 018-283-2264

H·P 010-318-2264 E-mail : naksan7@hanmail.net

※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문의로는 위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호박마차를 타고 이야기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호박속에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탐스럽게 자라나는 호박을 통해 자연의 신비함을 배워 보세요! 청정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장주변의 쉼터에서 가족들과 함께 휴일을 즐기며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꺼리가 있는 곳입니다. 가족들과 농장을 가꾸고 추억을 만드는 행복을 호박나라에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농장입구



신기한 모양의 호박과 함께 찰칵~



호박새싹의 구조관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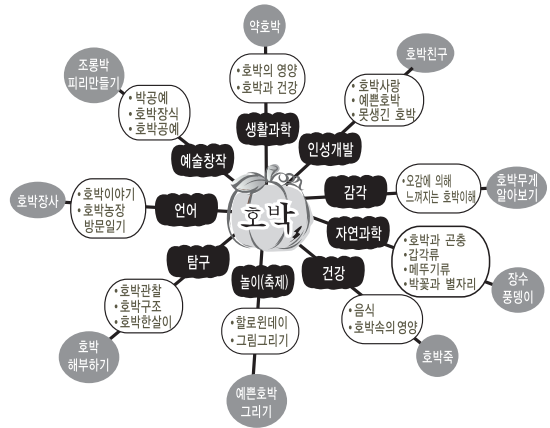


## 체험프로그램

- 호박의 구조와 생태
- 호박을 통한 공예활동
- 호박의 다양한 종류 및 쓰임
- 호박의 생태와 관련된 곤충
- 토양의 성질과 생육과의 관계

※ 참가비 : 유료(체험별)

※ 계절별 체험종류가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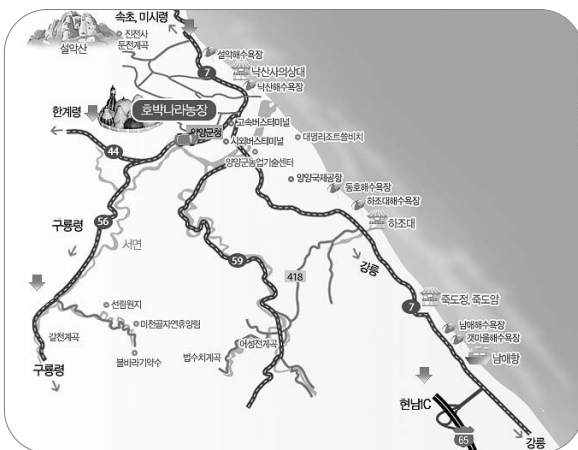
## 호박 농장체험

2003년부터 호박을 주제로 한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농촌진흥청 농촌교육농장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다양한 색깔과 모양의 호박을 만날 수 있는 이색 체험공간이다.

농촌교육농장, 주말체험농장으로 오면 자세한 체험내용이 준비되어 있다. 보다 체계적인 교육학습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놓았다. 주말농장은 가족별 연중 작목 재배계획을 세워 단계별 작업과정을 익히고 실천하여 배우는 학습교실이 운영된다.

## 특별프로그램

10월 마지막주 에는 할로윈데이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색다른 체험이 될것입니다.



### 호박 나라 약도/문의처

[오시는길] 영동고속도로 → 7번국도(속초방면) → 양양 → 남애 → 38휴게소 → 양양국제공항 → 양양대교 좌회전 → 국유림관리소방면 우회전 → 호박나라농장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국유림관리소 앞 홈페이지 <http://www.hobaknara.net>

농장주 : 김선학, 허영희

TEL 033-671-4242 H·P 011-9977-4243

H·P 010-2087-1324

※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문의는 위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허브의 향기에 심취해 보고 나만의 허브제품을 만드는 재미!

다양한 향기만큼 즐거움이 넘치는 농원입니다. 허브정원, 과수재배지, 각종 묘목 재배지를 통해 각 식물들의 자연속에서의 역할과 기능, 차이점을 통해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쁘고 아기자기한 허브식물들과 함께 자연의 소중함을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농장전경



허브비누만들기



허브양초만들기



허브화분심기

## ■ 체험프로그램

- 허브화분심기
- 허브향기주머니만들기
- 허브비누만들기 : 주물럭 비누, 녹여붓기 비누
- 허브향초 만들기
- 허브샴푸 만들기
- 허브 스프레이 방향제 만들기
- 허브 바스밤 (입욕제)
- 허브를 이용한 음식만들기
- 허브압화
- 허브 천연화장품 만들기 : 핸드크림, 아이크림, 영양크림

※ 참가비 : 유료(체험벌)

※ 계절별 체험종류가 다름

## ■ 오색허브농원만의 체험교육

허브의 향기를 맡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허브를 이용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주물럭비누와 녹여붓기 비누를 만들고, 다양한 색상과 허브에센셜오일로 나만의 향초를 만들어 오감을 이용한 직접체험을 할 수 있다. 그 속에서 실천적, 유희적, 감각적, 과학적, 창의적 사고를 기를 수 있다.



## ■ 농장이용안내

365일 연중무휴

Open am 9:00

Close pm 5:00 ~ 6:00 (계절에 따라 차이)

체험교육비 5,000원 ~ 20,000원 (종류별로 차이)

콘도형원룸 8평, 주방시설완비

농원내 방가로, 화훼종합전시장

단체수련장 40~50인, 취사가능

다목적 운동시설



### 오색 허브농원 약도/문의처

[오시는길] 서울 → 양평(6번국도) → 홍천(44번국도) → 인제 → 한계령 → 44번국도 → 오색약수터 → 오색허브농원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1리 오색허브농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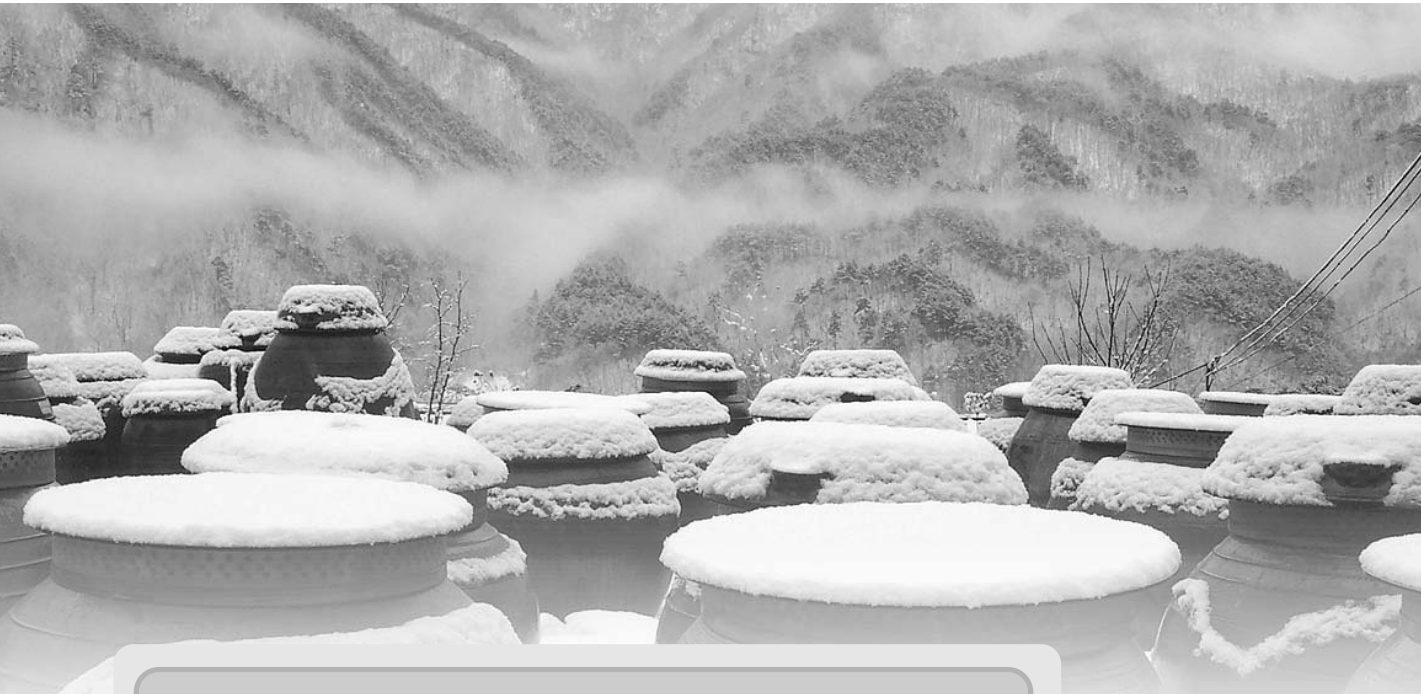
홈페이지 <http://www.osaekherb.co.kr>

농장주 : 김홍수, 이봉옥

TEL 033-672-0461~2

H·P 010-8566-0462, 010-4579-0462

※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문의는 위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만화가와 함께 배우는 슬로우푸드, 장(醬)이야기

한계령 너머 오색 백암마을에는 만화가 아저씨가 장을 만드는 오색전통장이 있습니다. 장작불로 콩을 삶아 정갈하게 띄우는 메주와 청국장, 소나무 숲 아래서 익어가는 된장과 고추장. 맑은 개울을 따라 산에 올라 만나는 무지개 길린 백암폭포 등 천혜의 자연환경에 위치한 오색전통장에서 또 하나의 소중한 체험의 추억을 만드세요.



메주제조과정



체험모습



직접 메주만들어보기

## ■ 체험프로그램

- 전통옹기의 역사와 지역별 특성 배우기
- 가마솥의 우수성과 과학적 원리 배우기
- 된장의 한살이 (1년숙성과정) 배우기
- 콩의 종류와 성장과정
- 청소년 심리상담실

※ 참가비 : 유료(체험별)

※ 계절별 체험종류가 다름



## ■ 주요체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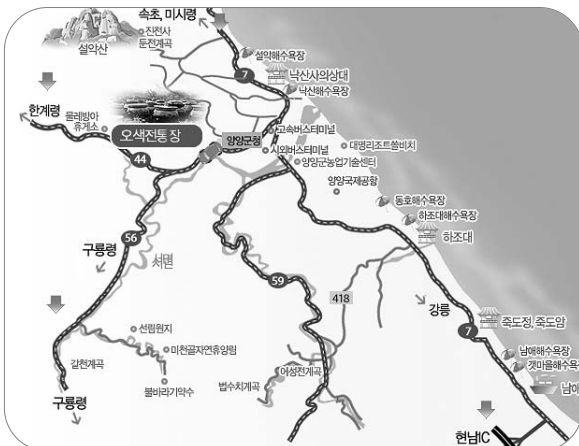
- 청국장 띄우기 : 가을의 별미, 청국장을 띄어봅니다.
- 장 담그기 : 백미지장, 모든 맛의 으뜸인 맛좋은 장을 담가봅니다.
- 콩 서리(뚝콩 구워먹기) : 옛날어른들의 추억이 되살아 나겠죠? 고소한 콩 구워먹기~
- 메주쭈기 : 일년농사의 갈무리, 메주를 쭈어봅니다.
- 장작패기
- 가마솥에 콩 삶기

## ■ 농장이용안내 및 주변볼거리

연중이용가능

현지숙박가능 백암마을 내 펜션 덴버하우스에서 숙박 가능

주변관광지 1~2시간 내외가 소요되는 백암폭포까지 산행이 가능하여 가족여행시 둘러볼만한 곳이다.  
오색온천, 구룡령 갈천약수 등



### 오색 전통장 약도/문의처

[오시는길] 서울 → 양평(6번국도)→ 홍천(44번국도) → 인제 → 한계령 → 오색약수터 → 오색약수마을(오색2리) → 10여분 양양방향 → 물레방아 휴게소 → 약 100미터 → 왼쪽으로 <전통 된장, 청국장>이라는 긴 안내판이 있음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1리 (백암마을)

홈페이지 <http://www.osaek.net>

농장주 : 박소연, 최종대

TEL 033-672-5080 H·P 011-373-0496

※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문의는 위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개울물에 발 담그고 복숭아 깨무는 맛!

분홍빛 복사꽃이 지천에 피어나는 용천리 마을앞 늪에서 용이 승천한다는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다. 겨울잠을 자던 곰이 코를 찌르는 복사꽃 향기에 겨울잠에서 깨어나 주린배를 채우러 내려왔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곶마을에서는 여름이면 “은어야 복숭아 따라가자”라는 체험이 개최되어 가족과 함께 즐기기에 아주 특별한 곳이다.



용천 복숭아



복숭아따기



다슬기잡기

## ■ 체험프로그램

- 봄 모내기, 과일나무 심기, 꽃길 산책, 산나물 채취
- 여름 과일따기, 개울물 발담그기, 천렵·다슬기 잡기
- 가을 벼베기, 배추·무뽑기, 단풍감상, 도토리묵 만들기
- 겨울 눈썰매타기, 동치미 국물에 메밀국수 말아먹기

※ 참가비 : 유료(체험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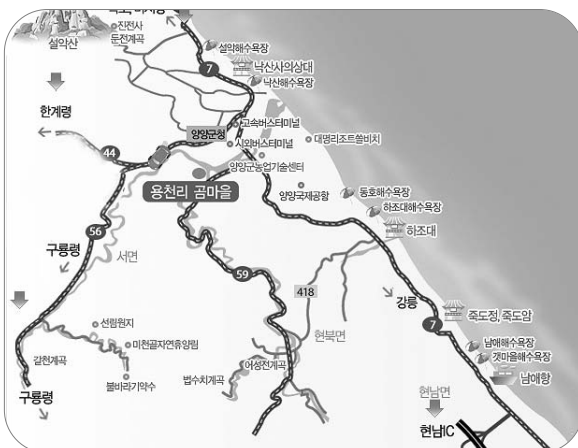
※ 계절별 체험종류가 다름

## ■ 은어야,복숭아 따러가자

여름피서특집으로 개최되는 “은어야 복숭아 따러 가자!”축제는 용천의 대표체험으로 여름의 즐거운 놀거리들이 준비되어 있다. 은어잡이(반도) 및 복숭아 따기 체험, 물속 줄다리기 및 통나무 건너기 감자.옥수수구워먹기, 캠프파이어, 소달구지 및 경운기 타기, 반도고기잡이 체험, 낚시체험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 ■ 축제참가안내

- 접 수 기 간 매년 7월 ~ 8월 (현장접수 가능)
- 접 수 처 서면 용천리 마을회 (033-672-4374) 및 양양군청 문화관광과(033-670-2207)
- 장 소 강원 양양군 서면 용천리 한남초교 앞 하천
- 주 최 서면 용천리마을
- 참가자 혜택 은어 1인당 3마리까지 잡기, 복숭아 따보고 1인당 2개 가져가기



### 용천 곶마을 약도/문의처

[오시는길] 영동고속도로 → 현남IC → 7번국도 속초 양양방향 좌회전 → 남애 → 하조대 → 양양대교 지나기전 송현사거리에서 월리방향 좌회전 → 59번국도 → 용천곶마을

강원 양양군 서면 용천리  
홈페이지 <http://tour.yangyang.go.kr>

서면 용천리 이장  
TEL 033-672-4374  
H•P 017-310-4374

※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문의는 위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새롭게 단장한 오색의 웰빙체험여행!

온천의 1번지 오색주전골이 수해복구와 더불어 오색의 대표이미지로 불리우는 떠오르는 해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만든 오색교와 도로정비, 오색을 더욱 빛나게 해줄 오색가로등 외에도 50년 전통을 자랑하는 온천장의 외관을 정비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주전골등산로



산채요리



오색 산벚꽃



오색 상가촌



## 오색의 사계

- 봄** 겨울을 깨고 새움트는 봄에는 산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진정한 산촌의 봄을 만끽할 수 있으며 갖 캐어낸 산채를 직접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 여름** 짙은 녹음 아래 숲향기 머금은 여름에는 도심지를 벗어나 산속의 조용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 가을** 주전골의 등산은 계곡마다 오색단풍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 겨울** 설악의 바람과 눈을 끼안은 남설악의 포근한 자연의 품을 느껴볼 수 있다.

### 오색약수·온천축제

- 행사기간 매년 4월중
- 행사장소 오색 주차장일대
- 주 최 오색약수온천축제위원회
- 체험내용 산채요리시식회, 산나물비비기대회, 주전골 가족등반, 약수빨리마시기대회, 전설의 오색화를 찾아서, 주전골산천어 방류행사등

## 오색의 즐길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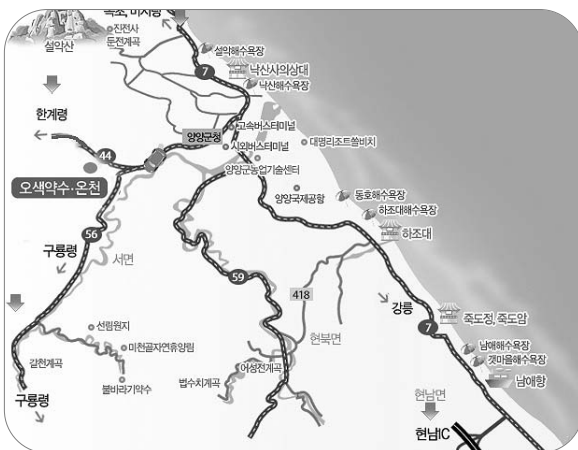
**오 색 약 수** 약수터의 넓직한 바위에서 퐁퐁퐁 솟아오른 사이다의 특쓰는 맛이 있는 오색약수는 위장병, 신경쇠약, 신경통, 빈혈에 효험이 있으며, 오색약수로 지은 밥은 푸른 빛깔이 돌며 밥맛이 좋습니다.



**오 색 온 천** 알칼리성 탄산수로 무색 투명하며 유황냄새가 나지않는 오색온천은 고혈압, 동맥질환, 간경변, 당뇨등에 좋습니다.



**오색의 먹거리** 붉은 더덕, 녹색산채, 푸른빛의 약수밥은 빛깔도 영양도 잘 어울리는 웰빙음식으로 사시사철 오색의 명물이며 그 맛과 향이 뛰어납니다.



### 오색 약수·온천/문의처

[오시는길] 서울 → 양평(6번국도) → 홍천(44번국도) → 인제 → 한계령 → 44번국도 → 오색약수터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홈페이지 <http://www.saek.info>

서면 오색리 추진위원장

TEL 033-672-5325

H·P 011-371-3153

※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문의는 위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 물, 푸른 숲과 산채의 향기가 있는 곳...

갈천리는 구룡령 바로 밑 첫 동네이다. 아홉마리의 용이 지나간 것처럼 길이 구불구불하고 험하다는 구룡령(해발 1,013m) 정상에서 양양으로 내려오는 고갯길에 자리잡고 있는 갈천(葛川)이라는 마을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침뿌리가 많이 나오는 곳이다. 화전민이 주로 자리잡고 살았던 산골마을인 갈천에서는 춘궁기가 되면 침뿌리로 연명할 수 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마을 앞을 흐르는 하천이 항상 침가루 일색이었기 때문에 갈천, 또는 '치레'라고도 불렸다고 한다.



압화체험



경운기타고 마을돌기



농악공연



관복입어보기 체험

## 갈천의 관광지

**구룡령옛길** 백두대간의 줄기, 구룡령(1,013m), 구룡령 정상에 오르면 산능선이 발아래 펼쳐지며 물려드는 운해의 모습이 장관이다. [구룡령 옛길]은 양양과 홍천을 연결하는 옛길로 산세가 험한 진부령, 미시령, 한계령보다 산세가 평탄하여 양양, 고성지방 사람들이 한양을 갈 때 주로 이 길을 이용하였다고 한다.

**제 집 바위** 기와집 형태를 썩 빼닮은 바위로 이 지역 명물중의 명물이다.

**갈천약수** 갈천약수터는 양양에서 서남쪽으로 28km 떨어져 있다. 성분이 오색약수와 비슷하고, 농도가 짙어서 특히, 위장병에 좋다고 하며, 56번 국도변에서 약 2km 떨어져 있어 약 30분정도 걸어서 들어가야 한다. 가을철 구룡령 단풍이 좋아서 걸어갈 만하다.

## 갈천 치레마을 산나물축제

갈천의 무공해 산채를 주제로 2008년부터 1회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다. 폐교된 갈천 분교를 행사장으로 이용하여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되살아나게 한다. 구룡령 옛길걷기, 산나물캐기 체험, 약수빨리 마시기대회, 산나물 비빔밥먹기체험 등 갈천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신나는 웰빙축제이다. 주변모텔과 마을에서 민박이 가능하다.

## 축제참가안내

**접수기간** 매년 5월중 (현장접수가능)

**접수처** 서면 갈천리 마을회 (033-673-8799) 및 양양군청 문화관광과 (033-670-2207)

**장소** 강원 양양군 서면 갈천리

**축제내용** 구룡령 옛길걷기, 산나물캐기 체험, 약수 빨리마시기대회, 경운기타고 마을구경하기, 관복입고 기념촬영, 압화체험(체험비있음), 곤드래밥비벼먹기체험, 농.특산물 및 짬뽕, 떡거리판매, 공연 및 장기자랑

※ 내빈 다과상준비:부너회 ※ 전시품설치:옛날용품



### 갈천 치레 마을 약도/문의처

[오시는길] 서울 → 양평(6번국도) → 홍천(44번국도) → 한계령을 넘어 오색약수 → 구룡령방면 → 논화리 삼거리 좌회전 56번 국도 → 미천골 → 현서초등 갈천분교 → 갈천

강원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

홈페이지 <http://tour.yangyang.go.kr>

서면 갈천리 이장

TEL 033-673-8799

H·P 016-346-1017

※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문의는 위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힘차게 팔딱이는 멸치그물을 직접 끌어올리는 재미!

동호리는 양양공항 부근의 넓고 시원한 백사장을 가진 동호리해수욕장이 있으며, 해수욕장 개장기간의 멸치후리기체험이 명물이다. 여러 해 동안 동호리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없었던 멸치후리가 2002년부터 동호리 동호해수욕장에서 재현되었다. 이 멸치후리는 동호리 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이어받은 방법이다.



동호해수욕장



부새우잡이



멸치후리기 모습



## ■ 동호리체험소개

- 부새우잡이** 부새우라고 하는 투명하고 작은 새우를 잡아본다. 작고 투명하기 때문에 해수욕을 하면서도 바다에 다니는 부새우를 육안으로는 볼 수 없으며, 다만 도구로 잡으면 작고 투명한 새우가 잡힌다.  
 • 체험시기 봄,여름,가을 • 체험시간 1-2시간
- 맨손으로 조개잡기** 맨손으로 잡는 재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호리를 찾는다. 동호리에서 잡은 조개는 구워먹거나 국을 끓여 먹어도 좋다. 반드시 바닷물에 4~5시간 이상 담가두어 스스로 모래를 토하도록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체험시기 봄,여름,가을 • 체험시간 1-2시간

※ 참가비:유료(체험별)

## ■ 멸치후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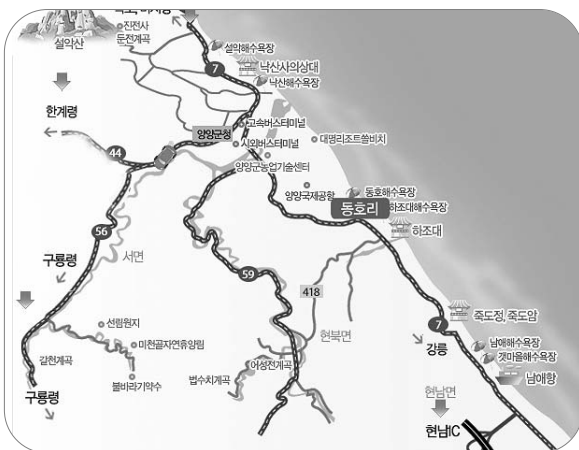
과거 동호리 앞 바다에는 멸치가 많아 동호리 주민들은 멸치에 크게 의존하였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잡히는 양이 적어지고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손질하는데 힘이 많이 들뿐 아니라 그물을 잡아당기는데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제 동호리가 동호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을 위하여 이것을 재현한 것이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잡힌 고기는 후리꾼으로 참여한 이들에게 돌아간다.

멸치가 잡히는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양한 종류의 고기가 잡힌다.

## ■ 체험이용안내

체험내용 멸치그물당기기체험, 체험비:500,000원  
 기 간 매년 5월~10월  
 소요시간 1시간 30분

최소단위 40명이상, 사전예약  
 기타체험 소나무 숲에서 보물찾기  
 회식 식 부녀회에서 활어회 제공



### 동호리 마을 약도/문의처

[오시는길] 영동고속도로 → 현남IC → 남해 → 하조대 → 과적차량검문소 지나서 200m → 여운포리로 우회전 → 동호리 이정표 지나 50m지점에서 우회전 → 동호리 해수욕장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홈페이지 <http://www.dongho.or.kr>

손양면 동호리 이장  
 TEL 033-672-2272  
 H•P 011-374-2271

※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문의는 위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떡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옛 이야기가 솟아날 듯 정겨운 곳...

송천떡마을은 아직까지 시골의 넉넉한 인심을 간직한 마을로 관광객들이 방문시간을 알려주면 시간에 맞춰서 떡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어, 떡 만드는 과정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팜스테이마을로도 지정되어 마을에 방문하시면 농촌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아름마을 가꾸기사업으로 마을은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습니다.



송편



떡만들기



송천아주머니들

## ■ 체험프로그램

년중 떡메치기 및 떡만들기체험, 소달구지타기, 경운기타기, 널뛰기, 디딜방아 체험

봄 봄소풍 햇썩떡 체험, 나물캐기, 나의 나무심기

여름 물고기잡기, 다슬기잡기, 물고기방류  
(은어,산천어 / 체험비 3,000원, 사전예약)

가을 송이채취

겨울 썰매타기

※상설행사 : 특산품판매, 민박운영, 떡판매 (배달주문 받습니다.)

※참가비 : 유료(체험별)

### 봄소풍 햇썩떡 체험

행사기간 매년 4월중

행사장소 양양 송천 떡마을

체험내용 떡메치기, 떡만들기, 햇썩캐기,  
나물캐기, 소달구지타기  
나의 과일나무짓기

체험비유료

## ■ 송천 떡만들기체험

명산 설악대청봉을 발원지로 하는 송천계곡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로 생산되는 양질의 쌀로 빛은 전통 재래떡은 이미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대개 새벽부터 장작불로 떡살을 삶고 떡메로 치는 전통방식 그대로 만들어지는 송천의 떡은 마을입구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양양장날 시장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 체험 이용안내

체험내용 떡메치기, 떡만들기, 떡먹기, 만든떡 가져가기

소요시간 1시간 30분

체험비 1말:100,000원 1/2말 : 50,000원

최소단위 4명이상, 반말이상, 사전예약

기간 년중



### 송천 떡마을 약도/문의처

[오시는길] 서울-영동고속도로-강릉-양양(3시간30분소요)  
 • 서울 → 홍천 → 인제 → 한계령 → 양양(3시간 30분 소요)  
 • 서울 → 홍천 → 양양의 56번국도(구룡령, 3시간 30분 소요)  
 (교통 복잡한 시기에 체증없이 사용할수 있는 도로)

강원도 양양군 서면 송천리

홈페이지 <http://songcheon.invil.org/>

서면 송천리 이장

TEL 033-673-4314 H·P 011-364-4310

※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문의는 위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자연이 베푼 넉넉함을 함께 나누는 산촌 황룡마을

사철 깊고 푸른 미천골 휴양림과 신라의 절터인 선림원지, 폭포수에서 치솟는 불바라기 약수, 한여름에도 한기를 느끼는 얼음굴이 있는곳. 토종꿀, 인진쑥, 장뇌, 송이, 산채, 우렁이를 이용한 친환경쌀 등이 생산되는 자연의 선물이 있는곳. 황룡마을의 청정자연과 주민들의 따뜻하고 넉넉한 인심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송이채취



부엉이 만들기



산악자전거트래킹



숫대만들기



## ■ 향릉마을 즐길거리, 관광지

**봄** 고로쇠 수액채취 체험, 야생화 군락지 탐방, 얼음굴 등산로 탐방  
**여름** 불바라기 약수체험, 미천골 산림욕체험, 산촌민박 체험  
**가을** 황릉 가을한마당축제, 산악자전거 임도탐방, 백두대간 등정  
**겨울** 눈썰매체험, 빙구타기 체험, 겨울전통문화 체험

**미천골계곡** 천혜의 원시림으로 이루어진 자연휴양림. 계곡의 비경과 고찰의 전설이 있다.  
**선림원지 석탑** 신라 법흥왕때 창건된 고찰로 지금은 터만 남아있지만 석탑과 부도가 장구한 세월을 대변한다.  
**얼음굴** 현 마을회관 뒷산에 위치한 바위틈에서 증복까지 얼음이 녹지않는것을 화전민이 발견하였는데 마치 옛날 궁중의 빙고를 연상케 한다.  
**불바라기약수** 주위가 불바닥처럼 붉다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폭포에서 흘러나와 신비스럽다. 위장병에 효험이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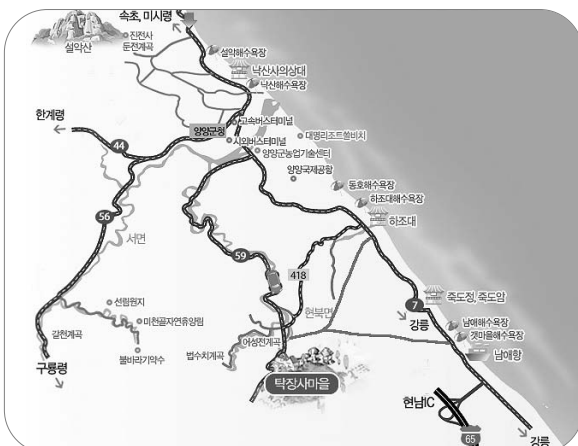
※ 참가비: 유료(체험별)

## ■ 향릉마을 가을한마당

2008년 1회 축제가 개최되었으며 향릉마을의 청정자연과 주민들의 풋풋하고 넉넉한 인심을 즐길 수 있는 축제이다. 산악자전거 트레킹, 얼음굴산책하며 모뎀찾기, 버섯채취, 부엉이 및 숫대만들기, 우렁이잡기, 도토리웃 벗기기, 짚신신어보기, 구루마타기 계란꾸러미만들기, 가마솥약수밥지어 산채비빔밥만들기, 올챙이국수만들기, 감자송편만들기, 물고기와 함께 달리기 등의 체험들이 진행된다.

## ■ 축제참가안내

기간 9월중 장소 서면 황이리 일원 주최 황이리 마을회 후원 양양군  
 문의 서면 황이리 이장 (011-374-8767), 양양군 문화관광과 (033-670-2207)



### 탁장사 마을 약도/문의처

[오시는길] 영동고속도로 → 현남 IC(속초방면) → 현북면 하광정리(하조대) → 어성전리 방향 좌회전(418번 지방도) → 현북면 어성전 1리 → 어성전 2리(탁장사마을)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 2리 탁장사마을  
 홈페이지 <http://takjangsa.go2vil.org>  
 마을펜션홈페이지 <http://takjangsa.com>

이장 김창렬 H·P 010-2937-1557

조민석 사무장 TEL 033-673-2526 H·P 010-4248-6746

※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문의는 위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백학이 많이 모여들어 경치가 그윽하고 아름다운곳...

“백학(白鶴)이 많이 모여들어 학포리(鶴捕吏)”

약500여년 전에 적성동(赤城洞)이라고 불렸는데 조선 영조때 박진사가 송진리 앞에 호수가 하나 있고, 도화리 앞에 호수가 하나 있어 호수의 이름을 쌍호라 짓고, 지금의 학포리 일대를 백학(白鶴)이 많이 모여들어 학포리(鶴捕吏)라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경치가 그윽하고 아름다우며 학포리 일대의 지형은 학이 날개를 펼쳐 동네를 감싼 형상으로 마을에서 가장 높은 중구봉(구봉산이라고도 함)은 학의 머리로, 7개의 골은 학의 날개 깃에 해당한다고 구전되어오고 있습니다.



토마토



토마토파기



비닐하우스전경



오산해수욕장

## 이색놀이체험

- 여름            오산해수욕장 물놀이
- 여름,가을    감자캐기, 오이 따기, 토마토 따기
- 가을           남대천 연어생태체험

※참가비:유료(체험별)



## 마을과채류 사업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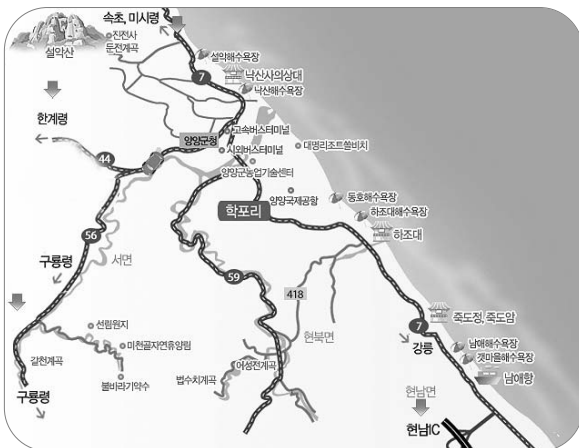
동해바다에서 1km 안쪽으로 들어서있는 학포리는 흰 학이 많이 모여드는 강 어귀(개)라는 뜻을 지니는 마을이다. 동쪽으로 고즈넉한 갈대숲의 쌍호, 마을을 감싸는 울창한 송림과 대나무숲, 야트막한 골짜기를 따라 웅기종기 들어선 마을, 학포리는 학이 날개로 품은 마을처럼 아늑한 농촌이다.



도시화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은 학포리는 청정한 자연환경과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마음의 고향과 같은 농촌마을이다.

토마토와 오이 등을 주작목으로 친환경 청정 과채류를 생산하고 있으며 청정 과채류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 단계별 획득 예정 (2006년 저농약, 2007년 무농약)이다.

친환경 농업 교육 및 선진농장 견학, 품질향상 기술교육으로 보다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 학포리 마을 약도/문의처

[오시는길] 영동고속도로 → (양양방면) → 현남 IC → 7번국도 양양방면 → 남대천 양양대교 건너기 전 언덕아래 사거리에서 우회전 (수산방면) → 송현리 → 연어연구센터 → 수여리 → 송전리 → 우회전(동해사 입간판) → 오산선사박물관 → 학포리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학포리마을  
 홈페이지 <http://hakpori.com>  
 손양면 학포리 이장 : 최종원, 박경애  
 TEL 033-672-4485 H·P 010-6239-4485  
 ※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문의는 위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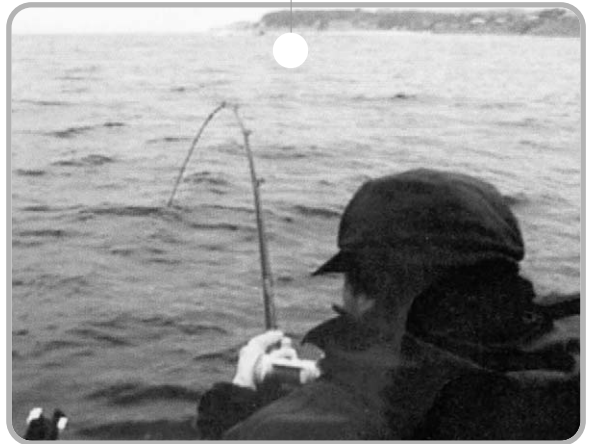
## 양양 전통시장 5일장 체험


- **내용** : 5일마다 열리는 양양전통 재래시장 체험
- **장소** :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 **기간** : 매월 4, 9, 14, 19, 24, 29일
- **체험료** : 무료
- **체험내용** : 옛날의 재래시장을 둘러보고 필요한 물건 구입 가능
- **군청과의 거리(읍내)** : 차로 5분
- **기타사항** : 국수, 국밥 등 전통음식 유료로 먹을 수 있음  
무공해 양양의 특산물 등 구입 가능
- **주최** : 양양시장번영회(☎ 033-671-2878)



## 바다낚시 체험

- **내용** : 고기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아보는 체험
- **장소** : 양양군 현남면 남애항
- **기간** : 연중 (단, 예약제이며 파도가 높으면 불가능)
- **한번이용 가능인원** : 120명(최소인원 40명 이상)
- **체험시간** : 2시간
- **체험료** : 1일당 20,000원
- **체험내용** : 바다에 나가 낚시로 고기 잡는 체험
- **군청과의 거리(읍내)** : 차로 20분
- **기타사항** : 잡은 고기는 가져감.
- **문의** : 남애2리 어촌계장(☎011-9480-1146)





# 양양의 먹거리



**(1) 송이라면, 송이 칼국수**

- 내 용 : 라면과 칼국수에 송이를 넣어 끓인 음식
- 장 소 :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 기 간 : 연중 가능(단 예약제)
- 한번이용 가능인원 : 60명(최소인원 10명이상)
- 식사시간 : 40분
- 음식료 : 1인당 라면 -5,000원, 칼국수-6,000원
- 군청과의 거리(읍내) : 차로 5분
- 기타사항 : 라면과 칼국수에서 송이특유의 향 음미
- 음식점소 : 바우갈비 식당(☎033-671-2011)



**(2) 송이 삼계탕**

- 내 용 : 닭고기에 송이를 넣어 끓인 음식
- 장 소 : 양양군 손양면 송현리
- 기 간 : 연중 가능(단 예약제)
- 한번이용 가능인원 : 120명
- 식사시간 : 1시간
- 음식료 : 1인당 13,000원
- 군청과의 거리(읍내) : 차로 10분
- 기타사항 : 닭과 송이의궁합이 음식에서 가장 잘 맞는 음식
- 음식점소 : 송이골 식당(☎033-672-8040)



### (3) 송이 불백

- 내 용 : 불고기에 송이를 넣어 끓인 음식
- 장 소 :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 기 간 : 연중 가능(단 예약제)
- 한번이용 가능인원 : 120명
- 식사시간 : 1시간
- 음식료 : 1인당 26,000원
- 군청과의 거리(읍내) : 차로 5분
- 기타사항 : 소고기와 송이를 살짝 끓인 샤브샤브식의 음식
- 음식점소 : 이모네갈비 식당(☎033-671-2959)



### (4) 송이 영양돌솥밥

- 내 용 : 송이, 대추 넣고 반찬에 영양이 많은 음식
- 장 소 : 양양군 손양면 송현리
- 기 간 : 연중 가능(단 예약제)
- 한번이용 가능인원 : 120명
- 식사시간 : 1시간
- 음식료 : 1인당 13,000원
- 군청과의 거리(읍내) : 차로 10분
- 기타사항 : 된장찌개 무료
- 음식점소 : 송이골 식당(☎033-672-8040)



**(5) 뚜거리탕**

- 내 용 : 양양지역의 토속어종으로 만든 음식(보양식)
- 장 소 : 양양군 양양읍 율리
- 기 간 : 연중 가능(단 예약제)
- 한번이용 가능인원 : 60명
- 식사시간 : 1시간
- 음식료 : 1인당 5,000원
- 군청과의 거리(읍내) : 차로 5분
- 기타사항 : 연어를 이용한 요리도 맛볼 수 있음.
- 음식점소 : 천선식당(☎033-672-5566)



**(6) 산채비빔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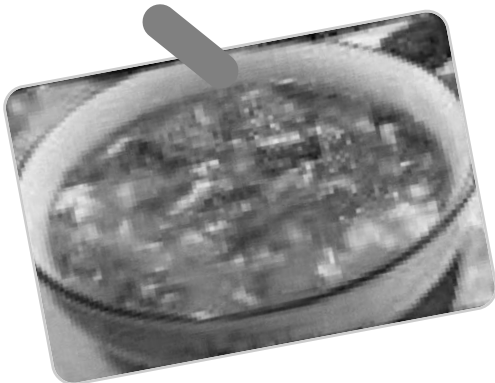
- 내 용 : 무공해 산나물로 비벼서 만든 음식
- 장 소 : 양양군 양양읍 청곡2리
- 기 간 : 연중 가능(단 예약제)
- 한번이용 가능인원 : 60명
- 식사시간 : 1시간
- 음식료 : 1인당 6,000원
- 군청과의 거리(읍내) : 차로 5분
- 기타사항 : 된장찌개 무료
- 음식점소 : 속초식당(☎033-672-8845)





**(7) 생선매운탕**

- 내 용 : 이 지역바다에서 잡은 생선으로 만든 음식
- 장 소 : 양양군 강현면 전진 1리
- 기 간 : 연중 가능(단 예약제)
- 한번이용 가능인원 : 400명
- 식사시간 : 1시간
- 군청과의 거리(읍내) : 차로 10분
- 기타사항 : 기타음식 가능, 인근에 낙산사, 해수욕장
- 음식업소 : 금강산회집(☎033-671-4185)



**(8) 섭국**

- 내 용 : 바다에서 잡은 섭으로 만든 음식
- 장 소 :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 기 간 : 연중 가능(단 예약제)
- 한번이용 가능인원 : 120명
- 식사시간 : 1시간
- 음식료 : 1인당 10,000원
- 군청과의 거리(읍내) : 차로 30분
- 기타사항 : 인근에 해수욕장에서 멸치잡이 체험 가능
- 음식업소 : 오산회집(☎033-672-4168)



**(9) 메밀국수**

- 내 용 : 메밀로 만든 국수
- 장 소 : 양양군 손양면 송전리
- 기 간 : 연중 가능(단 예약제)
- 한번이용 가능인원 : 80명
- 식사시간 : 1시간
- 음식료 : 1인당 6,000원
- 군청과의 거리(읍내) : 차로 20분
- 기타사항 : 혈압강화에 좋음
- 음식점소 : 송월메밀 국수식당(☎033-672-3696)



**(10) 생선회**

- 내 용 : 바다 고기를 이용해 회로 만든 음식
- 장 소 :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
- 기 간 : 연중 가능(단 예약제)
- 한번이용 가능인원 : 80명
- 식사시간 : 1시간
- 음식료 : 1인당 15,000원
- 군청과의 거리(읍내) : 차로 20분
- 기타사항 : 연어요리 무료, 인근에 물치항포구
- 음식점소 : 동해바다회집(☎033-673-1110)



**(11) 버섯전골**

- 내 용 : 여러 가지 버섯으로 만든 음식
- 장 소 : 양양군 양양읍 율리
- 기 간 : 연중 가능(단 예약제)
- 한번이용 가능인원 : 40명
- 식사시간 : 1시간
- 음식료 : 1인당 13,000원
- 군청과의 거리(읍내) : 차로 5분
- 음식점소 : 송이버섯마을(☎033-672-3145)

**공통사항**

- 음료수 술값은 별도요금
-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양양군청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계 문의

담당 전도영 계장(033-670-2723)

설악신문 2008. 03. 24 [849호]

##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개강

한시·사물놀이 등 전통문화 교육



양양문화원(원장 양동창)은 지난 18일 일출예식장에서 2008문화학교 개강식을 가졌다. 이날 개강식에는 양동창 문화원장과 전택춘 부군수, 김현수 군의장, 수강생 등 150여명이 참석해 문화학교 수강생들을 격려했다. 올해 양양문화원 문화학교는 한문서예와 사물놀이, 한시, 민요, 기타, 한국화 등 전통 문화를 가르친다.

김주현 기자

설악신문 2008. 07. 21 [866호]

##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개강

양양문화원, '고향의 은빛연어' 주제



양양문화원(원장 양동창)은 지난 18일 오전 10시30분 문화복지회관 2층 소강당에서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개강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강식에는 양동창 문화원장과 교육생 등 50여명이 참석해 실버문화학교 개강을 축하했다.

하반기 실버문화학교는 '고향의 은빛연어'를 주제로 연어생태연구와 연어생태환경지킴이 활동, 연어가죽제품 만들기, 연어요리 연구개발 등 다양하게 운영된다.

수강생 30명은 오는 11월까지 양양문화원과 연어연구센터, 남대천 일원에서 연어를 주제로 한 문화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양동창 문화원장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실버문화학교가 연어를 주제로 한 단계 향상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며 "양양문화원의 땡땡땡 실버문화학교가 전국에서도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계속 인정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설악신문 2008. 07. 21 [866호]

## 숲속으로 떠나는 국악캠프

양양문화원 23~25일 초등생 대상



“무더운 여름 국악이 있는 숲속으로 떠나요.”

양양문화원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양양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숲속의 국악캠프를 연다. 문화원은 2008 강원지역 국악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상평초교 공수전분교에서 숲속의 국악캠프를 열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와 국악을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번 국악캠프는 전문강사와 함께 지역특색에 맞는 국악을 배우며 방학을

이용해 자연과 벗하면서 교과서에 나오는 우리 고유의 음악을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체험위주로 진행된다. 초등학생 4~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악캠프에는 공수전분교(9명)와 상평초교(27명), 현서분교(10명) 학생들이 참여한다.

양양문화원은 지난 2006년부터 지역학생들이 우리 국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직접 배워보는 숲속의 국악캠프를 열고 있다. 올해 숲속의 국악캠프에는 청성풍물패 이해원씨 등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악인 3명이 전문 강사로 참가해 아이들을 지도한다.

양양문화원 관계자는 “이번 캠프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무더운 여름 시원한 숲속에서 우리국악을 배우보고 함께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진행되도록 꾸며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설악신문 2008. 10. 13 [877호]

## 양양문화원 문화탐방

경북 영주 소수서원 · 부석사

양양문화원(원장 양동창)은 지난달 25일 경북 영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문화원 회원 60명은 이날 경북 영주에 위치한 퇴계 이황의 소수서원과 박물관을 둘러보고 부석사를 찾아 불교문화유적을 탐방했다.

양양문화원은 이번 선진지 문화탐방을 통해 회원들에게 전국 각지에 산재한 다양한 전통문화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양양문화원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개최되는 양양 연어축제에 회원들이 직접 만든 연어요리와 가족제품을 전시할 계획이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도전하는 노년! 활기찬 노년!

## 연어 '소시지·가죽 공예품' 첫 개발

양양문화원 실버문화학교 이상규(68) 회장

'소시지=돼지고기, 생선껍질=출모없이 버려지는 것' 이 두 개의 동식을 부정하는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그 통념을 깬 어르신들이 있다. 바로 강원도 양양문화원 실버문화학교 어르신들이다. 어르신들은 연어고기로 햄버거에 들어가는 소시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연어껍질을 이용해 휴대용 고리볼 비웃해 열쇠고기, 귀고리 등의 공예품을 제작했다. 연어의 화려한 변신이다.

어르신들이 연어소시지와 연어가죽 공예품을 제작한 때는 지난 7월. 양양문화원이 실버문화학교 프로그램으로 연어소시지와 연어가죽 공예품이 선정되면서다. 이 프로그램이 문화원에 정착된 때는 이상규(68·사진) 회장의 몫이 컸다.

이 회장은 "양양을 대표하는 특산물인 연어의 다양성을 조명하자는 마음이 컸다"며 "연어고기로 소시지를 만들고, 연어껍질을 활용해 아름다운 수공예품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연어로 음식과 공예품을 만들고 있는 어르신들은 60대부터 70대까지 30여명. 이들은 매주 화, 금요일 2시간씩 연어의 효능뿐만 아니라 일생, 납대한 역사 등 연어에 대한 총체적인 교육을 받았다. 전문적인 교육은 연어소시지 창업회사와 연어가죽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를 각각 연계해 제조 방법을 배웠다.

어르신들의 진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은 지난 11월 전주 한옥마을에서 열린 전국 문화원축제인 '실버문화축제'에서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문화원 가운데 양양문화원은 단연 돋보였다. 부스에는 연어소시지와 연어가죽공예품을 제작, 판매할 때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노릇노릇 구워진 연어소시지는 연어고기와 야채로 만들어 기존 돼지고기로 만든 소시지보다 담백하고 부드러운 것이 그 특징이다. 소시지를 맛 본 뒤 구입하는 사람들도 여럿.

연어가죽으로 만든 수공예품을 구경 온 관람객들도 줄을 이었다. 연어껍질로 공예품을 만든다는 소리에 호기심으로 발길을 옮기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어르신들은 관람객들을 위해 직접 연어가죽을 만져보고, 체험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가공된 연어가죽을 여러 개 겹쳐 재단 한 뒤 형형색색으로 염색을 하면 하나의 공예품이 완성됐다.

생선껍질이라고 해서 약하다는 생각은 오산이다. 연어는 '껍질' 대신 '가죽'이라고 불릴 정도로 약어나 소가죽 못지않게 질기다. 이날 어르신들은 연어소시지를 비롯해 연어가죽으로 만든 열쇠고리와 휴대용 고리볼 등을 판매하기도 했다.

삼삼오오 모여 교육을 받다보니 친분도 더욱 두터워졌다. 이 회장은 "교육을 통해 얻은 게 많아요. 사회활동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가생



실버문화학교 프로그램 선정... 뜨거운 반응  
창업회사와 연계 어르신 일자리 만들 겁니다

활도 하고, 친분도 쌓을 수 있잖아요. 게다가 우리 지역의 특산품까지 홍보할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지요"라고 말한다.

어르신들은 양양의 특산물인 연어를 알리고자 노력하는 일꾼들이다. 지난해는 양양축제에서 공예에 적은 연어떡반을 연결해 100m의 벨트를 제작해 관람객들에게 연어를 홍보하기도 했다. 올해도 축제에 참가해 연어소시지와 수공예품을 만들어 홍보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 회장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이 회장은 "처음 연어소시지를 만들 때만 해도 단순히 가정에서 만들어 먹자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주위의 반응이 꽤 좋아요. 앞으로 연어소시지나 연어가죽공예품이 반응이 좋다면 각 창업회사와 연계해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도록 노력할 거예요"라고 말했다.

이미정 기자 mjlee@rnews.co.kr

설악신문 2008.12.22 [887호]

##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제8회 동구리농가 경창대회도



양양문화원(원장 양동창)은 지난 17일 문화학교 수료식 및 동구리농가 경창대회를 개최했다.

문화원은 이날 일출예식장에서 양동창 문화원장과 이진호 군수, 김준식 군의회 의장,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시와 한문, 한글, 서예, 한국화, 민요, 통

기타, 사물놀이 등 총 8개반 93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이어 열린 제8회 동구리농가 경창대회에서는 오두매기를 구성지게 열창한 조병완씨(현남 견불리)가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모심기 소리를 부른 김남열씨(현남 포매리)가 우수상을 차지했다.

상여소리를 한 심봉섭씨 등 9명과 농요를 부른 이통달씨 등 2명은 각각 장려상을 받았다. 양동창 문화원장은 “우리소리와 전통을 잇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더 알차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 편집을 마치면서.....

한해가 저물 즈음 12월의 눈으로는 20여년 만에 많은 눈이 내려 밝아오는 기축년의 축복을 내려주는 듯, 어느덧 우직하고 근면과 부의 상징인 소의 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분주함속에서 처음으로 편집함에 부족함이 너무도 많아 보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충실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묻어나는 향토지로서의 “현산문화”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새해에도 문화가족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새해, 마지막 교정을 마치면서

事務局長 金光泳





# MEMO



## 현산문화 제20호

2009年 1月 31日 印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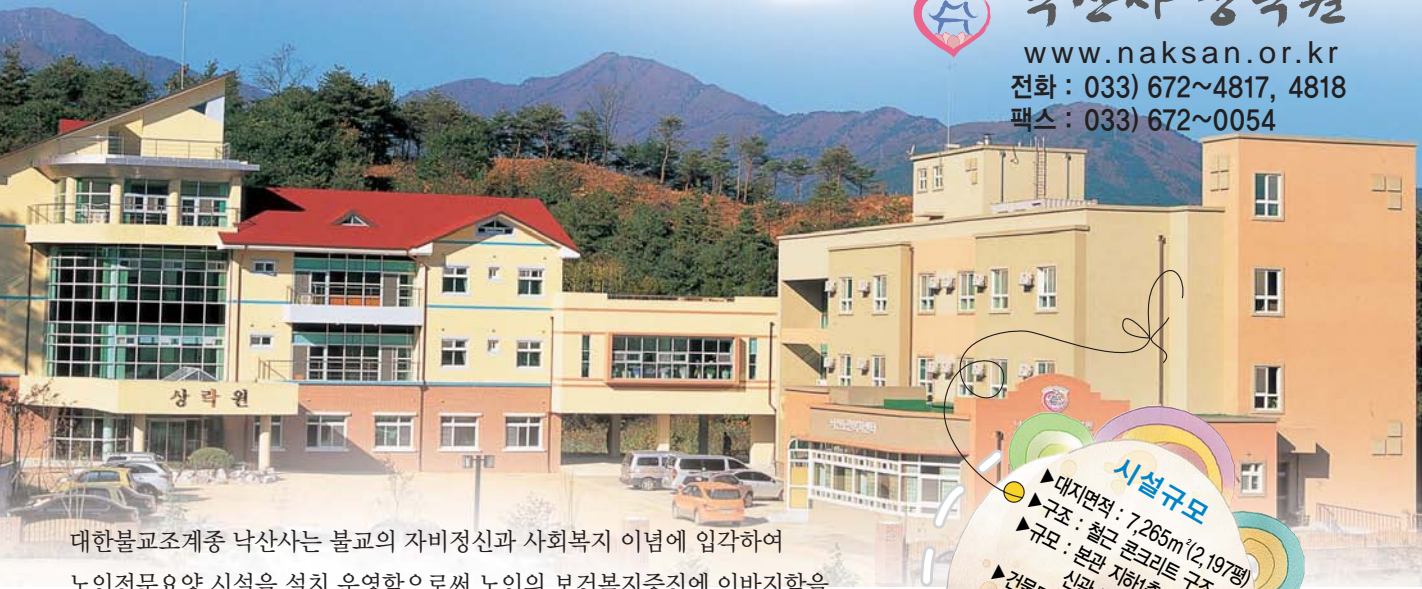
2009年 1月 31日 發行

발행인 : 양 동 창

편집인 : 김 광 영

발행처 : 襄陽文化院

인쇄처 : 대양프리컴



대한불교조계종 낙산사는 불교의 자비정신과 사회복지 이념에 입각하여 노인전문요양 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낙산사 상락원은 치매, 중풍, 노인성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전문 인력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와 시설 장비를 갖추고 가족과 같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어르신과 함께하는 어르신들의 은빛 보금자리입니다.

### 시설규모

- ▶ 대지면적 : 7,265㎡ (2,197평)
- ▶ 구조 : 철근 콘크리트 구조
- ▶ 규모 : 본관 지하층 지상3층  
신관 지상 4층
- ▶ 건물면적 :  
본관 1,721.67㎡ (520.77평)  
신관 1,887.28㎡ (570.89평)
- ▶ 입소정원 : 125명

## 입소절차

- ▶ 일반 어르신 장기요양 인정 신청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입소상담 및 입소결정
- ▶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장기요양 인정 신청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  
⇒ 시군구에서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장기요양기관에서 입소상담 및 입소결정

## 여 양 원 소개



### 의료재활과

물리치료사와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주된 업무는 고혈압, 당뇨, 치매, 뇌졸중 등의 질환을 가지신 어르신의 관리와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합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어르신을 돌보는데 필요한 의료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 병원의 촉탁의와 연계하여 어르신들에게 좀 더 질 좋은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물리치료실

어르신들의 주된 질환인 관절통증과 그로 인한 신체의 변형에 초점을 맞추어 치료 및 통증완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주파치료기, 간섭파치료기, 고주파치료기, 공기압치료기 등을 구비하여 어르신들의 재활치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요양보호실

전문요양보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은 물론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가정과 같은 편안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로 어르신들의 개별성, 자율성, 책임감, 선택, 참여, 표현 및 결정의 자유를 존중하며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의 욕구까지 최대한 반영한 생활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어르신들과 생활하고 있습니다.



### 영양위생팀

영양사와 조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엄선된 식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계절에 맞는 식재만을 사용합니다. 내 집에서 드시는 것과 같은 식단을 제공하며 질환을 이겨낼 수 있는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단을 제공합니다. 또한 각종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식단을 계획합니다.



### 생활복지과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시설관리팀장, 영양위생팀 등이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 업무를 보는 곳입니다. 시설의 홍보와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외 시설행사를 주관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의 모든 제반 업무를 취합하여 각 과에서 조정, 전달, 수정하는 일을 보호하고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